〈그림 3〉 환자중심의 의료시스템¹³⁾

이것은 진료의 초기로부터 종료시까지 전 진료과정을 통하여 환자들이 종합적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하는 운영관리기술을 말한다.

따라서 진료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상에서 환자가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운영 시스템이 환자중심으로 되어야 한다.

즉,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시설, 인력, 의료장비, 실내 디자인 등의 제자원을 환자들이 편리하도록 배치를 하고 이동거리가 최소화하는 집중치료방식(Centralization Method for Medicare)이 요청된다.

이러한 환장중심 치료시스템을 강선호 회장이 경영하는 의료법인 동화한방양방협진병원을 중심으로 이행하여 환자들의 고객만족을 최선의 방안을 따랐다.

4) 의료경영활동

전문적 요인은 외국인들의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임상관리를 말하며, 비전문적 요인은 진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경영관리를 말하며, 도덕적 요인은 전문적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인간성 소회의 현상인 철학, 윤리학, 종교학, 교양을 통한 의료인의 인격관리를 말한다.



〈그림 4〉 의료경영의 삼각분석도표 (Triangle Chart)

13) 박주희, 의료경영론, 大學書林, 1999. 6. 15, pp. 118-119.

5) 강선호 회장의 병원경영활동

동화 양방·한방병원의 중심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실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한방 협진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적인 양·한방 협진으로 진료의 효율을 높이고, 전문의료진들에 의한 탁월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최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한방병원에서는 드물게 전신 CT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화학 자동분석기·전자내시경·골다공증 진단기·심장소생기·신경근 치료기·뇌혈류분석기·뇌혈류진단기 등 양·한방 첨단장비를 구비하여 최상의 진료를 한다.

셋째, 종합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양·한방 종합검진으로 체질분석 및 질병의 조기 발견과 건강을 지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넷째, 중풍(뇌졸증)치료 및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중풍 전문 클리닉에서 양·한방 협진과 He-Ne 레이저 등 첨단 진료장비로 중풍 치료는 물론 고혈압·당뇨·비만 등 중풍 유발인자를 최소화하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1) 동화의료원의 진료과목

- ① 내과 : 중풍(뇌졸증), 심장병, 고혈압, 저혈압, 위염, 위궤양, 감기, 변비, 치질, 당뇨병, 부종, 신장, 통풍, 간염, 간경변, 담석증, 핫병
- ② 부인과 : 산전·산후관리, 산후통, 불임증, 임신중 장애, 경년기 장애
- ③ 소아과 : 경풍, 감기, 설사, 야뇨증, 식욕부진, 허약체질, 뇌성마비
- ④ 안과·이비인후과 : 축농증, 알러지성 비염, 편도염, 중이염
- ⑤ 신경정신과 : 신경성질환, 정신장애, 알콜중독, 스트레스, 노이로제, 불면증
- ⑥ 침구과 :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통, 금연, 금주침, 염좌, 견비통, 교통사고 후유증
- ⑦ 한방물리요법 : 재활 및 운동요법
- ⑧ 양방내과 : 내과질환, 특수촬영 및 각종 검사
- ⑨ 정형외과 : 내과질환, 특수촬영 및 각종 검사
- ⑩ 신경외과 : 내과질환, 특수촬영 및 각종 검사
- ⑪ 성형외과 : 내과질환, 특수촬영 및 각종 검사

(2) 전문/특수클리닉

- ① 중풍예방 클리닉
- ② 디스크/요통 클리닉
- ③ 비만 클리닉

- ④ 수험생/허약아 클리닉
- ⑤ 교통사고 후유장애 재활 클리닉
- ⑥ 관절/통증 클리닉
- ⑦ 두통 클리닉
- ⑧ 남성/여성 성 장애 클리닉
- ⑨ 당뇨 클리닉
- ⑩ 핫병 클리닉
- ⑪ 신경 클리닉

(3) (의료법인) 동화의료원의 윤리강령

동화의료원은 환자를 위한 진료활동과 질병퇴치 및 예방의학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설정하고 있다.

① 동화의료원은 의료법인으로서 민간인의 보건을 증진하고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진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동화의료원은 생명의 존중함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아 환자를 위한 봉사정신으로 일관 한다.

③ 동화의료원은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봉사정신으로 진료와 서비스를 한다.

④ 동화의료원은 환자를 위한 신뢰경영과 정도경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한다.

⑤ 동화의료원은 윤리경영을 하여 법규준수를 하고 정당한 범위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다.

또한 강선호 회장은 현재까지 운영해 온 『동화한방 양방 협진병원』의 100병상 규모의 신정동 병원 규모를 대폭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인 선호의료재단을 창립하여 2004년 1월부터 전북 남원시에 300병상의 대규모 병원을 설립하였으며, 거의 동일규모로 인천광역시에 300병상의 병원의 지원을 개설하고자 급속도로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2. 강선호 회장의 경영전략

1) 고객만족경영(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 CSM)

고객만족경영에 의해 기대되는 효과는 환자의 완전만족을 위한 제공에 의하여 제품과 서비스, 나아가서 병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고객을 확실히 고정화하는 것과 고객의 평판에 따라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조직내에서 공감을 일으키는 새로운 구심력을 창출하여 경영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강선호 회장은 병원에 대한 고객만족경영을 위하여 ① 진료대기시간의 단축화, ② 회진시간의 적정화, ③ 의료진의 불친절 해소, ④ 진료절차의 단순화를 도모하였다.

더구나 한방의료원에서도 ① 진료방법의 과학화, ② 환자에의 진료내역설명, ③ 원형도표 분석을 위한 도식화(圖式化)를 시도함으로써 한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방의료시설에의 친근화를 구체화하였다.

최근에 의료마케팅에 있어서 파라다임변화(paradigm shift)는 환자중심과 환자만족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1990년대에는 질병중심의 치료시대에서 2000년대는 환자치료와 삶의 질(質)의 중심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파라다임의 변화 경향은 고객들의 병원의 서비스평가요소 항목에도 변화가 있게 되었는데, 환자들은 환자들의 최신의료장비, 우수한 진료진의 병원선택중심에서 편리한 진료와 병원내의 편의시설과 의료직원들의 친절도가 병원에 대한 주요 선택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환자들의 의료평가 요소〉

순위	평가요소항목(Evaluation Factors)
1	진료 및 케어링(Warmth, Caring, Concerning)
2	의료진(Medical staff)
3	의료기술/의료장비(Technology/Equipment)
4	전문화/서비스(Specialization/Scope of Services available)
5	성과(Outcome)

자료 : Health Forum 1987.

그러므로 병원서비스에 있어서 진료서비스를 최적화하는 「환자중심 진료시스템 (The patient focused care system)」의 운영방법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실제적으로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고객의 흐름과 동선(動線)을 최소화하고, 의료스태프의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병원경영방식의 조기도입이 절대로 필요하다.

더구나 진료서비스 중심점으로부터 환자를 중요시하는 환자중심점으로 초점을 맞추어 내부운영시스템을 종전의 「병원진료스태프 중심점」에서 「환자중심점」으로 이동하여 환자중심 병원관리(Patient-Oriented Hospital Management)가 요청되고 있다¹⁴⁾.

이러한 시점에서 고객접점관리(Moments of Truth : MOT)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고객접점관리(MOT)는 병원과 접촉하는 접점으로 바로 그 시기에 고객만족도의 여부

14) 장상우, 환자중심의 병원경영관리, 고려의학, 1995.

가 결정되기 때문에 MOT는 고객만족도 판단의 주요기준과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병원 경영자(Hospital Manager)는 병원직원과 환자와의 고객접점부에 근무하는 팀과 비접점부에 근무하는 팀간의 체인관리(Chain Management)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Chain Management의 체계화를 통하여 고객만족체인(Customer satisfaction chain)의 형성이 고객만족경영(CSM)이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¹⁵⁾.

2) 병원의 가치창조경영(Value-based Management : VBM)

일반적으로 가치창조경영은 기업의 궁극적 목표를 기업가치의 극대화에 두 경영활동이다. 즉, 이 시스템은 기업의 전략수립, 재무계획, 사업계획 및 투자결정 등 경영활동과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경영시스템을 말한다. 가치경영, 가치창출은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기준을 회계상의 매출과 이익 중심(profit oriented)에서 벗어나 경제적 이익에 근거한 기업가치를 중심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기법으로서 장기적 수익성을 기준으로 기업활동을 통제하는 경영기법이다¹⁶⁾.

따라서 진정한 가치창조는 수익성과 더불어 효율성 제고에 기초하므로 가치극대화를 위하여 경영자는 손익계산서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의 가치는 기업이 각종 비용과 세금을 공제하고 난 후에 순수하게 얻은 미래의 모든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산출하게 된다. 미래의 기대되는 현금흐름이 클수록, 그리고 현금흐름 할인에 사용되는 자본비용이 낮을수록 기업가치는 크게 평가된다¹⁷⁾.

스튜어트(Stewart : 1991)에 의하면, 기업가치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미래에 투자할 사업, 그리고 부채로 인한 법인세 감면효과로부터 생성된다고 간주하여 기업의 가치창조 요인으로 미래의 현금흐름에 관한 6개의 속성인 크기, 위험도, 성장성, 내용지속성, 자금조달 방법을 들고 있다¹⁸⁾.

강선호 회장은 동화의료재단의 가치창출 경영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앞으로 새로운 선호의료재단의 기업을 구축하게 되었다. 더구나 새로운 환경 하에서는 기업성공을 판단하는 사고와 성공의 척도가 변화되어야 한다. 단순히 양적확대나 손익계산서 중심의 경영사고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성공이 불가능하다. 또한 투자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산의 효율성, 생산성을 동시에 관리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투자의 기회비용, 즉, 투자에 대한 요구수익

15) 이용균, 병원경영기법과 전략, 이노맥스, 2003. 11. 23.

16) 이용균, 병원경영기법과 전략, 이노맥스, 2003. 11. 23.

17) 강효석·이원홍·조장연, 기업가치평가론(EVA와 가치창조경영) 제3판, 홍문사, 2001. 2. 10, pp. 37-38.

18) Stewart, Bennett, The Quest for Value : The EVA management Guide, Harper Business, 1991, pp. 306-350.

률에 대해서도 명백히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변화와 패러다임 이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경영으로서의 회귀(back to the basis)가 필요하다.

기본에 충실한 경영은 기업가치를 경영중심에 놓고 기업가치의 노력을 지속하는 가치창조 경영(Value-Based Management)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후적으로 성공한 기업, 조직체, 의료재단을 보면, 성공하기 위한 기업과 조직의 변신의 과정과 순서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성장하는 미래지향적인 유망업종에 속해 있다. 이들 기업들은 경쟁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망성장사업을 좀더 잘 선택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창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둘째, 유망성장사업을 경쟁조직보다 더 잘 영위해 나갈 인적·물적 자원과 자금, 기술, 정보 등의 적합한 경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조직체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하여 경쟁사업체를 능가하는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틀어서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이라고 하며, 이 핵심역량이야 말로 최고성과기업의 첫째 특성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므로 조직 전체가 핵심역량을 지닌 기업이나 조직체로 변신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수익성 있는 성장조직체”로서의 최고성과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다.

3) 병원의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

현대사회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발전 이행하였고, 이제는 지식 사회로 이전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 기업환경이나 병원환경이 점차로 세계화되고 지식경영이나 지식체계가 국제경쟁력의 중심축으로 변화됨에 따라 지식경영은 중요한 연구중심 과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식경영에 관한 연구와 이와 관련된 투자의 추세나 영향은 30년 내지 50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1997년의 IMF경제사태를 겪고 나서 더욱 더 기업이나 비영리조직, 이를테면 병원조직체까지도 지식경영, 지식노동자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정보기술을 다루는 주요 SI회사를 중심으로 지식경영 프로젝트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주요기업 뿐만 아니라 병원조직체에도 지식화 구조를 체계적으로 세워 나가고 있다.

스베이비(1996)는 지식경영이란 우수한 인력을 유지하고 보유하게 하며, 고객만족을 위하여 보유역량을 이에 적합화시키며 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요게시(1997)는 지식경영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나 조

직체의 생존과 경쟁력을 갖추는 경영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지식경영이란 조직구성원이 개개인으로 잠재해 있는 지식을 전사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활용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지식경영의 영향효과

지식경영을 조직체에 적용하면 종전보다 더욱 커다란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① 병원경영의 생산성향상(Productivity Enhancement of Hospital Management) 기업이나 병원경영의 생산성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② 조직구조혁신(Restructuring) : 조직구조의 측면에서 조직 혁신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③ 의사소통(*Communication Skill) : 조직구성원의 상호간 및 상하 사이의 업무협조를 위한 의사소통을 들 수 있다.

④ 업무협력 및 제휴증대(Cooperative Relation) : 사업부와 업무팀 사이의 업무협력 및 제휴증대를 촉진한다.

(2) 지식경영의 구성요소

일반적으로 지식경영의 구성요소는 ① 조직지식 또는 병원조직지식, ② 지식관리 프로세스, ③ 지식근로 또는 진료진 ④ 정보기술 등 4개로 구분된다. 지식경영의 활동은 조직내의 정보시스템 확산의 유형과 유사하게 확산되며 내부통합과 외부통합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병원조직이나 병원의 진료경영 측면에서의 지식경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식경영이나 지식체계가 병원의 장기적 성장과 국제경쟁력의 핵심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2) 새로운 병원조직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진료진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3) 지식경영은 학습체계에서 습득한 정보를 모두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4) 병원의 비전경영(Vision Management)

비전경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이나 조직체의 경영이념과 미래상(未來像)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직체의 비전은 먼저 전체로서 설정하고 그 속에서 각 사업부(Division)나 하위 그룹의 전략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비전경영의 설정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조합리적인 분석이나 체계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최고 경영자의 통찰력과 직관도 가장 중요한 요소(factors)로 평가된다. 더구나 각 기업이나 조직체들의 전략은 기업목적과 효과적으로 연결됨으로써 기업의 존재목적을 실현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러한 기업의 목적과 목표들은 사전에 비전의 설정과정을 통하여 실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비전(vision)의 수집체계

현대에 와서는 기업이나 영리법인이 이윤극대화나 주주의 부의 극대화만에 국한시킬 수 없다. 더구나 추상적인 기업 목표로는 구성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게 되므로 급변하는 기업이나 조직체의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더구나 대부분의 우량기업 또는 우수한 조직체는 전형적으로 이러한 비전경영의 시너지효과가 많게 되었기 때문이다.

(2) 비전경영을 위한 전략수립과정

오늘날 새로운 민주적 리더쉽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CEO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전경영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IV. 강선호 회장의 사회적 책임과 미래확장전망

1. 사회적 책임

강선호 회장은 이처럼 병원개원으로 국민보건과 예방의학을 도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최첨단 의료장비시설을 중설함으로써 기계장비화 및 경영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국민과 가족 구성원들이 부담하는 의약수가(醫藥酬價)를 합리적이며 경제적으로 절감시켜서 모든 국민의 “질병없는 理想鄉”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일석 장학회”的 운영 이사(理事)로 참여하고 있다.

강선호 이사장은 국민건강의료봉사의 뜻을 갖고 1995년 4월에 의료법인 동화성모병원을 개원하였다. 그리고 1998년 2월에 의료재단 동화성모병원을 개설하였으며 동시에 의료재단 동화한방병원을 개설하게 되었다.

동화한방(양·한방 협진)병원은 현대인의 성인병과 원인 모를 질병에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한방의 우수성을 체계화하고, 양·한방 협진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봉사와 사랑, 그리고 의료인의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동화한방병원은 수술실(OR) · 중환자실(ICU) · 전신단층촬영실(CT) 외에 양방 · 한방 입원실과 각 의료진의 협진체계로 진료하며, 연중무휴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의학적 검진, 한의학적 체질분석 및 한방진단을 실시하는 건강검진 센터를 운영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문화된 각종 특수 클리닉

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적인 환자중심 병원입니다.

2. 선호의료재단의 설립운영

1) 선호의료재단의 추진의 필요성¹⁹⁾

전북 남원시 지역에 좀더 좋은 의료시설을 갖추어 남원 시민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도 더욱 좋은 의료서비스와 건강한 삶을 제공하기 위하여 초현대식 의료시설이 필요하고, 응급사고에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하다고 사료되는 바 (가칭) 의료법인 선호의료재단에서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의료진과 최신의 응급 의료장비를 설치하여 남원시민 및 인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인가 후에 남원실버병원을 설립하여 전문의료 인력을 투입하고, 의료장비 등을 시설하고, 또한 남원시민과 인근지역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질좋은 의료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해 나아감은 물론, 마약 및 알콜 중독자의 재활 및 노인전문병원(치매병원) 치료활동을 위하여 준 종합병원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가칭) 의료법인 선호의료재단을 설립하였다.

즉, 남원시 지역에 현대식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의술의 연구발전에 기여하며, 인근지역에 대한 순회 진료봉사 및 영세민에 대한 구호사업을 실시하고, 질병의 구조변화, 의료영역의 확대 등에 대응하는 의학, 의술을 개발하여 의료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

2) 설립규모

새로운 선호의료재단의 설립규모는 다음과 같다.

건물규모 : (수용규모 300병상)

대지 : 14,790m²(약 4,474평)

건물 : 총 건축연면적 : 14,900.12m²(약 4,507평)

(1) 본관건물 : 건축연면적 8,554.32m²(약 2,588평)

지하층 : 1,581.84m ²	4층 : 695.79m ²
1층 : 1,767.24m ²	5층 : 695.79m ²
2층 : 1,571.04m ²	6층 : 695.79m ²
3층 : 821.79m ²	7층 : 725.04m ²

19) 2003년 의료법인 선호의료재단 사업계획서.

(2) 4층병원 : 건축연면적 4,617.00m²(약 1,397평)

지하층 : 997.37m ²	3층 : 812.42m ²
1층 : 997.37m ²	4층 : 812.42m ²
2층 : 997.37m ²	

(3) 기숙사 : 건축연면적 1,728.80m²(약 518평)

1층 : 342.56m ²	4층 : 342.56m ²
2층 : 342.56m ²	5층 : 342.56m ²
3층 : 342.56m ²	

3) 진료과목

선호의료재단의 병원진료과목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 외래진료 :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정신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실
- (2) 지 원 과 : 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종합건강검진센타, 물리치료실

4) 인력계획

선호의료재단 병원의 진료 인력계획은 다음과 같다.

직 종	인 원	비 고
전문의	6	
일반의	2	
간호 조무사	22	외래 6명, 공급실 1명, 수술실 3명, 병동 7명, 응급실 3명, 기타 2명
간호사	16	병동 10명, 수술실 3명, 응급실 2명, 과장 1명
방사선사	2	
물리 치료사	2	
임상 병리사	2	
사회 복지사	1	
관 리 직	8	임원 1명, 경리 2명, 서무 1명, 원무 4명
기능직	4	운전기사 2명, 보일러·전기 2명
기 타	10	경비 2명, 미화 2명, 영양사 1명, 조리원 5명
약 국	3	약사 2명, 보조 1명
계	78	

6) 수입계획

선호의료재단의 3개년(2004. 2. 1~2007. 1. 31)의 입원환자 수입계획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진료과	연 인 원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내과	153,950	172,645	189,910	
일반외과	189,800	208,780	229,658	
신경정신과	219,000	240,900	264,990	
신경외과	219,000	240,900	264,990	
신경과	219,000	240,900	264,990	
정형외과	266,450	293,095	322,405	
계	1,270,200	1,397,220	1,536,943	

주) : 행정비 단가를 내과 : 43,000원, 일반외과 : 52,000원, 신경정신과 : 60,000원,
신경외과 : 60,000원, 신경과 : 60,000원, 정형외과 : 73,000원으로 계산하고
연평균 10%의 신장을 예상함.

〈사업계획〉

(1) 입원환자 진료계획(2004. 2. 1~2007. 1. 31)

(단위 : 명)

진료과	연 인 원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내과	3,650	4,015	4,416	
일반외과	3,650	4,015	8,833	
신경정신과	3,650	4,015	6,624	
신경외과	3,650	4,015	6,624	
신경과	3,650	4,015	6,624	
정형외과	3,650	4,015	6,624	
계	21,900	24,090	39,744	

주 : 과별 일평균 내원환자 수는 내과 10명, 일반외과 10명, 신경정신과 10명,
신경외과 10명, 신경과 10명, 정형외과 10명으로 연평균 10%의 신장을
예상함.

(2) 외래환자 진료계획(2004. 2. 1~2007. 1. 31)

(단위: 명)

진료과	연 인 원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내과	9,125	10,037	11,041	
일반외과	9,125	10,037	11,041	
신경정신과	9,125	10,037	11,041	
신경외과	9,125	10,037	11,041	
신경과	9,125	10,037	11,041	
정형외과	9,125	10,037	11,041	
응급실	7,300	8,030	8,833	
방사선과	3,650	4,015	4,417	
계	65,700	72,267	79,496	

주) 과별 일평균 재원환자수는 내과 25명, 일반외과 25명, 신경정신과 25명, 신경외과 25명, 신경과 25명, 정형외과 25명, 응급실 20명, 방사선과(C.T) 10명으로 계산하고, 연평균 10%의 신장을 예상함.

(3) 인건비 지출계획(2004. 2. 1~2007. 1. 31)

(단위: 천원)

직종	금액	인원	비고
의사직	1) 전문의	419,400	6
	2) 일반의	72,000	2
	계	491,400	8
간호직	1) 간호사	124,800	16
	2) 간호조무사	145,200	22
	계	270,000	38
의료기사	1) 방사선과	13,360	2
	2) 임상 병리사	13,360	2
	3) 물리 치료사	13,360	2
	계	40,080	6
기능직	1) 운전기사	15,700	2
	2) 보일러·전기	12,000	2
	계	27,000	4
약국	1) 약사	19,200	2
	2) 보조원	7,500	1
	계	26,700	3

직 종		금 액	인 원	비 고
식 당	1) 영양사	9,600	1	
	2) 조리원	30,000	5	
	계	39,600	6	
관 리 직		67,200	8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	16,800	1	
기 타	잡급직	28,800	4	
총 계		1,008,280	78	

(4) 관리비 지출계획(2004. 2. 1~2007. 1. 31)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복리후생비	60,000	월 5,000
통신비	18,000	월 1,500
여비교통비	24,000	월 2,000
소모품비	24,000	월 2,000
도서인쇄비	18,000	월 1,500
피복침구비	18,000	
차량유지비	36,000	월 3,000
광열수비	36,000	월 3,000
접대비	50,000	
교육훈련비	12,000	월 1,000
제세공과금	36,000	
지급수수료	20,000	
보험료	36,000	
수선비	36,000	
위탁료	24,000	
용역비	60,000	
회의행사비	12,000	월 1,000
잡비	84,364	
계	604,364	

(5) 추정손익계산서(2004. 2. 1~2007. 1. 31)

(단위 : 명)

구 분		금 액			비 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외래 수익	입 원 수 입	1,270,200	1,397,220	1,536,942	
	외래 수 입	1,647,975	1,812,773	1,994,050	
	기타 수 입	345,500	380,050	418,055	
계		3,263,675	3,590,043	3,949,047	
의료 비용	인 건 비	1,008,280	1,109,108	1,220,019	
	재료 비	1,263,600	1,389,764	1,528,594	
	관리 비	604,364	664,801	731,282	
	감가상각비	75,000	72,000	70,000	
계		2,951,244	3,235,673	3,549,895	
영업이익		312,431	354,370	399,152	
지급 이자	리스	35,000	35,000	35,000	
	은행	40,000	40,000	40,000	
계		237,431	279,370	324,152	

V. 결 언

본 장에서는 제1절에 강선호 회장의 생애를 다뤘으며,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 병원경영의 발전에 대해서, 제3절에서는 강선호 회장의 병원경영활동에 대해서 말하였고, 제4절은 강선호 회장의 사회적 책임과 미래확장 전망에 대해서 다루었다.

女性 CEO로서 의료법인 동화의료재단의 강선호 회장은 장애인과 환자를 위한 병원경영을 윤리경영(Ethics Management : EM), 가치경영(Value-Based Management : VBM),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 : KM) 및 비전경영(Vision Management : VM)의 경영원칙 아래에서 동화한방 및 양방협진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초기에는 동방의료재단을 운영해 오다가 현재의 규모로 운영해 오고 있다.

더구나 2004년에는 남원시와 인천시에서 300병상 규모의 대규모 의료법인체로서 「선호의료재단」을 신설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획기적 창업은 장기 입원환자가 진료 및 수양장소를 이동하면서 진료서비스를 받는 새로운 초현대적 병원스타일을 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강선호 회장은 장애인협회의 이사로서 장애인 지원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송죽 장학회 이사로서 많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돋고 있다. 또한 「남산예술원」과 같은

예술단체의 개인 후원자로서 중국관련 프로그램을 무대에 올리고 있으며, 남북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3년에도 몇 차례 평양에 단체로 방문하여 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강선호 회장은 女性 CEO(Chief Medical Officer)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신뢰(信賴)경영, 정도(正道)경영, 정각(正覺)경영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을 위한 “이상향(理想鄉)”을 만들고 창업정신(Entrepreneurship)을 발휘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서 정진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Stewart, Bennett, *The Quest for Value : The EVA Management guid*, Harper Business, 1991.
- 金聖壽, 지식 경영사회의 기업경영윤리론, 三英社, 2000. 11. 1.
- 朴周熙, 의료경영론, 大學書林, 1999. 6. 15.
- 강효석·이원홍·조장연, EVA와 가치창조경영 기업가치평가론, 弘文社, 2001. 2. 10.
- 이용균, 병원경영기법과 전략, 이노맥스, 2003. 11. 27.
- 한국의학 100年史, 2000.
- 鄭基善, 현대병원경영분석과 진단, 文輝圖書, 1992. 12. 1.
- 鄭基善, 현대병원재무관리, 文輝圖書, 1998. 8. 24.
- 한국경영사학회, 2002년 전문경영인(CEO) 姜善鎬 회장 공적서.
- 제약 50년史(1945~1995년).
- 月刊 CEO, CEO BANK 2002, 10월호.
- 의료법인, 「선호의료재단」사업계획서, 2003.
- 2000년 병원경영통계(Hospital Management Statistics(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발행), 2000. 2. 16.
- 광복(光復) 이전의 경제·사회상, 통계청, 1005. 8.
- 대한병원협회, www.kha.or.kr
- 장상우, 환자중심의 병원경영관리, 고려화학, 1995.
- 남산예술원, Pamphlet.
- 의료법인, 한방양방동화협진병원, Pamphlet 및 진단분석자료, 2002. 11.
- 동화의료원 한방의료원 분석표 및 진단자료 및 통계표, 2003. 10.
- 동화의료원, 의료기기(醫療機器) 명세자료, 2003. 10.

The Medical Entrepreneurship of Woman CEO Seun-Ho KANG and Development of Dong-Hwa Medical Foundation

Kun-Hee Lee*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e woman CEO Seun-Ho Kang became the founder of Dong-Hwa Medical Foundation and rose from poverty to establish one of the largest medical institute for citizens through combination creative thinking, woman leadership, interpersonal relations, organizational ability and business strategy that few competitors ever understood.

She began managing "Mok-Dong Seung-mo Hospital" in October, 1983 when many experts unanimously predicted she would fail, and she started to managing the oriental and western styled hospital simultaneously and estblished the medical foundation with 100 beds of "Dong-Hwa Hospital" and she is going to establish 300 beds of bigger size of hospital named "Seun-Ho Kang's Medical Foundation" in Namwon city, Cholla Province in February 2004. for silver hospital to medicare senile dementia.

She managed western and oriental hospital based on the four principles, Ethics Management(EM), Value-Based Management(VBM), Knowledge Management (KM) and Vision Management.

She devoted for the physically handicapped persons as a director of the Disabled Persons Association through regular meetings and donations. And she visited Pyungyang, North Korea, several times in 2003, for mutual understanding with each party as a member of The North-South Exchange Program in corporated by many fields of civil institutions.

한영캉가루의 성장과 여성 CEO 姜惠淑의 기업활동*

The Business Activities of Woman CEO, Hye-Sook Kang and
the Development of Hanyoung Kangaroo Co., Ltd.

高 承 禧**

目 次

I. 프롤로그	3. 사업의지와 경영이념
II. 한영캉가루의 창업정신	IV. 한영캉가루의 성장과 발전
1. 한영캉가루의 효시	1. 성장요인
2. 창업자의 생애와 사업입지	2. CEO 姜惠淑의 기업활동
3. 창업정신	3. 한영캉가루의 성장과 발전
III. CEO 姜惠淑의 등장과 창업정신의 계승	V. 가죽장갑업계의 전망과 한영캉가루의 과제
1. 창업의 효(孝)	VI. 맷는말
2. CEO 姜惠淑의 기업가적 소양	참 고 문 헌

I. 프롤로그

본 연구는 2002년 12월 6일 한국경영사학회가 수여한 CEO대상(大賞) 수상기업인 주식회사 한영캉가루의 성장·발전에 대한 조명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1955년 1월 한국전쟁(6.25동란) 이후의 어려웠던 시기에 창업된 주식회사 한영캉가루는 국내 최초로 가죽장갑을 생산·판매하는 작은 업체로 출범하여 성장한 기업이다. 가죽장갑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서 최고의 장갑을 만들겠다는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장갑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쏟아 부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가죽장갑 전문 제조업체로서의 확고한 성장기반을 다져 놓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창업자인 강영일(姜永一) 회장의 투철한 장인정신과 강인한 의지력, 그리고 근면성실주의정신이 초석을 이루고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축적된 신용과 자본은 사업기반을 다지는 밑거름이 되었고 미래를 가늠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창업의 효(孝)를 이은 강혜숙(姜惠淑) 사장의 지혜와 용기에 바탕을 둔 기업가정신

* 본 논문은 「2003년도 한국경영사학회 전문 경영자 大賞」 수상기업에 대한 연구로서 한국경영사학회의 요청으로 이루어 졌음.

** 단국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한국기업윤리학회 회장

은 1980년대 이후 막강한 외국 브랜드의 국내진출로 어려워진 기업환경 속에서도 제품개발과 시장개척을 위한 다각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성실한 제품생산 업체로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초석이 되었다. 반세기 가까이 누적되어 온 기술력과 경험은 제품의 품질향상과 고품격화를 가져오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외국상표와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제품의 다양화와 디자인의 고급화에 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생산·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분업화하는 한편, 생산공정에서의 철저한 품질검증과정을 거쳐 불량품이 거의 없는 완벽하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다.

1994년에 처음으로 수출액 100만 달러를 돌파한 (주)한영강가루는 매년 수출액의 증가를 기록하였고 1999년에 500만달러의 수출액을 올렸음은 물론, 2001년도에는 1,0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개가를 올렸다. 창업 이래 우직스러울 만큼 한 업종에만 주력하면서 성장기반을 다져온 (주)한영강가루는 이제 세계 속에서 가죽장갑을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하는 유명 메이커로 우뚝 서있는 것이다. 이는 가죽장갑업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강혜숙 사장의 왕성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작은 가내수공업적 사업으로 시작되었던 한영강가루는 세계 속의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국내의 동종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기반을 다져 놓았다. 따라서 이러한 한영강가루의 성장과 발전을 조명하고 기업성장의 주역이 된 여성 CEO 강혜숙 사장의 기업활동과 리더십, 그리고 경영이념과 기업가정신을 발굴하여 학계에 보급시키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한영강가루의 성장과 발전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대표자와의 면담을 통한 창업배경과 경영철학을 조명하였으며 경영사학적 접근법에 따라 분석·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기업경영을 시도하고 있는 여성 CEO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고 기업사(史)를 연구하는 경영사학도들에게 등대와 같은 학문적 길잡이가 될 수 있기 기대하는 바이다.

II. 한영강가루의 창업정신

1. 한영강가루의 효시

주식회사 한영강가루는 1955년 1월 강영일(姜永一) 회장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 최초의 가죽장갑 제조업체이다.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경제상황 속에서 가죽장갑의 불모지였던 시기에 가죽장갑을 생산·판매하는 가내수공업으로 시작한 것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창업자인 강영일은 가죽장갑 제조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그마한 음식점을 운영했었다. 전쟁

으로 폐허가 된 1950년대의 시대적 상황은 모든 산업이 파괴되어 정상적인 경제구조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보다는 하루하루의 삶을 걱정하면서 돈을 모아야 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 사업의 시작은 철저히 생계수단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음식점을 운영했으나, 경쟁과 비전(vision)이 없다고 판단되어, 그의 타고난 감각에 맞추어 가죽장갑을 제조하는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일컬어 「춥고 배고픈 시절」이라고 말하듯이, 그 당시의 겨울은 유난히 추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정도 좋지 않은 시절이었으므로 겨울나기의 필수품 중 하나인 가죽장갑을 생산하는데 착안하여 이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고 한다¹⁾.

물자가 부족하던 시절이었으므로 시중에 나도는 군수품(軍需品)은 일반인들에게 좋은 생활필수품이기도 했다. 1950년대에 시중에 흘러 다니던 군수품 중에는 손바닥에만 가죽 쪼개리가 붙어있는 미군의 작업용 장갑이 있었다. 그것을 구해다가 장갑의 바닥가죽을 도려내고 그 위에 연필로 그리고 가위로 잘라내어 바느질하여 만들어낸 가죽장갑을 겨울에 팔아서, 그 다음 해의 생활걱정을 덜고, 또 되돌아올 겨울에 대비하여 장갑제조와 판매를 위한 사업자금을 축적해 가는 방식으로 가죽장갑 제조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창업초기의 가죽장갑 제조방식은 가내수공업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다. 준비된 기술자도 없었고 모형은 군수물자의 그것을 모방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창업자인 강영일도 역시 장갑의 제조기술은 없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하여 어떤 것이 좋은 장갑인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양질의 가죽과 좋은 기술자의 확보가 최우선의 과제였고, 창업자의 관찰력과 제조 마인드로 생산을 진두지휘하였고, 우선 장갑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굳은 각오와 의지로 장갑 하나하나에 온갖 정성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사업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고 자본축적도 착실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²⁾.

별씨 반세기 이상을 넘겨버린 우리나라의 커다란 비극인 한국전쟁 이후의 굶주림과 빈곤의 아픔 속에서 사업입지의 짹을 심고 가꾸어 온 한국의 수 많은 기업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나라의 근대 가죽장갑 제조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한영캉가루의 창업은 단지 무엇을 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아주 기본적인 생업을 찾는데서 우연히 시작된 것이다.

2. 창업자의 생애와 사업입지

1) 창업자의 생애

창업자인 강영일 회장은 1925년 1월 15일 (음력) 아버지 강상희 옹과 어머니 박분옥 여사

1) (주)한영캉가루의 제공자료(2003년 11월), p. 3

2) (주)한영캉가루, 제공자료(2003년 12월 10일), pp. 3-4

와의 사이에 4남 2녀 중 차남으로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중국의 훈춘에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내면서 보통학교 교육을 받았고 나라 없는 설움을 몸소 체험하며 자랐다. 더욱이 그곳에서 삼촌들과 함께 쌀·목탄·담배 등을 취급하는 배급소에서 일하기도 했고, 그 과정을 통하여 근면성실해야 한다는 인생의 소중한 경험을 체득하였다고 한다³⁾.

그는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 온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의 고향인 함경북도 경성군 두남동으로 귀향하였다. 그러나 고향에서 38선으로 인한 민족분단의 비극을 보아야 했고, 이윽고 발발한 한국전쟁(6.25동란)으로 이산가족의 쓰라린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는 바로 위의 누이와 단둘이서 월남(越南)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 그래서 그는 거제도와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였으며 27세가 되던 1952년에 서울로 올라와 영국군 보급부대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⁴⁾.

일제(日帝)의 식민지 시대에 고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 갖은 고생과 기회상실을 경험해야 했고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민족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실향민으로서의 가족이 산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낯선 타향에서의 외로운 생활에 익숙해진 그는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자, 또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라고는 건강한 체격에 강철같은 의지력, 그리고 근면성실한 마음 뿐이었다.

남북분단의 민족적 비극 속에서 전쟁난민과 실향민으로서의 망향가를 부르며 떠들던 그에게도 희망의 봄은 있었다. 서울의 남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음식점을 내고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타고난 건강, 그리고 근면성실한 성격으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자그마한 소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황해도 출신의 피난민인 이순희 여사와 1953년 혼인하여 신혼의 달콤한 행복에 젖기도 했다. 같은 실향민으로서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아픔을 서로 달래고 어루만져 주며 좋은 반려자로 내조의 공을 쌓았던 것이다. 그러한 사업과 사랑의 밀월 속에서 이듬해인 1954년 1월 16일에 장녀 혜숙(현 한영캉가루 대표이사)이 태어났고, 화기애애한 가족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 이윽고 슬하에 4녀 1남을 두는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족의 내조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갖게된 강영일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드디어 1955년 11월에 가죽장갑을 제조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다. 초창기는 가족 중심의 가내수공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근면성실한 마음가짐으로 훌륭한 내조자이며 사업파트너인 부인 이순희와 함께 어려웠던 시기의 작은 사업을 열심히 일구었고, 결국 거래처의 신뢰를 얻어 차근차근 성장하고 자본을 축적해 나갔다. 상업으로 시작하여 짧은 기간에 모은 소자본으로 제조업에 뛰어든 그는 근면성실, 정직과 신뢰, 이것만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굳게 믿었고 또한 그렇게 실천하였다. 작은 가내수공업의 형

3) (주)한영캉가루, 제공자료(2003년 12월 10일), p. 5

4) 상계자료, p. 1

태로 운영되는 사업이었지만, 신의를 지키고 신뢰를 얻는 근면성실한 삶을 통하여 사업기반을 착실히 쌓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얼마의 자본축적을 이루고 미래의 사업화장을 구상하던 1959년 어느 날 옆집 이발소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그 불이 옮겨 붙어 애써 모아 두었던 재산이 홀랑 타버렸던 것이다. 그는 청천벽력의 시련 앞에 다시 서게 되었다. 크나큰 좌절감에 사로잡혔으나 그는 용기를 내었다. 어린 여섯 살의 큰딸 혜숙(현 한영캉가루 대표이사 사장)을 경기도 용인(龍仁)의 누이집에 맡기고 다시금 가족이산의 아픔을 반추하며 재기의 몸부림을 쳤던 것이다. 그리하여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부인 이순희와 함께 다시 손을 맞잡고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갔다. 그 동안 쌓아놓은 신의와 신뢰가 바탕이 되어 좌절의 높에서 빠져나와 재기할 수 있었고, 또한 사업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은 이러한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 듯싶다.

오늘날 창업자인 강영일 회장이 유별난 가족사랑·자식사랑은 아마도 이때 여섯 살의 어린 딸을 누이 집에 맡기고 돌아설 때 느낀 또 한 번의 가족이산에 대한 아픔과 교훈이 그의 마음 속 깊이 새겨져 있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었는가 싶다. 그리고 이러한 고생과 시련이 반드시 기억하기 싫은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현재의 한영캉가루 대표이사로 있는 강혜숙 사장의 회고에 의하면, 강 사장의 어린 6세 때 시골생활의 추억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어느 여름날 예쁜 원피스를 사갖고 찾아온 아버지가 너무 반갑고 고마워 밤새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 때의 아버지에 대한 정(情)은 그리움으로 승화되어 저의 마음 속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시절의 시골생활은 저로 하여금 서정적이고 자연과 함께 전원의 아름다움을 순수한 소녀의 꿈으로 간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은 물론, 훗날 저의 인격형성에 좋은 추억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⁵⁾

창업자인 강영일 회장은 중국의 만주 훈춘시에서 보통학교 교육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또한 별다른 취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 취미가 있다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운영이 취미라고 한다. 가족과 헤어져 남쪽으로 피난 온 후 오로지 생계유지와 공장운영만이 일이요 취미였던 그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 왔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1959년의 화재 사건에 이어 1970년 10월 장갑판매 성수기 직전에 옆집에서 일어난 화재가 또 다시 공장과 창고로 번지게 되었던 일이다. 쉽게 불은 잡혔으나 소방차의 물세례를 받은 가죽장갑은 그의 가족으로 하여금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며 낙담과 절망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근면성실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열심히 살아온 그 가족을 하늘은 버리지 않았다. 유난히도 추운 겨울날 씨가 물에 젖어 상품성이 떨어진 가죽장갑을 판매로 이어지게 하여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기

5) (주)한영캉가루, 제공자료(2003년 12월 10일), p. 2

때문이다. 그 때 수 만개의 장갑을 며칠 밤을 새우며 깨끗하게 물에 행구고 빨래줄과 방바닥 아랫목에 넣어 말리고 그것을 내다 팔았던 것이다. 유난히도 추운 날씨였기에 장갑은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한다⁶⁾. 이렇듯 시련과 극복을 반복하는 창업자 강영일의 삶 속에서 취미생활이란 너무나 사치스러웠고 오로지 회사운영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가장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삶의 와중에서 1980년 병원으로부터 간경변 판정을 받아 치료와 요양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오로지 기업경영에만 전념하여 성공적인 삶과 함께 장년을 맞이한 그에게 있어서 신병은 너무나도 가혹한 시련이었다. 그러나 그의 강한 투병의지와 가족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십수년 동안 병상생활을 해오고 있다. 지금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장녀인 강혜숙 사장에게 경영권을 위양하고 신병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의 정신력과 사업적인 감각은 아직도 현재의 한영캉가루 경영진들을 능히 압도할만하다고 한다⁷⁾.

2) 창업자의 사업입지

창업자 강영일 회장은 정상적인 경영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가업으로 시작한 가죽장갑의 제조·판매에 궁지를 지니고 있었고 몸소 부딪치며 체득한 경험을 통하여 믿고 확신하는 일을 실천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초창기의 가내수공업적 운영형태에서 자본과 규모가 갖추어진 1970년대 이후부터는 업종별 분업화의 체계를 고수하면서 봉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인재육성과 그 실천에 상당한 의욕과 관심을 나타내었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업종 중에는 섬유산업의 수출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섬세한 봉제기술이 뒷받침되었다고 일컬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봉제기술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 중의 하나가 장갑제조기술이다. 이는 인간의 신체기관 중에서 제일 민감하고 많이 움직이는 기능을 지닌 부분으로서의 손을 감싸게 하는 장갑봉제의 기술인 것이다. 장갑의 좋은 제품은 그것을 착용하는 순간 느낌으로 알게 되고 그 기능의 호불호(好不好)를 판단하는 데는 패턴의 중요성, 봉제의 치밀함, 그리고 소재(素材)의 내구성(耐久性) 등이 일반 봉제품과 다르다는 점이 작용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이루어 내는 기술자와 제품의 품질관리가 자연스럽게 시장경쟁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여 쉽게 경쟁자가 나서지 못하는 점도 창업자가 가죽장갑 제조업을 가업으로 선택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한편으로 장갑시장은 그 시장 자체의 규모가 한정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섬유제품 시장에 비하여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일년 내내 만들어 겨울 한철에 팔고, 자금회전도 겨울에 한번 이루어지는 조건 때문에, 대기업이나 대자본가가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런 이유

6) 상계자료 및 중앙일보, 「우리집 가정교육」(『쉽게 번 돈 쉽게 나간다.』 2002년 12월 18일자)

7) (주)한영캉가루, 제공자료(2003년 12월 10일), pp. 8-9

에서인지는 몰라도 강영일이 시작한 장갑제조업 분야는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시련은 있었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천성적으로 지닌 장인정신으로 지탱해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여 그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가죽장갑의 제조·판매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사업기반을 다지는데 성공하였다. 그 동안 두 번의 어려운 고비를 용기와 지혜로 극복해 내었고 축적된 자본을 토대로 1976년 2월에 서울 성동구 능동(현재의 광진구 중곡동)에 사옥(社屋)을 신축하고 이전하였다. 지금 제2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로 한영캉가루가 맨처음 마련한 것이다. 이후로 창업자인 강영일 회장은 그 동안 개인사업으로 등록하여 「캉가루표 장갑」이라는 상표를 갖고 운영해 오던 것을 법인형태의 기업으로 전환하였다. 즉, 1976년 4월 1일에 한영기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법인기업의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해 8월에는 미국지역에 「캉가루표 장갑」을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놀라울만한 사세신장(社勢伸長)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성장이었다⁸⁾.

그 배경에는 창업자 강영일 회장의 근면성실한 마음가짐과 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수완이 있었고 억척스러운 장인정신이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신적 바탕 위에서 창업자가 보여준 사업의지는 업종별 분업화를 고수하면서 실천된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이다⁹⁾.

첫째로 좋은 원자재의 확보와 봉제기술자의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이에 관련된 재미 있는 일화로 1960년대 초 군사정권시절 대통령 하사품으로 장갑이 채택되어 납품기일을 지킬 수 없는 양의 장갑을 천신만고 끝에 납품한 후에, 정부의 감사와 함께 특혜를 주겠다는 주문에 대하여 창업자인 강영일 회장은 「양질(良質)의 가죽을 한 번 사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이는 창업자가 천성적으로 지니고 있던 근면성실한 마음가짐과 고집스런 장인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대답이었다. 여기서 순박하고 순수한 기업가 정신을 보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제조업체로서의 긍지를 지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생산에 전념할 뿐만 아니라 판매를 위한 시장 유통업체로서의 신의와 질서를 지켜 고객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시장기능을 존중하여 장갑제조업체로서 계절과 불황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자금압박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은 것은 당시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경영자의 기업윤리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고취시켰다는 점이다. 제조업에서 상표를 혼

8) (주)한영캉가루, 제공자료(2003년 12월 10일), p. 50

9) 상계자료, pp. 7-8

하게 사용하지 않던 당시의 상황을 감안할 때, 장갑제품에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점은 경영자의 진일보한 경영감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막연하지만 질길 것 같은 가죽을 연상케 하고 쉽게 불려지고 금방 인식되는 외래어로서 「캉가루표 장갑」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훌륭한 아이디어를 지닌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창업정신

창업자인 강영일 회장의 개인적 성향은 억척스러운 장인정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생산 현장에 종사하는 기술직 사원의 대부분이 일반적 지식과 교양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던 초창기의 시대상황에서 「기술은 곧 자신의 인격」이고 이는 곧 회사의 발전과 위상에 연결된다는 정신을 항상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노력하여 인정받는 기술자에게는 항상 기회를 부여하고 우대하는 모습을 창업자는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그의 기술제일주의정신을 보게 된다. 그리고 제조업에 사업기초를 둔 그로서는 자연스럽게 원가개념에 입각한 종업원 관리, 공정관리 및 시간관리가 항상 염려하였다 한다. 특히, 계절적 사업성이 뚜렷하고 성수기와 비수기를 지닌 장갑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가로서 그는 제품생산의 시기, 원재료와 부자재의 수급시기 및 제품개발시기를 놓치게 되면, 반드시 생산량의 차질을 가져오고 제품의 질저하가 초래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렇듯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터득하고 있던 그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품생산을 위한 공정관리를 빈틈없이 실천하도록 하였다.

초창기의 가내수공업적 사업형태였을 때부터 그는 근면성실주의에 입각한 사업운영을 수행하였고 사업기반이 다져지고 법인기업의 형태로 전환된 후에도 근면성실을 강조하였으며 거래처와는 신의를 지켜서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는 신념을 지닌 사업가였다.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불굴의 투지로 사업을 일으켰고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하여 사업기반을 확충하였던 것이다.

혈혈단신의 실향민인 그가 무자본에서 자본축적을 이루어 내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수성가형 사업가로서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가족이산의 쓰라린 경험을 했던 그의 마음 속에는 가족의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족사랑·자식 사랑을 남달리 애듯하게 하였으며 인화(人和)에 바탕을 둔 가족주의적 경영문화를 기업에 심어 놓았던 것이다. 한영캉가루의 본사 옆에 있는 연립주택을 회사에서 구입하여 생산부의 직원들을 비롯한 무주택 직원들에게 낮은 값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종업원들의 생계안정에 기여하고 가족과 같은 신의를 지켜주었음은 창업자가 지닌 가족주의적 인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10) 전계자료, pp. 7-11

이렇듯 창업자의 우직스러운 장신정신과 근면성실주의정신에 바탕을 두어, 사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형성된 기술중심, 품질위주, 신용제일, 그리고 가족주의적 인화의 정신은 한영캉가루의 오늘을 있게 한 창업정신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1980년대의 중반 이후에 경영일선에서 창업의 효(孝)를 이은 강혜숙 사장에게로 이어져 한영캉가루의 버팀목이 되어 있다.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면서 가죽장갑의 제조와 판매에 혼신의 힘을 쏟았던 창업자인 강영일 회장의 정신과 경영철학은 반세기의 연륜(年輪)과 함께 한영캉가루의 기업문화로 승화되어 나타나 있는 것이다.

III. CEO 姜惠淑의 등장과 창업정신의 계승

1. 창업의 효(孝)

1955년에 가죽장갑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한 강영일 회장은 시련과 좌절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굳건한 장인정신과 근면성실의 의지로 사업기반을 구축하였다. 창업한지 20년만에 사옥을 겸한 공장을 신축하고 이전하였으며 법인설립과 함께 미주지역에 수출시장도 개척하였다. 1980년을 전후한 한영캉가루의 사세확장은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그런데 승승장구의 성장을 주도해 가던 창업자 강영일이 안타깝게도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장기적인 안정과 치료를 요하게 되어 쉽게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창업자의 의지에 따라 장녀인 강혜숙이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다. 즉, 강혜숙은 1983년 4월 (주)한연캉가루에 입사하여 2년 동안의 경영수업을 거쳐 1985년 5월에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명실공히 「창업의 효(孝)」를 이은 경영자가 된 것이다.

강혜숙은 1954년 1월 16일 창업자인 강영일의 장녀로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한영캉가루가 창업되기 1년 전의 일이다. 강혜숙은 아버지가 가죽장갑을 제조하는 사업을 구성하던 무렵에 태어나 그 사업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며 자랐다. 그녀는 6세가 되던 1959년에 화재로 인한 시련기에 부모와 떨어져 고모댁에서 살아야 했던 가족이산의 아픈 추억을 갖고 있으며,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70년 10월에 일어난 화재로 두 번째의 시련을 맞았을 때, 「용기를 내자」며 부모를 도와 시련극복의 힘을 보태기도 하였다. 이렇듯 그녀는 맘딸로서 부모에게는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였고 이산의 외로운 추억을 간직한 채, 혼자 공부하며 살아가는데 익숙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소녀로 굳굳하게 자랐다¹¹⁾.

1972년 2월 진명여고를 졸업한 강혜숙은 이화여자대학교 물리과대학 화학과에 진학하여

11) 전계자료, pp. 12-13

1976년 3월에 졸업하였다.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서울예술고등학교 화학담당 교사로 부임하여 1982년 2월까지 복직하였다. 그녀는 교편생활을 하면서도 보다 나은 자기발전을 위하여 대학교수가 되려는 꿈을 키우고 있었다. 그리하여 미국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만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출신인 이영일(현재의 한영カン가루와 한영교역의 executive director)과 결혼하여 함께 미국으로 떠나려고 하였다. 그 무렵 창업자인 그녀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의지로 그 뒤를 이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어 그녀는 미국유학의 꿈을 접어야 했다¹²⁾.

이 때까지만 해도 강혜숙은 5남매의 장녀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사업계승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여자로서의 자기발전을 위한 희망에 젖어 있었다. 말딸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업이자 온 가족의 사업이었던 캉가루 장갑의 성장과정, 그 시련과 역경, 그리고 사업의 부침(浮沈)을 유년기부터 보고 자랐을 뿐만 아니라, 중학교 시절부터 가죽장갑의 제조·판매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그랬으면서도 그녀는 그것은 그녀의 사업으로 여기지 않고 학문을 하고 싶어 했고 대학교수가 되는 꿈을 가슴 속에 키우면서 유학시험 준비를 해왔다. 그러던 그녀의 운명은 창업자인 아버지의 병환으로 진로를 바꾸고 「창업의 효(孝)」를 이어가게 했던 것이다. 1983년 4월 이후의 강혜숙은 부친이 창업한 한영カン가루와 인연을 맺고 학문과 대학교수의 꿈을 접은 채, 경영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가죽장갑업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CEO 강혜숙의 기업가적 소양

한영カン가루의 성장·발전에는 강혜숙의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기업활동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창업의 효(孝)를 이은 강혜숙은 원래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은 화학과 출신의 자연과학도였다. 그러나 그녀는 성장과정에서 부친이 가업으로 창업한 캉가루장갑을 운영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랐고, 사업이 어떠한 것인지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이 시련과 역경을 겪을 때마다 그녀는 가업을 일으키는 작은 힘이 되었던 적도 있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영적인 리더십이 몸에 배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혜숙은 대학을 졸업한 후 교편생활을 6년 동안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다루는 리더십이 몸에 배어 있었고, 전공이 화학이었기 때문에 실험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창조적이고 혁신적이며 도전적인 능력이 길러져 있었다. 그녀가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이러한 능력은 한영カン가루의 경영자의 위치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경영자로서의 조직력과 판단력, 그리고 창조력과 기획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경영수업을 통하여 기업가로서의 지성(知性)을 축적하였다. 경영자로서의 의욕적인 경영지식을 습득하기 위하

12) 전개자료, pp. 13-14

여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이후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여 소양을 갖추는 데도 소홀하지 않았다.

내성적이고 수줍은 편이었으나 성실한 성격의 소녀였던 강혜숙은 남다른 집중력으로 지식과 지혜를 늘 간구하며 학창시절을 보내었고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모범적인 자녀로서 진취적인 관찰력을 지니고 자랐다. 그녀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미국유학을 결심할 만큼 왕성한 지식욕의 소유자이다. 지금도 틈만 있으면 기업가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독서 삼매경에 빠질 때가 많다고 한다.

「괴롭힐려 번 돈이야말로 진정 네 돈이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강조하셨던 창업자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경영에 임한다고 강혜숙 사장은 말한다¹³⁾. 이것은 창업자의 근검절약정신을 나타내는 말이며, 성실한 장인정신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영캉가루의 창업정신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강혜숙 사장이 기업경영에 임할 때마다 이러한 창업자의 금언을 상기하게 되는 것은 창업정신이 계승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강혜숙의 경영사상을 형성하는데 창업자의 정신이 크게 작용했음을 인식하게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강혜숙은 정직과 성실, 품질과 신용, 그리고 조직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부(富·Wealth)와 기회를 창조한 개척자형의 여성 전문경영자이다. 그녀는 적극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지녔으며 목표에 대한 투철한 의지와 신념을 가진 개척정신의 소유자이다. 이러한 그녀의 신념과 투지력은 한영캉가루를 반석에 올려놓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그녀의 경영철학을 형성시키는 초석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사업의지와 경영이념

1) 사업의지

창업자 시대에 이미 법인기업으로 전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강혜숙이 경영권을 승계한 1980년대의 초반까지만 해도 가내수공업에서 조금 발전한 소기업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강혜숙은 1983년부터 1985년까지 2년 동안 경영수업을 착실히 수행하였다. 그 기간동안 그녀는 한영캉가루의 경영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일일이 체크하며 그 대비책을 정리해 나갔다. 대학을 나와 교직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기업경영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그녀는 열심히 경영수업을 받으며 경영기법을 익혔던 것이다.

1985년 5월 1일 한영캉가루의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하여 실제적인 경영권을 승계한 강혜숙은 그 동안에 익힌 경영수업에 기초하여 경영 이정표를 만들어 추진해 나갔다. 우선 그녀는

13) 중앙일보(2002년 12월 18일자 : 우리집 경제교육(『쉽게 번 돈 쉽게 나간다.』)의 일부)

생산현장에 뛰어들어 제조공정부터 개선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판매영업보다 생산활동 중심으로 회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가동만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일단 수성(守城)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이렇듯 공장운영부터 개선하고 회계와 자금분야, 그리고 마케팅 쪽으로 관심분야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며 의욕적인 경영의지를 표출하였다¹⁴⁾.

경영권을 승계한지 1년이 되는 1986년에 성동구 자양동에 제2사옥을 신축하여 생산시설을 증대함과 동시에, 그 다음해 장갑류 무역업 허가를 받았고 군납적격업체 등록을 함으로써, 생산현장 중심의 경영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한영캉가루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제품개발을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품다각화를 서둘렀고, 판매시장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시장 개척에 눈을 돌려 시장다변화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강혜숙 사장은 다각경영의 청사진을 펴기 시작했던 것이다¹⁵⁾.

이와 같이 경영일선에 나선 강혜숙 사장은 우선적으로 가죽장갑의 제조공정에 초점을 맞춰 생산분야를 확고히 개선함으로써, 초기의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그런 다음 회사의 전반적인 분야를 장악하고 창업자가 이루어 놓은 든든한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제2기의 도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더욱이 강혜숙 사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던 그 무렵은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에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였고, 점차 상품 브랜드의 중요성과 시장환경이 생산 공급자 주도의 행태에서 대형유통업체 주도형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었다. 마침 1986년의 아시안게임과 1988년의 세계올림픽 경기를 치루게 되면서 수입개방의 물결과 함께 대부분의 국내 백화점은 해외의 수입브랜드 상품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종래 재래시장의 소비 패턴은 급격한 속도로 대형유통업체로 옮겨가는 시대적 상황이었다. 그래서 상품은 「시장 브랜드」와 「백화점 브랜드」로 구분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백화점 브랜드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강혜숙 사장은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일찍이 한영캉가루는 「캉가루표 장갑」을 출시(出市)하면서 명실공히 장기간 시장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으나, 수입 브랜드 상품의 도입과 함께 캉가루표 장갑이 마치 시장 브랜드로 전락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혜숙 사장은 캉가루 장갑의 명성과 함께 제품 차별화(소재의 우월성·착용감·디자인성·보온성 등)를 강조하였고, 전략적으로 프랑스로부터 「가라로쉬(Guy Laroche)」 브랜드를 도입하여 「캉가루」와 더불어 전국 백화점에 공급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였다¹⁶⁾.

그러는 한편, 강혜숙 사장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유통기반과 백화점 사이에

14) (주)한영캉가루, 제공자료(2003년 12월 10일), p. 15

15) 상계자료, pp. 15-16

16) 상계자료, pp. 16-17

서 절묘한 차별화 정책과 마케팅 전략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유통시장의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나갔다. 강사장은 백화점에 출시하는 상품 중 최고의 상품은 항상 「캉가루」상표로 하는 등, 상품가치의 제고(提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강사장은 품격에 맞는 일관된 가격정책으로 브랜드 가치를 지켜 나갔다. 그리고 상품을 소개할 때에도 「오랜 전통」과 「장인 정신」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강조함으로써, 항상 상품개발을 통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¹⁷⁾.

2) 경영이념

1955년 강영일 회장에 의하여 창업된 한영캉가루는 한국전쟁 이후의 경제적 혼란기에 국내 최초의 가죽장갑을 제조·판매하는 작은 사업체로서 갖은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사업기반구축에 성공하였다. 여기에는 창업자인 강영일 회장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승화되어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된다. 즉, 근면성실·정직과 신뢰·장인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강영일 회장의 창업정신이 오늘의 한영캉가루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상인정신 속에 깃들어 있는 근면성실은 강영일 회장이 한영캉가루를 창업하는 과정에서도 예외 없이 기본정신으로 작용하였다. 성실한 마음으로 근검절약하는 태도야 말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금언(金言)이다. 그에 곁들여 정직과 신뢰의 정신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적 상인이 기본적으로 지켜져 내려온 정신적 기반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장인(匠人)으로서의 궁지를 나타내는 장인정신은 기술과 품질을 보증하는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꼽힌다. 강영일 회장은 이러한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가죽장갑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우직스러울 만큼 그 정신을 지키며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법인기업으로 육성해 놓았다. 그러므로 창업자가 지난 기본정신은 한영캉가루의 50년 성장가도를 달려올 수 있게 한 원동력이요 경영이념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적 지주 위에 다져진 한영캉가루를 1985년에 이어받은 강혜숙 사장은 창업정신에 바탕을 둔 경영이념도 계승하여 오늘에 이르는 20년 동안 기업경영의 기본이념을 정착시켜 왔다. 원래 경영이념이란 기업을 경영해 가는 기본적인 가치관인 동시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의미한다. 한영캉가루는 이러한 가치관에 충실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일로매진함으로써, 가죽장갑업계의 최고의 위치를 지향하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강혜숙 사장은 상술한 「근면성실·정직과 신뢰·장인정신」을 기본적 경영이념으로 삼은 바탕 위에 「질서는 경쟁력이다.」라는 제2의 경영이념을 확립하여 글로벌 경영을 지향하

17) 상계자료, p. 17

고 있다. 강사장은 말한다.『세상은 항상 변하고 있다. 사람과 기업은 이 세상의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성공적이나, 아니냐를 판단하게 된다. 새로운 질서의 제정과 준수는 인간 개인에게만 강요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와 거래처, 국제기구 및 국가간 협정 등이 그것이다. 그들은 제각기 질서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또 규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의 갈 길은 질서의 준수 밖에 없다.』¹⁸⁾

강혜숙 사장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제로서 「질서」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한영캉가루의 창업이념을 승계하는 개념이며, 성실경영·신뢰경영·정도경영·투명경영·책임경영·도전적 개척주의경영·고객지향의 경영을 모두 포용하는 명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영캉가루는 「질서는 경쟁력이다.」라는 새로운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좁은 국내 시장을 박차고 나가 해외시장을 개척했으며, 해외생산기지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으므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고객만족과 사원복지의 향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IV. 한영캉가루의 성장과 발전

1. 성장요인

기업을 창업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수성(守城)의 길은 험난하고 힘들다고 한다. 그 험난하고 힘든 수성의 길을 극복하고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데는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해온 기업가의 확고한 의지와 지혜, 그리고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경영에 임하는 기업가나 경영자의 경영이념과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955년에 강영일 회장에 의하여 창업된 한영캉가루는 한국전쟁 이후의 어려웠던 시대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합된 창업자의 경영이념이 투철한 의지와 용기로 꾸준히 실천됨으로써,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었으며 사업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근면성실·정직과 신뢰·장인정신」의 창업이념은 한영캉가루를 확고한 기반 위에 올려놓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성장가도를 달리게 하는 엔진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정규적인 경영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사업에 도전하는 의지와 용기, 그리고 사업을 이끌어 가는 리더십은 탁월했다고 한다. 창업 당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러운 창업자의 장인정신은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바탕이 되었고 고객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 되

18) 전계자료, p. 23

었다. 사업을 운영하고 이끌어 가는 창업자의 탁월한 리더십은 결국 한영캉가루를 법인기업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원재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계절적 사업특성을 지닌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죽장갑을 제조·판매하는 사업분야를 고집스러울 만큼 초지일관하여 정진함으로써, 선량한 사업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경험을 통하여 터득한 창업자의 경영이념은 창조적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는 초석이 되었고 어려운 외부환경에 적응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업 성장의 촉진제가 되었고 기업성장의 기본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창업의 효(孝)」를 이은 여성 CEO 강혜숙은 창업자 시대의 가내수공업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질서는 경쟁력」이라는 새로운 경영이념을 제창하며 동종업계 최고의 위치까지 끌어올렸다. 동종업계 선두주자로서의 임직원의 자부심을 고취시켰고 제품개발과 제조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제고(提高)하였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경영 다각화 전략을 구사하여 시장개척을 주도함으로써, 고객만족경영과 경쟁우위를 확보하였다. 강혜숙의 다각화 전략은 제품의 다양화, 시장 다각화, 그리고 사업 다각화를 기초로 하는 기업의 성장전략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시작된 글로벌 시대의 시장변화에 맞추어 적절한 경영체제로 전환하고 다각화 경영을 통한 성장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한영캉가루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세일즈 방법을 혁신함으로써, 판매촉진전략도 기업성장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하였다. 제품의 내수매출 편중에서 군납상품의 개발과 수출시장의 개척을 통한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은 한영캉가루의 성장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2. CEO 강혜숙의 기업활동

대학을 졸업한 후 교직생활을 하면서 학자의 길을 꿈꿔왔던 강혜숙은 한영캉가루의 창업자인 부친의 건강악화로 인하여 본의(本意) 아니게 경영자로 변신하게 된다. 그녀는 교육현장에서 생산현장으로 뛰어들면서 기업경영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문제에 맞부딪치게 된 것이다. 이때 그녀에게 주어진 과제는 회사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경영」과 창업의 효(孝)를 이어야 하는 수성(守城)이었다.

강혜숙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교육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터득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하여 생산현장의 이슈(issue)들을 해결하는 열쇠로 활용하였다. 더욱이 소녀시절부터 어깨넘어로 접하고 익숙하게 들었던 장갑생산과 관련된 상식들은 그녀가 생산현장에 뛰어든 순간부터 경영현장에 활용될 수 있었다. 어찌 보면 아무런 준비없이 경영승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경영수업이 이루어지고 암암리에 경영자의 길을 걸어온 것으

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여성 CEO 강혜숙은 여성 경영자로서, 그리고 창업의 효(孝)를 이은 2세(二世) 경영자로서의 충격을 최소화·최단화시키며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영자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경영자의 리더십은 주변의 우려를 무색하게 할 만큼 빠른 속도로 경영의 안정화를 이루어 내면서 기업변신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수성의 길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게 된다¹⁹⁾.

빠른 시일 안에 경영을 파악하고 안정화를 이루한 강혜숙은 1985년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하면서 명실공히 경영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그녀는 창업자가 그 동안 다져놓은 탄탄한 내수시장의 실적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업활동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우선 조달청을 통한 군납을 확보하고 수출입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의 발판도 마련하였다. 따라서 회사의 조직을 정비하고 생산중심의 경영체제로부터 생산·판매에 초점을 둔 영업중심의 경영체제로 전환시켰다. 이렇게 하여 마케팅관리 분야의 보강과 함께 성수기의 원활한 생산조달을 위한 아웃소싱(out-sourcing) 전망체계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이는 내수시장의 다각화뿐만 아니라, 수출분야도 포함하여 기업매출액이 내수시장에의 편중으로 인한 위험회피를 가능하게 하려는 전략적 구상의 실현이었다²⁰⁾.

한영캉가루는 계절성이 강한 가죽장갑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일정시기에 편중되어 있음은 물론,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매우 불합리한 흐름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혜숙 사장은 계절적 대체상품인 우산과 양산의 새로운 품목을 과감하게 채택하였던 것이다. 이를 기획상품은 1991년에 출시함으로써, 상기한 경영상의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기획상품의 출시로 기업규모가 늘어나자 강혜숙 사장은 백화점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무역회사로서의 조직활동을 확충함과 동시에 생산시설을 확장할 목적으로 1995년에 제3사옥(현재의 본사 건물)을 신축하고 그 해 12월에 입주하였다. 그와 더불어 40년 동안 소비자에게 친숙한 이름의 「캉가루」를 이용한 CI(Corporate Identity) 제정작업을 시도하였으며 그것을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여 1997년 1월 (주)한영기업에서 (주)한영캉가루로 상호변경을 실현하였다²¹⁾.

새로운 사옥을 신축 이전하던 1995년에 한영캉가루는 1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고 정부로부터 1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사옥이전과 생산시설의 확충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안정적인 제품공급체계를 갖추어 갈 때 즈음하여 외환위기(IMF관리체제)를 맞게 되었다. 1997년 11월의 일이었다. 때마침 장갑의 계절인 겨울의 문턱에서 내수

19) 전계자료, p. 25

20) 전계자료, p. 26

21) 전계자료, p. 26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1년 중에서 오직 2개월 시즌을 갖는 한영캉가루로서는 난감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수출주문은 증가추세여서 희망을 수출시장에 걸었다. 1998년에 350만 달러를 선적함으로써, 강혜숙 사장의 경영 다각화를 통한 내수편중 지양정책이 그 빛을 발하게 되었고 어려운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²²⁾.

그렇지만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점점 치열한 경쟁이 대두되었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요구하는 고객이 증가하였다. 이미 경제 국제화 시대의 기업들은 경제사회 속에 존재하는 인격체(법인체)로서 저마다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라는 테두리안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기업들은 그들과 사업관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그들이 만든 규정(급여·근무시간·근무조건·환경 등)을 준수하고 이행한다는 계약조건 하에서만 거래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래서 이들이 주문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그들의 요구조건(무려 180여 종류의 체크리스트)에 대한 사전검사 및 정기적인 검사를 거쳐 검증받은 다음에라야 비로소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와 같이 한영캉가루는 점차 높아만 가는 세계유수기업 및 국가별 규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조치로서 새로운 경영이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것은 강혜숙 사장의 국제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결정이었고, 바로 「질서는 곧 경쟁력이다.」라는 슬로건이었다²³⁾.

한영캉가루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직영공장은 물론 협력공장에서 생산하는 장갑·모자·스카프의 숫자가 무려 연간 450만개 이상이다. 각 국가별 노동법·관습·환경·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바이어(buyer)의 규정을 소화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강혜숙 사장은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의 해결책으로 한영캉가루의 새로운 질서개념을 경영이념화하여 그에 따라 생산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나라의 합법적 경영활동을 통한 협력관계의 증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의 조치로는 이러한 규정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국내의 직영 및 협력공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본사에 VCO(Vender Compliance Officer)를 두고 이들이 갖고 있는 각종 규정들에 대한 전문지식을 해당 공장내의 FCP(Factory Compliance Person)에게 전수 또는 지도하게 하여 그 어려운 규정을 지켜나가게 하였다²⁴⁾.

그러한 가운데 국내에서의 인건비 상승과 생산공장의 운영여건 악화는 고객 감소와 더불어 주문량 감소를 불러오게 하였다. 이러한 환경여건의 변화를 예측한 강혜숙 사장은 이미 1998

22) 전계자료, p. 27

23) 전계자료, p. 27

24) 전계자료, p. 28

년부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였고 미주와 유럽지역에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정치적·사회적 불안 등으로 인하여 바이어(buyer) 기피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우는 2002년 1월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함과 동시에 대미(對美) 수출의 최대혜택국가가 되면서 우리나라와 지리적·문화적인 유리한 점을 지니고 있어서 한국기업의 진출무대가 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따라서 강혜숙 사장은 2002년 중국의 산동성 칭다오(青島)시의 「남령공업지구」에 미화 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공장설립을 추진하였다. 드디어 2003년 7월 강혜숙 사장은 중국 「청도 칭가루 봉제 유한공사」의 공장 준공식을 거행함으로써, 중국대륙으로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²⁵⁾.

이상과 같이 1983년부터 시작된 강혜숙 사장의 20년 동안 이루어진 기업활동은 한영강가루의 성장·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눈부신 활약이었다. 그것은 전반기 10년과 후반기 10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반 10년의 기업활동은 창업자인 강영일 회장이 다져놓은 사업기반을 계승하여 수성을 위주로 하는 경영활동을 전개하면서 미래지향적 포석(布石)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후반기의 10년은 비약적인 기업성장을 주도하고 해외시장의 개척과 더불어 본격적인 해외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의 한영강가루의 위상을 높인 시기로 평가 되어진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기업계승은 물론, 비약적인 기업성장을 이루어 낸 것은 강혜숙 사장의 잠재능력이 경영현장을 통하여 계발(啓發)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이끌어 가는 리더십과 글로벌 시대에 적용 할 수 있는 통찰력과 과감한 용기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영강가루의 성장과 발전

가내수공업적 규모로 출발한 한영강가루는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면서 소규모의 개인기업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초창기의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여 가죽장갑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의 수준까지 성장하면서 업계 굴지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고 계속적인 기업확장과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성과를 올림으로써, 혼들림 없는 성장가도 속에서 반세기의 역사를 구축한 기업이 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의 폐허 속에서 단순한 생계수단으로 시작한 것이 한영강가루의 효시이다. 창업자인 강영일의 경영시대는 대부분 단일종목인 장갑의 생산과 판매, 그리고 생산량 증대와 품질개선에 초점을 둔 장갑전문 제조업체로서의 기반조성이 목적이었다. 반세기 기업사(史)의 절반(1955~1984)을 이끌어 왔던 창업자 시대의 경영활동은 경제개발연대의 사회

25) 전계자료, pp. 28-29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나름대로의 탄탄한 입지를 확보하였다. 1977년 4월 한영기업(주)로 등록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것과 1982년 4월에 (주)한영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2세 경영시대의 심기일전을 가다듬게 한 것 등은 창업자 시대의 확고한 기반구축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⁶⁾.

그런데 198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는 민주화의 물결과 함께 개방화의 바람이 불게 되면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특히 개방화에 편승한 해외여행 자율화는 외국상품이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촉매작용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 큰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제조업자가 더 이상 제품 디자인 및 공급가 책정 등을 결정하고 주도하지 못하는 변화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바로 이런 시기에 맞추어 강혜숙이 여성 CEO로서 혁성처럼 나타나 한영강가루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대표이사 사장이 된 것이다. 1985년의 일이다.

한영강가루의 성장은 이 때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강혜숙 사장은 취임 초부터 의욕적인 기업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다음과 같은 경영방침을 세워 좋은 성과를 낳게 한 것은 모두 강혜숙 사장의 현장감각에 뛰어난 경영능력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 ① 가죽장갑의 생산공급 위주의 경영을 주도하면서 기존의 판매유통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적정판매의 경영방침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 ② 군납과 수출을 전제로 한 내외부의 여건조성 및 경영 다각화 전략의 수립과 실천을 추진하였다.
- ③ 신규 아이템(item)의 채택과 개발로 계절적 편중을 지양하다.
 - 우산·양산 등 신규 품목의 채택
 - 골프(golf)장갑 등 신규품목의 개발
- ④ 국내외 공급자력을 구비하기 위한 각종 인증을 취득하여 영업활동의 원활화를 기하다.
- ⑤ 수입국의 무역규제 및 새로운 세계무역 질서에 부합하는 규격화·합법화·정보화를 구축하여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다.
- ⑥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육성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투자전략을 구사하여 기업규모를 확대하다.

이상과 같이 강혜숙 사장은 의욕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창업자 시대의 경영성과를 계승 발전시키는 「창업의 효(孝)」를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경영전략을 구사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기반을 다지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강혜숙 사장으로 하여금 경영권을 승계하던 초기부터 감지했던 경영에 대한 위기의식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업

26) 전개자료, p. 21

27) 전개자료, pp. 21-22

의 내외환경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전략구상과 함께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적용하게 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강혜숙 사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한영캉가루를 이끌어 오는 기간 동안 기업성장을 위하여 전력투구한 부분은 경영다각화전략을 실천하여 제품 다각화와 시장 다각화를 이루어 낸 것이다. 1980년대의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대량판매점인 백화점과 할인마트(mart)의 등장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든 강혜숙 사장체제의 한영캉가루는 거울철의 대표적 상품인 장갑만으로는 비수기의 유휴설비와 인력운용은 물론, 자금수요의 효율적 운영 및 판매매장의 비수기 유지에 큰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비수기의 대체상품을 개발·공급함으로써 합리적 경영을 수행하였다. 그 대체 상품이 우산과 양산인 것이다. 이에 백화점의 경우를 보면 장갑과 더불어 우산과 양산은 잡화부문의 상품으로 분류가 되어, 특히 계절성이 강한 상품으로서 상호 보완관계를 이루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규제품으로 개발되었다. 이윽고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상술한 바 있는 무역업허가 취득과 함께 군납적 격업체의 등록으로 조달청을 통한 본격적인 군납과 해외수출을 단행함으로써, 순조로운 성장 가도를 주행할 수 있었다. 그러는 한편 수출과 군납에 필요한 각종 인증으로서 “Q 마크”, “ISO 9001”은 물론, 세계적 Sourcing 회사인 “GAP, INC”와 “COACH” 등의 Supplier’s Conduct Compliance의 인증획득과 함께, 내부관리의 시스템화(化)를 목적으로 삼성 SDS를 통하여 종합자원관리 프로그램인 ERP 시스템을 봉제수출업체 최초로 개발관리하는 등, 나날이 변화해 가는内外의 기업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기업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²⁸⁾.

기업경영에 문외한이었던 강혜숙 사장이 창업자인 부친의 뒤를 이어 경영권을 계승한 후, 「창업의 효(孝)」를 잇는다는 의무감 속에서 의욕적인 경영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한영캉가루는 도약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영캉가루의 반세기 기업사(史)를 반추해 보면, 창업자인 강영일 회장이 창업하여 강혜숙 사장으로 이어지고 시련을 거치면서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한영캉가루는 그 발전단계가 5단계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1955년의 창업시부터 1982년 창업자 시대의 마감 때까지는 ① 창업기(1955~1959), ② 시련기(1960~1970), ③ 기반구축기(1972~1982)의 3단계로 구분되어지며, 「창업의 효(孝)」를 이은 강혜숙 사장이 등장한 1983년부터 2003년까지의 20년 간은 성장기(1983~1993)와 도약기(1994~2003)의 2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창업자 시대가 창업기·시련기·기반구축기의 3단계로 구분되고는 있지만 그 단계별 성장실적은 수치로 보관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사건별로 구분했음을 밝혀 둔다. 1955년의 창업을 기점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가내수공업의 규모를 벗어나려던 기간을 창업기로 보았고, 1959년의 화재와 1970년의 화재로 인한 시련과

28) 전계자료, pp. 18-19

역경을 겪었던 기간을 시련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법인형태로 전환하여 소기업의 규모를 갖추고 중소기업의 형태로 올라서고 주식회사 한영기업으로 상호변경을 했던 1982년까지를 한영캉가루의 기반구축기로 구분하였다.

〈표 1〉 한영캉가루의 성장실적(1985~2002)

(단위 : 원)

해당 연도	매출액(내수)	수출액	매출총액	종업원 수
1985년	632,140,546	299,679,801	931,820,347	81명
1986년	653,252,201	496,380,624	1,149,632,825	81명
1987년	784,299,634	671,121,662	1,455,421,296	75명
1988년	925,526,510	685,190,377	1,610,716,887	70명
1989년	1,492,530,435	215,528,076	1,708,058,511	80명
1990년	1,404,788,056	459,693,142	1,864,481,198	89명
1991년	1,899,601,925	228,107,423	2,127,709,348	75명
1992년	2,674,377,479	97,015,553	2,771,393,032	82명
1993년	4,673,758,342	239,257,848	4,913,016,190	102명
1994년	5,467,079,713	1,251,492,501	6,718,572,214	120명
1995년	6,847,844,306	1,178,930,185	8,026,774,491	128명
1996년	7,884,107,914	299,765,776	8,183,873,690	128명
1997년	6,672,879,691	1,087,708,740	7,760,588,431	120명
1998년	5,265,419,408	4,362,132,846	9,627,552,254	110명
1999년	5,891,836,915	6,824,348,862	12,716,185,777	130명
2000년	5,510,680,256	6,539,796,580	12,050,476,836	130명
2001년	7,199,816,984	12,126,997,280	19,326,814,264	126명
2002년	7,263,670,328	10,907,165,084	18,170,835,412	143명
계	73,143,610,643	47,970,312,360	121,113,923,003	104명(평균)

자료 : (주)한영캉가루, 제공자료(2003년 12월 10일)

그런데 강혜숙 사장이 등장한 1983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참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적수치를 통하여 발전단계를 구분하였다. 즉, 강혜숙 사장의 기업활동 20년 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전반기를 한영캉가루의 성장기(1983~1993), 그리고 후반기를 도약기(1994~2003)로 하였다. 〈표 1〉에서와 같이 강혜숙 사장의 경영활동 10년 째인 1993년부터 비약적인 매출액 신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거듭 말하거나 강혜숙 사장의 경영다각화전략을 구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2002년 말에는 1,000만 달러의 수출탑을 수상할 만큼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한영캉가루는 연간 200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V. 가죽장갑업계의 전망과 한영캉가루의 과제

가죽장갑은 계절성이 강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의 수요공급에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죽장갑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은 치밀한 경영전략을 구사하여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고 비수기의 유휴 노동력과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지혜가 필요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난관을 헤치며 업계정상의 위치에 올라있는 한영캉가루는 장갑업계의 전망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가죽장갑업계의 전망을 개관하고 한영캉가루가 지닌 과제에 대하여 언급하려고 한다.

1. 가죽장갑업계의 전망

1) 국내시장의 여건

세계적인 기상이변인 온난화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따뜻한 겨울을 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가용 자동차의 보급과 거미줄 같은 도시의 교통망은 점차 보온용 가죽장갑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대형할인매장과 백화점은 재래시장의 기존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한편, 업체별 과당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 가격의 파괴를 불러오게 하였다. 특히 1990년대를 분기점으로 하여 가죽장갑의 가격파괴가 시작되었고 동종업계의 대부분이 부도와 파산의 위기를 겪게 되는 등,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죽장갑의 수요확대를 위한 내수시장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이며,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해외 수출시장의 여건

미국지역과 유럽 EU지역의 시장은 점차 가죽장갑보다는 섬유류의 장갑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적정한 가격이나 패션적인 디자인, 그리고 신소재의 개발은 가죽장갑을 몇몇 특수 분야의 용도와 기능성(자동차용 등) 용도로 내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한영캉가루가 수출한 장갑 연평균 약 250만개(fair)의 약 95% 이상이 섬유장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해외시장의 현실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해외시장 조사를 통한 외국 환경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전략상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제조기술 및 공장

봉제기술 중에서 비교적 어렵다고 일컬어지는 분야가 가죽봉제이며, 특히 가죽장갑은 그

중에서도 더욱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장갑제조의 첫 순서는 기능성과 패션을 표현하는 패턴제작에 있다. 그에 이어 재단과 봉제, 그리고 완성의 공정을 거쳐야 비로소 가죽장갑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은 40세 미만의 패턴기술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장갑의 재단과 봉제기술자는 거의 전무(全無)하다시피 한 상태여서 이제 특수 기능성 장갑의 경우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및 중국 등이 두터운 기술자 층을 보유하고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봉제공장은 그 특성상 섬세한 손재주를 바탕으로 하여 주로 여성근로자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나라 인구밀집 지역의 봉제공장은 봉제기술자의 확보가 너무나도 어렵고, 그나마 인건비의 부담가중은 공장의 제조경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결국 국내 장갑 생산공장의 대부분은 중국을 비롯하여 인건비 부담이 낮은 동남아 지역의 해외로 이전한 상태여서 장갑업계의 전망은 매우 어두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영캉가루의 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가죽장갑업계의 전망을 감안할 때, 한영캉가루의 당면과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제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한영캉가루는 기후변화로 인한 보온용 드레스 장갑의 수요 감소에 대비한 대체시장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스포츠 장갑(골프장갑·낚시장갑 등)의 시장에 접근하기 위하여 그 다양한 기능성 요건에 알맞은 기술집약적 기능성 장갑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진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영캉가루는 그 동안의 기술축적과 장인정신에 의한 창가루 장갑의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하여, 전산화 솔루션(Solution)을 도입함과 동시에 지적(知的)·기술적 집약화를 도모함으로써, 부족한 기술인력을 대체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하드웨어적인 생산기술은 제3세계의 풍부한 노동력을 찾아 이전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한영캉가루의 경우도 그러한 지역을 찾아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영업능력의 세계화와 관리능력의 현지화를 통한 장갑분야의 명실상부한 Global Sourcing Company로서 면모를 갖추고자 중국대륙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로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현지 판매법인을 통하여 한영캉가루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용품 시장인 미국에서 golf장갑 등, 고기능성 장갑을 판매함으로써 향후 2004년 스포츠 장갑의 판매목표인 미화 100만 달러를 시발점으로 하여 3년 안에 500만 달러를 올림과 동시에 3천만 달러의 수출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강혜숙 사장의 기업가적 능력이 크게 기대되는 바이다.

VI. 맷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영캉가루는 1955년 국내 최초로 가죽장갑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작은 가内수공업의 업체였다. 그런데 창업 반세기를 헤아리는 2002년 말에는 1,000만 달러의 수출탑을 받을 정도의 수출업체로 성장했으며, 연간 2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는 중견기업으로서 업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영캉가루는 반세기에 가까운 연륜을 헤아린 세월 속에 장갑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쌓은 봉제와 가죽가공기술이 밑천으로 되어 있다. 수출시장을 개척하여 공급하는 제품이 한 번도 클레임을 받지 않을 만큼 거래처인 외국업체들도 한영캉가루의 품질관리수준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세 경영자로 등장한 여성 CEO 강혜숙 사장의 경영철학이 주효하여 이루어낸 결과이다. 계절성이 강한 가죽장갑의 기능을 보완하여 제품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경영다각화를 구축함으로써, 한영캉가루는 최근 경기부침이 심한 상황에서도 200억원 안팎의 매출액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모자와 머플러 등을 미국의 대표적 패션업체인 「캡」사와 「코치」사에 수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프화(靴) 등의 신제품을 출시한 2003년은 20%가 성장한 24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칭다오 시(市)에 6천평 규모의 공장을 가동시킴으로써, 해외생산기지를 구축하여 더욱 사세확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창업 이래 무노조의 경영을 지속해 오고 있는 한영캉가루는 무주택 사원들에게 집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업원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노사안정의 모범기업으로 정착하였다. 이러한 기업성장의一面에는 창업자의 장인정신이 있고, 전면에 나선 강혜숙 사장의 확고한 경영의지와 리더십,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예리한 통찰력과 실천력이 조화를 이루어 빚어낸 합중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영캉가루의 성장·발전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첫째, 근면성실·정직과 신뢰·장인정신으로 사업입지를 꽂피우게 한 창업자의 투철한 도전의지와 용기가 돋보이고 있다. 둘째는 「창업의 효(孝)」를 이은 강혜숙 사장이 여성 CEO로서 입지를 굳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업을 성장시켰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질서는 경쟁력」이라는 경영이념을 제시한 강혜숙 사장이 글로벌 시대의 세계적 기업질서 속에 뛰어들어 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넷째로, 신제품의 개발과 수출시장의 개척을 통한 경영 다각화전략을 구사하여 성공시켰다는 점이다. 그리고 넷째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경영 다각화전략을 구사하여 성공시켰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미래지향적 기업문화의 창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제 한영캉가루는 섬세하면서도 강한 의지와 용기를 지닌 여성 CEO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영다각화전략을 통하여 기업성장을 주도하고

미래지향적 기업문화가 창조되어질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고승제, 「한국 경영사 연구」, 한국능률협회, 1975.
- 김병하, 「한국 경영 이념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4.
-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경영사례연구」, (1977~1993).
-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제1집~제18집), 1987~2003.
- _____, 「제4회 전문경영자大賞 공적서」, (2002년 12월 6일).
- 황명수, 「한국 기업가사 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9.
- (주)한영캉가루, 「회사관련자료」, (2003년 12월 10일).
- 田杉競編, 「転換期の企業成長」, 日本住営出版會, 1973.
- 清水龍瑩, 「企業成長論」, 中央經濟社, 1984.
- (財)中小企業総合研究機構 編, 「中小企業家精神」, 中央經濟社, 1995.
- 松本邦輔, 「顧客本位の経営理念」, 生産性出版, 1994.
- 河野豊弘, 「経営戦略と企業文化」, 白桃書房, 1999.
- Deal, T.D. and Allan A. Kennedy, "Corporate Culture : The Rites and Rituals of Corporate Life", 1982
- Penrose, Edith T.,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 Basil Blackwell, 1980.

The Business Activities of Woman CEO, Hye-Sook Kang and the Development of Hanyoung Kangaroo Co., Ltd.

Seung-Hee Koh*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Dankoo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pproached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Hanyoung Kangaroo Company which is the best enterprise of the leather glove industry in Korea. And this paper is researched on her management thought and business activities of woman CEO, Hye-Sook Kang who has played an important roles i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firm as a boss of Hanyoung Kangaroo Company. The firm was founded by Young-il Kang in 1955 as a small venture business which had made the leather gloves. Although the firm has undergone too much ordeal because of two fires, it was built the business base of strong company by founder. The entrepreneurship of founder were diligence, sincerity, honesty, confidence and the spirit of craftsman.

In 1976, the firm was named as Hanyoung corporation. However, the boss was changed to Hye-Sook Kang who is a first daughter of founder. After that, she has reconstructed the best company of domestic same enterprises through the improvement of new products and the cultivation of the abroad export market. She has tried to use the diversified management strategies for business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company. And she has changed the name of the company into Hanyoung Kangaroo Corporation in 1996. Hye-Sook Kang, who is a current president of the firm, has a management ideology, "the order is competitive power." Upon the basis of her management creed, she is trying to make inroads into international market as world business enterprise in globalization.

중남미 학술조사 기행문

-잉카문명의 발상지를 중심으로-

A Trip to Central and South America for Scientific Research

金相圭*·林外錫**

目 次

- | | |
|---------------|--------------------------|
| I. 학술조사의 목적 | IV. 학술탐사 후원기관 : (주) 두산그룹 |
| II. 학술조사 대상지역 | V. 학술조사단의 구성 |
| III. 학술조사 기간 | VI. 학술조사일지 |

I. 학술조사의 목적

한국경영사학회는 2002년도 제11회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잉카문명의 발상지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 지역의 현지 학술조사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 (1) 중남미 제국의 무역현황에 대한 탐사 및 라틴 아메리카 문화 공동체 조사
- (2) 고대 중남미 잉카문명 발상지 조사
- (3) 멕시코 문명 및 상업사 연구
- (4) 페루 잉카문명 및 마踯피չ 탐방조사
- (5) 남미제국의 회계제도 발전사 연구 -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를 중심으로
- (6) 두산그룹의 해외진출 현황조사
- (7)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라틴아메리카의 문화교류 조사
- (8) 남미제국의 경제 및 경영 발전사 연구
- (9) 노예무역과 식재공장(plantation) 연구(남미의 노예교육과 유럽에 대한 담배, 목화 등의 수출제도) 등

* 경원전문대학 e-비즈니스 교수

** 경원전문대학 e-비즈니스 교수

II. 학술조사 대상지역

행선지 및 국가 : 인천국제공항 → L.A공항(경유) → 멕시코 → 페루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브라질 → L.A국제공항(경유) → 인천국제공항

III. 학술조사 기간

2002년 7월 19일(금요일) ~ 7월 29일(일요일)

IV. 학술탐사 후원기관 : (주) 두산그룹

V. 학술조사단의 구성

조사단 단장 : 이승욱(본학회 회장 단국대학교 교수)

고 문 : 김성수(경희대학교 교수)

고 문 : 고승희(단국대학교 교수)

고문 및 학술담당 : 이건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기록 담당 : 임외석(경원전문대학 교수)

진행 담당 : 박현희(본학회 사무차장)

사진 담당 : 김태명(세명대학교 교수)

전형(단국대학교 교수)

단원 : 김신(경희대학교 교수) 김명호(조선대학교 교수)

김상규(경원전문대학 교수) 김성순(단국대학교 교수)

김영래(충북대학교 교수) 김웅식(제주대학교 교수)

이광주(단국대학교 교수) 이기동(계명대학교 교수)

이문선(한양대학교 교수) 이승영(동국대학교 교수)

이웅호(진주산업대학교 교수) 이정도(경북대학교 교수)

박광서(순천향대학교 교수) 박성수(전남대학교 교수)

서인덕(영남대학교 교수) 심상천(경원전문대학 교수)

안종태(강원대학교 교수) 오명석(협성대학교 교수)

오성동(조선대학교 교수)	유성기(메리랜드대학교 교수)
이광종(신흥대학교 교수)	최단옥(인천대학교 교수)
하치덕(영남대학교 교수)	한한수(경희대학교 교수)

VI. 학술조사 일지

첫 날 : 학술조사를 떠나면서(2002. 7. 19, 토요일, 비)...

2002년 7월 19일 아침 이른 시각, 여느 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일행은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이번 학술조사는 한국경영사학회가 주관하는 “중남미 잉카문명에 대한 학술 심포지엄” 및 “잉카유적지 3개국(멕시코, 페루, 브라질)의 현지답사”를 위한 학술행사로서 팀의 구성은 32명의 교수들로 편성되어 있다.

요즈음 서울의 날씨는 며칠 전부터 장마가 시작되더니 오늘은 세차게 비가 내리고 있다. 뉴스에 의하면 벌써 지방 노선에서는 항공기가 결항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기관계로 오늘 항공기가 무사히 이륙할 수 있을지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많은 일행들이 도착해 있었다.

출발 2시간 전인 오후 1시까지 인천국제공항의 대한항공 데스크 앞(3번 출입구 B와 C카운터 사이에 있는 만남의 광장 1번 팻말이 있는 곳)에 모두 집합하여 출국수속을 마치고 항공기에 탑승하기 시작하였다.

정각 오후 3시 20분에 활주로를 이륙하여 고도를 점차 높이기 시작하였는데, 10,000feets 정도의 상공으로 올라왔을 때 창밖을 내다보니 날씨가 다소 맑아 보였다. 동해안을 거쳐 일본 해안선을 통과할 때는 상공 29,000feet까지 고도를 높였고 비행속도는 시속 972km까지 날고 있었다.

멕시코시티로 가는 중도에 LA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LA에 도착하는 예정시각이 현지시각으로 오전 10경(한국시각 20일 아침 2시경)이라고 한다.

서울에서 약 11시간을 비행한 끝에 현지시각 10시 10분에 LA국제공항에서 도착하여 멕시코시티를 가기 위한 환승 수속을 마치고 12시 50분경 멕시코항공(MX901)에 탑승하였다.

탑승 후 예정보다 다소 늦은 오후 1시 30분경에 LA를 이륙하여 약 3시간 20여분을 비행한 뒤에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는데, 도착시각은 19日 오후 4시 50분(멕시코 현지시각 오후 6시 50분)이었다. 현지시각 오후 7시경에 입국수속을 마치고 버스에 탑승하여 식당으로 이동한 뒤에 저녁식사를 마치고 멕시코시티 시내에 위치한 “Mission Colon Hotel”에 투숙하였다. 이때 시각이 오후 9시 10분경이었다.

둘째 날 : 고대문명이 공존하는 태양의 나라 멕시코에서(7. 20, 토요일, 흐림)

서울을 떠나 첫 번째 밤을 맞은 멕시코시티, 멕시코시티는 고대, 근대, 현대가 함께 숨쉬고 있는 도시로서 정식명칭은 Mexico Destrito Federal(Mexico D.F)로 멕시코 연방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멕시코시티에서 첫 번째 밤을 보낸 우리 일행들은 아침 7시에 기상하여 9시에 Bus에 승차하였다. 오늘의 일정은 1964년 북부 슬럼가를 헐어 단지를 조성한 3문화광장(Plaza Dekas Tres Culturas)을 관람하도록 되어 있다.

멕시코의 발전을 상징하는 현대식 빌딩들이 들어서 있으면서, 동시에 3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이 광장은 ① 고대 아스테카(Azteca) 문화(Tlatelolco 유적지), ② 중세(16세기)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건립된 산티아고(Santiago) 성당, ③ 현대의 시민문화(1964년에 세워진 현대식 외무부 건물)가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대 아스테카시대의 태양의 신전이 있었던 곳은 1519년 스페인이 침략하면서 허물고 산티아고 성당을 건립하였는데, 현재 400여 년이나 된 이 성당에는 아직도 미사를 지내고 있으며 성당너머에는 멕시코 외무성의 흰색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성당 옆에 세워진 '최후의 전투 기념비'에는 "1521년 8월 13일 Cuautemoc에 의해 영웅적으로 사수되어 왔던 Tlatelolco는 Cortez의 손에 떨어졌다. 그것은 승리도 패배도 아니었다. 그것은 혼혈의 민족, 즉 오늘의 멕시코인의 탄생을 의미하는 사건이었다."라고 멕시코의 중세 역사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멕시코의 현대 시민혁명은 196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특히, 1968년 10월 항쟁 시에는 당시 오르다스 대통령의 독재에 항거하여 각계 각종의 시민들이 3문화광장을 마지막 집결지로 삼고 대정부 투쟁을 벌였던 곳이다. 이때 군과 경찰에 둘러싸여 그들의 총검에 의해 무차별하게 학살된 시민들의 수가 2,000여 명이나 이른다고 전하고 있다. 항쟁의 해에 3문화광장에 세워진 대리석 기념비문에는 이 때의 참상을 기록에 남기고 있었다.

정돈된 듯 하면서도 혼란스러운 멕시코는 문화와 자연풍경이 독특하게 어우러져 있다. 전국 곳곳에는 화려한 느낌을 주는 관광 리조트와 경이로운 고대문명의 유적지가 공존하며, 현대인들의 일상생활이 고대 역사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멕시코 북부의 불모지대는 미국 국경과 맞닿아 있어 세계적으로 이 국경선을 제1세계와 제3세계가 직접 만나는 유일한 곳으로, 남쪽은 과테말라 국경인 우수마신파 강둑의 열대우림과 맞닿아 있다.

멕시코는 북부와 남부가 확연히 다른 환경을 갖고 있다. 북부는 남부보다 상대적으로 잘 살고 백인이 많으며 좀더 도시적이고 산업화되어 있다고 한다. 북부에도 원주민 공동체가 있지만, 아직도 농부로 살고 있는 원주민인 인디언들 대부분은 남부의 여러 주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생활환경으로 인하여 멕시코는 독특한 사회 문화적인 특징을 갖추게

되는데, 특히 현대 농경산업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전의 농업기술과 공존하고 있는가하면 지방 인디언들은 조상의 관례를 지키지만 도시의 중산층들은 서구의 소비주의를 승배하고 있다.

멕시코는 또한 인구밀도가 조밀하여 그 수가 1억에 달하는데 총인구 가운데 5분의 1이 해발 2,100m에 있는 멕시코 고원에 몰려 살고 있다. 특히, 이 나라의 중심도시인 멕시코시티는 인구 2,000만 명의 세계적인 큰 도시로 날로 발전하고 있다. 종종 스모그가 도시를 덮기도 하지만 멕시코의 상업과 정치의 중심도시인 메트로폴리스이다.

현대적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신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이 도시는 원주민의 역사와 식민지 역사를 잘 간직하고 있어 거리에는 근대적인 건물과 식민지시대의 건물들이 혼합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오전 10시에 3문화광장을 떠나 과달루페 성당으로 향하였다. 현대식으로 지은 이 성당은 그 건축술이 교묘하여 밖에서 볼 때는 원추형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실내공간의 배치가 독특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수천 명이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설계한 현대식 건물로서 멕시코를 대표하는 손꼽히는 건물이라 한다.

또한 바티칸에서 인정하는 세계 3대 성모의 발현지이며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부유하고 방문객이 많은 가톨릭 교회로서 쎄로델 뼈뻬약 언덕 발치에 있는 건축물이다. 전설에 따르면 1531년 12월 9일 현재의 구 성당 뒤편에 있는 뼈뻬약 언덕을 지나던 후안 디에고 앞에 갈색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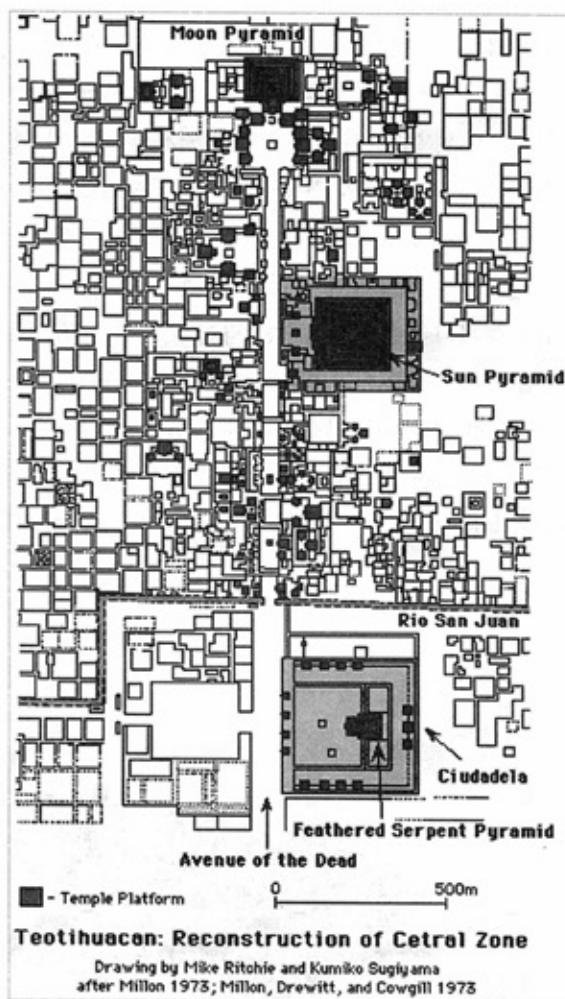


〈그림 1〉 과달루페 성당 앞에서 단체촬영

부의 성모가 나타나서 그 소년에게 이곳에 성당을 짓도록 사제에게 얘기하라고 한다. 소년 디에고가 사제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더니 사제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실망한 디에고가 언덕을 다시 지날 때 성모가 다시 나타나 장미꽃을 주니 디에고는 그의 망토에 그 장미를 담고 다시 사제에게 달려 갔다. 사제에게 달려간 디에고가 신부들이 보는 앞에서 장미를 맡은 망토를 펼치니 금, 은의 빛과 함께 망토 위에 성모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 후 사제는 언덕에 성모를 모시는 성당을 지었으며 성모의 모습이 나타났던 망토는 460년의 긴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당 안에 보관되어 있다. 대성당 밖에는 광장이 있고 옆에는 옛 성당 같은 건물이 있는데 발걸음을 옮겨 가까이 가보니 시계탑이었다. 해시계를 비롯하여 옛날에 사용했던 시계들을 모아서 탑을 만들어 놓았다. 이것을 보면 멕시코의 과거가 얼마나 찬란하였는지를 알 수 있었다. 최대의 성지로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일에는 순례자가 하루 종일 무릎을 끓고 고행참배를 하거나 봉헌을 한다. 이 날도 무릎을 끓고 고행참배를 하는 순례자를 뒤로하고 우리 일행은 오전 10시 40분 경에 페오띠우아칸(Teotihuacan) 문명의 유적지로 출발하였다¹⁾.

페오띠우아칸은 “인간이 신이 되는 장소”라는 뜻으로서 가장 인상적인 고대도시 가운데 하나다. BC 200~AD 900년 사이에 번창한 대표적 멕시코 고대문명 중의 하나로서 현재 멕시코시티 동북방 5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적이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이 도시는 AD



〈그림 2〉 페우띠우아칸 유적 지도

1) 테오티우아칸 문명은 BC 1200~200년경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올메카(Olmeca) 문명을 모문명(母文明)으로 발홍했다. 유적지는 크게 「태양의 피라미드」, 「달의 피라미드」, 「깃털 달린 뱀의 피라미드」, 「사자(死者)의 길」로 구성돼 있다.

650년 파괴되기 전까지 500년 동안 이 지역의 삶을 지배하였으며, 훗날 아쓰멕 사람들은 거인이 이곳을 세웠다고 믿고 신성시했다. 신전과 궁궐, 피라미드가 있는 의식 센터에는 도시의 광채가 담겨져 있지만 그 설립자와 주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며 그들의 출신과 생활양식, 그리고 소멸 이유까지도 아직 미스터리다.

페오띠우아칸(Teotihuacan)으로 가는 도중에 멕시코 민속공예품 전시장(옵시디아나 돌 가공공장 및 판매장)이 있는 테킬라(Teguila)지역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하차하였다. 여기서 선인장의 일종인 테킬라로 만든 공예품과 술에 대한 원주민의 진지하고 흥미로운 설명을 듣고 테킬라 술을 시음한 뒤 공장직원의 안내에 따라 공예품 관람을 하였다. 관람을 마친 뒤 버스에 승차하여 페오띠우아칸의 유적지로 출발하여 10여분 뒤에 하였는데, 일기가 매우 쾌청하여 기분이 상쾌했다.

페우띠우아칸 유적지는 해발 2,300m 고지에 위치하고 있는 고대 문명의 한 지역으로 유일하게 마야인들과의 접촉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유적지이다. 우리 일행은 먼저 신관 거주지의 여러 방을 지나서 재규어궁전(Palace of the Marching Jaguars)에 도착하였다. 이 일대는 1920년경에 발굴된 것으로 벽 외면에 전부 석회석으로 덮여 있고 그 위에 컬러풀한 벽화가 프레스코(Fresco) 회화기법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재규어 벽화의 빨강색은 산화철을 이용하여 오래 가도록 했으며 녹색은 선인장에서 추출하여 사용했다고 하였다. 또한 재규어 궁전의 벽화는 깃털장식을 한 재규어들이 깃털 소라로 만든 악기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대한 재규어를 묘사한 벽화를 배경으로 양 계단 사이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퀘잘파파로를 궁전(Palace of Quetzalpapalotl : 나비새 궁전)으로 들어갔다. 이 궁전은 주거지를 겸한 신전건물로서 몇 세기에 걸쳐 지어졌다고 하는데, 1962년에 발견되어 원래대로 복원되었으며 궁전 밑에는 깃털을 단 소라의 신전(AD 2-3세기)이 파묻혀 있다. 이곳에서 우리 일행은 기념촬영을 마치고 다시 약 10분간 이동하여 달의 광장 및 피라미드(Pyramid and Plaza of the Moon)에 도착하였다.

달의 피라미드는 태양의 피라미드보다 작은 높이(자체높이 50m)이기는 하지만 지반의 높이 때문에 태양의 피라미드와 높다. 이 일대의 도시 규모는 건설 당시를 기준으로 중동의 콘스탄티노플 도시의 인구인 20만 명을 능가하는 도시국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일행은 오후 1시경 달의 신전에 대한 관광을 마치고 사자(死者)의 거리(the Avenue of the Dead)를 통하여 태양의 피라미드(The Sun Pyramid)로 이동하였다. 사자의 거리는 현재 유적들이 있는 곳까지만 가로질러 뻗어 있지만 한 때는 남북 4km에 이르는 대로였다고 한다. 사자의 길이라는 이름은 아스텍 사람들이 길 양쪽에 줄지어 서 있는 건물들을 왕족의 무덤으로 잘못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태양의 피라미드는 다른 피라미드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좀더 하늘의 신과 가까운 곳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밑면의 길이가 가로 세로 각각 225m의 정사각형이며 높이는 71m되는 거대한 구조물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피라미드이다. AD 2세기경 완공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5,000명의 인부가 30년 동안 건설해야 하는 규모로 약 250만 톤의 벽돌(일억 개의 벽돌)과 흙으로 만든 신전의 기단에는 이집트 피라미드와 같은 석실과 묘는 없다고 전한다.

피라미드나 신전의 건축방식과 벽화의 내용 등을 통해서 분석하면, 당시의 천문학과 수학 등의 수준이 오늘날에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발달해 있었다. 이들은 춘분과 추분의 변화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았으며 해와 달의 피라미드의 그림자가 일직선을 유지하는 진귀한 현상을 만들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시간의 흐름’을 계산했다는 증거이다.

또한 수학적인 측면에서도 당시 파이(π)의 사용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의 피라미드의 계단 경사면이 43.5도이며 밑면의 둘레가 893.91m이므로 그들은 높이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건설하였던 것이다. 즉, 피라미드의 높이는 둘레 $893.91/4\pi = 71.17m$ 로 이것이 해의 피라미드의 높이인 것이다²⁾.

이날 관광일정 관계로 예정보다 조금 늦은 오후 2시 10분경에 “Quinto Sol Hotel”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식사 중에는 원주민들로 구성된 전통음악 밴드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으며, 식사가 끝날 무렵에는 젊은 남녀 원주민 2명이 펼치는 멕시코의 민속 북춤을 관람하거나 함께 기념촬영도 하면서 점심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식당을 출발하여 오후 4시 10분경 멕시코의 국립대학인 우남(UNAM)대학에 도착했다. 우남대학은 역사가 300년이나 되는 중남미의 최고 대학으로 학생수는 30만 명, 교수는 300명이 재직 중이며, 학비는 국가에서 부담함으로써 거의 전액 무료이다. 그러나 학위 취득은 어려워 졸업생의 10분의 1만 학위를 받는다고 한다.

우남대학 출신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마르크스”를 들 수 있는데, 그는 구소련 유학파로서 멕시코의 치아파스지역에 있는 농민(인디오)편에 서서 대정부 투쟁을 해오면서 농민 혁명군을 결성하여 정부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후 전쟁을 개시하여 정부군을 대폐시킨 적이 있는 멕시코의 영원한 영웅이다.

그의 정부투쟁은 백인들이 인디오 농민들이 경작하여 생산한 커피로 \$10(예)을 벌어들이면 그 중에서 ₩10만 농민에게 되돌려 주고 나머지는 그들이 착취한데 대하여 격분한 나머지 시작된 것이다. 그의 대정부 투쟁의 일화로 유명한 것은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농기구로 완전 무장한 농민들 200명을 이끌고 소활로 광장과 우남대학 등에서 집회를 연 뒤, 멕시코 시티의 시내로 진입하여 ① 인디오에게 세금을 면제하여 줄 것, ② 인디오의 옛 땅을 돌려줄 것, ③ 인디오들을 정당하게 대우할 것 등 3가지를 주장하면서 18시간 동안 시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도 2π 공식에 딱 맞아떨어지게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

오후 4시 30분경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서둘러 우남대학의 관광을 모두 마치고 숙박지(Mission Reforma Colon Hotel)로 되돌아 와 학술 세미나 준비를 하였다. 오후 6시경 호텔내 6층 세미나 룸에 모여 이번 학술탐사 및 국제학술대회 단장인 한국경영사학회 회장(단국대학교 이승옥 교수)의 개회인사와 김영래 교수의 사회로 학술세미나가 시작되었다.

이날 발표된 주제는 두산그룹의 매현 박승직과 연강 박두병의 기업가 정신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가 발표되었다.

- Keynote Speech : 두산 그룹의 국제적 전략 김 신(경희대 교수)
- Topic 1. 제1주제 : 두산 그룹의 기업활동과 경영전략 이건희(이화여대 교수)
제2주제 : 두산그룹의 성장과 발전 이승옥(단국대 교수)
제3주제 : 두산그룹의 한국경영사학회에서의 위치 한한수(경희대 교수)
- Topic 2. 제1주제 : 노예교역과 농장에 관한 연구 박광서(순천향대 교수)
제2주제 : 남미제국의 회계제도의 발전과정 이건희(이화여대 교수)
제3주제 : 남미의 경제적 개혁 김성순(단국대 교수)

각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발표와 참여교수들의 열띤 토론으로 학술세미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경희대학교 김성수 교수의 총평을 끝으로 오후 8시 30분경에 행사가 끝났다. 학술세미나가 예정보다 늦은 오후 8시 30분경에 끝남으로써 저녁식사가 늦었다. 여행사에서 특별히 제공한 데킬라 술과 함께 즐겁게 저녁식사를 마친 뒤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셋째 날 : 멕시코시티에서 페루의 리마로(7. 21, 일요일, 흐림)

아침 7시경에 기상하여 뷔페식으로 조식을 마치고 체크아웃을 한 뒤 오전 9시경 국립인류박물관 및 전날에 관람하지 못한 소칼로 광장으로 출발했다. 출발 후 약 1시간이 지난 10시 10분경 소칼로(Zocalo : 기반석이 있는 곳, 즉 Center라는 의미) 광장 입구 도로변에 도착하였는데 광장에는 요란스러운 마이크 소리와 함께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 멀리 보였다. 멕시코 국제공항의 이전 예정지인 “아뗀고”가 평당 150페소짜리 땅인데 단 7페소로 강제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보상문제 때문이라 한다.

하차한 뒤 먼저 대통령궁인 “빨라씨오 나嘶오날(Palacio Nacional)”로 이동하였다. 대통령궁은 고대 아스테카 제국의 마지막 왕인 “목떼수마(Moctezuma Xocoyotl) 2세”的 별장지로 스페인 점령군에 의해 대부분 파괴된 후 그 자리에 세운 건물이다. 당시 스페인 총독이 거주하던 건물이었으며, 얼마 전까지는 멕시코 대통령의 집무실로도 쓰이고 있었으나, 현재는 대통령이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디에고 리베라가 멕시코의 어두운 과거 역사를 그려 놓은 혁명벽화(Mural)가 있는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약 30분 정도 관람을 마친 뒤 소괄로광장으로 이동하였다. 광장의 북쪽 가장자리에는 대성



〈그림 3〉 대통령 궁의 벽화

당 “까페드랄 메뜨로 뽀리파나(Caledral Metropolitana)가 고색 창연하게 서 있었는데, 성당이 위치한 자리는 고대 아스테카 신전 가운데 인신공양시 헤골을 보관하던 보관소인 촘빤 페이라(Tzompantli)” 또는 두개골의 벽(희생자들의 두개골을 놓아두던 일종의 제단)이었다고 한다. 1545년에 성당으로 건립되었지만 화재로 인하여 17세기에 재건하였으며 그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스페인 제국은 멕시코에서 금과 은을 실어간 대신에 스페인에서 건축자재를 배로 실어와서 이 성당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현대 건축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무(無)철근으로 건축하였다고 하는데, 뒤에 인디오 출신의 유일한 대통령인 “베니또 주아레스(Benito Juarez)”가 취임하면서 “Raporma”정책의 일환으로 가톨릭의 개혁정치를 과감하게 전개하면서 성당의 재산을 몰수하여 빈민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오전 10시 30분경 다음 목적지인 멕시코 인류박물관에 도착하였다. 박물관 안으로 입장하여 분수대에서 가이드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분수대를 포함한 박물관의 설계는 멕시코의 건축가인 “뻬드로 라미레스 바스케스(Pedro Ramires Vasques)”가 맡았는데, 분수대의 기둥은 인디오의 “물과 신”을 조각한 것이라 한다. 마야는 물이 없는 정글 속에서 형성된 도시국가로 건축, 천문학, 수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건축에 있어서는 서양의 아치형에 비해 다각형을 이용한 공법을 개발하여 뛰어난 기술을 자랑

하고 있다.

박물관의 구조는 1층에 테우띠우아칸(Tetiuacan), 톨떼카(Tolteca), 마야(Maya), 아즈테카(Azteca) 등 멕시코의 고대문명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2층에는 현재 남아 있는 인디오의 전통 민속공예품과 주거 양식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1964년 완공 당시는 프랑스나 영국의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박물관 보다 1세기가 앞선 박물관으로 호평할 만큼, 세계 3대 박물관에 벼금가는 박물관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물관 내부 전시실의 관람을 마치고 이동 중에 박물관 입구 바깥쪽에서 진행되고 있던 인디오 가족들의 전통 민속복춤의 구경을 끝으로 버스에 탑승하여 시내에 위치한 “일광(日光)호텔”的 일식당(Srita Gabriela Lozano)으로 이동하였다. 멕시코 현지인과 일본인이 49:51의 비율로 출자하여 운영되고 있는 일본계 호텔내에 있는 일식집으로, 식사는 단국대 졸업생이자 우남대 출신인 이광섭씨(우남대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4, 5년간 강단에 섰다가 현재는 전자분야에서 사업)가 마련한 것이었다.

감사한 마음으로 중식을 마친 뒤 호텔을 출발하여 오후 2시 40분 경에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서둘러 탑승수속을 마친 뒤 에어로 멕시코(Aeromexico) 항공기를 탑승하여 오후 5시 25분경에 다음의 목적지인 페루의 리마(Lima)로 출발하였다. 리마국제공항까지는 약 5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오후 7시경에 기내식으로 저녁식사를 마쳤다.

저녁 10시 30분에 리마국제공항에 착륙하였다. 입국수속을 마치자마자 리마공항에서 버스로 리베라호텔(Rivera Hotel)로 이동하여 방을 배정받고 투숙했다. 이 날 저녁의 리마 날씨는 우리나라의 초겨울 날씨 같아서 한기를 느낄 정도로 쌀쌀하였고, 방 내부의 난방시설도 오래되어 낡았고, 실내온도도 냉기가 가득하여 취침하기가 쉽지 않았다.

페루는 안데스 산지에 메아리치는 폴콜로레의 멜로디나, 민속의상에 세 갈래 머리를 늘어뜨린 인디오의 여인들, 아침안개가 덮여 있는 잉카의 유적, 그리고 아마존의 밀림지대 등 남미의 이미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싶다. 아마존이라면 브라질을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페루 국토의 60%가 아마존의 열대우림 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페루의 안데스를 발원으로 시작되는 강이기도 하다. 따라서 페루는 남미의 모든 매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리마는 페루의 수도로서 남미의 현관에 속하지만, 기후조건으로는 5월에 ‘잉카의 눈물’이라 부르는 안개비만 약간 내릴 뿐 사계절 내내 거의 비가 내리지 않으며, 겨울에는 흐린 하늘에 찌푸린 날씨가 계속되는, 결코 살기 좋은 곳은 아닌 듯 했다.

넷째 날 : 페루의 고산지대, 쿠스코에서 우루밤바로(7. 22, 월요일, 흐림)

오늘은 비행기로 쿠스코까지 이동하기 위해 이른 아침 7시 20분경에 호텔을 출발하였다. 공항으로 가는 길가에 늘어서 있는 건물들은 많이 낡았고 스모그 때문인지 도시 전체가 침침

하였으며, 습도가 꽤 높은 것 같다. 출근길 승객을 가득 태운 낡은 시내버스는 가끔 뉴스시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중동의 전쟁포화 속에서 달리는 버스를 연상케 했다. 버스의 앞모양은 지프형으로 차체의 몸통은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었고, 깨진 창 밖으로 내민 승객들의 얼굴은 약간 새까맣고 어두운 표정들이었다.

대형버스는 개조 후 탑승인원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버스에는 차장이 있어 1950~60년대 우리나라처럼 버스에 매달려 달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또한 차장은 50%가 남자, 10%가 여자, 나머지 40%는 어린이라고 하며, 남자 차장은 나중에 진급하여 기사가 된다. 대우자동차의 티코가 눈에 많이 띄었는데,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판매실적 1위(대당 약 \$7,500)를 차지하였으며 현재에도 약 3,500~4,000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다. 지금은 갤로퍼가 많이 팔리고 있으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고차나 중고 부품들을 수입하여 팔았으나 현재는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고 한다.

빈부격차가 심해 상류층은 4~5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면서(그 가운데 1대는 캠핑 전용차) 하루에 \$100씩 소비하고 있는 반면, 서민층은 하루에 한 식구가 \$1로 먹고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빈부의 격차는 주거환경에서도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리마의 구 시가지에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지붕이 없고 페인트를 칠한 집이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1층짜리 건물 옥상에 벽돌 같은 것을 쌓다가 만 집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다. 1층을 지을 때는 세금을 내지만 2층부터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일단 1층을 짓고 나면 돈을 모아서 2층 공사에 들어가는데 약 2세대에 걸쳐서 집을 완성한다고 한다.

오전 7시 50분에 리마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현지 가이드의 사전설명에 의하면 행선지인 쿠스코(Cusco)는 지대가 높아 고산병으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쿠스코 공항 도착 후 걸어다닐 때는 평소보다 1/3 속도를 유지해야 하며, 속이 울렁거릴 때는 가이드에게 지체없이 얘기하라고 한다. 괜찮다가 호텔에 가서 나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긴장이 풀려) 끝까지 주의를 해야 한다.

오전 8시 25분에 다시 쿠스코로 가기 위하여 탑승 수속을 마치고 “Tans Peru” 항공기에 탑승, 9시 10분경에 출발하여 쿠스코공항에 오전 10시에 도착하였다.

공항의 통로 바닥이 미끄러운데다 고산지대(3,380m)로 무중력 상태와 같아서 천천히 걸어서 나와 버스에 탑승하였다. 날씨는 쾌청했고 Sun Cream을 바르지 않으면 얼굴이 탈 정도로 햇살이 따가웠다. 한적한 소도시 시가지에는 붉은 색 집이 많았고 잉카시대의 요새로 사용했던 건물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쿠스코 시내를 가로질러서 오전 10시 30분경 호텔(San Agustin International)에 도착하였다. 우선 짐을 숙소에 맡겨놓고 관광에 나서기 전에 고산병에 효과가 있다는 마테코카 차

(마약원료로도 사용되는 코카 잎으로 만든 차음료)를 한두 잔씩 마셨다.

얼마 후 호텔을 출발하여 먼저 태양의 신전(Temple of the Sun)인 꼬리칸차(Qoricancha)에 오전 11시 10분에 도착했다. 꼬리란 “Gold”라는 의미이며 칸차란 “Courtyard(안쪽뜰)”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꼬리칸자는 잉카의 황금시대에 신전이 있던 곳인데 1681년에 스페인 사람들이 파괴하고 산토도밍고(Santo Domingo) 성당을 세웠다고 한다. 신전의 가운데에 정원을 만들고 가장자리에 5개의 방을 배치했는데 태양의 신전, 달의 신전, 별의 신전, 빛의 신전, 무지개의 신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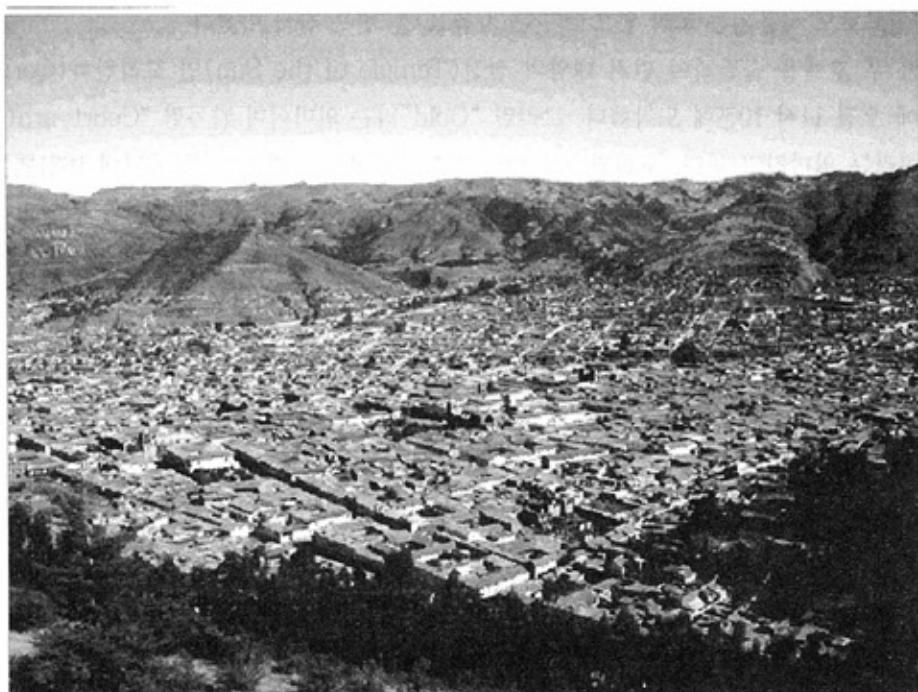
첫 번째 방에는 무지개 신전인데, 여기서 무지개는 태양의 천사를 의미하며 벽들이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는 것은 지진에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규모가 큰 편이었는데, 잉카인의 체구는 적어도 건물은 크게 지었다고 전한다.

두 번째 방은 달의 신전으로 맞은편에 태양의 신전이 위치하고 있으며, 세 번째 방은 8~10세 정도의 귀족출신 여자 애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15세가 되면 “태양의 처녀”라고 하여 왕의 밑에서 시중을 들게 했다고 한다. 벽에 그려진 스페인 형식의 벽화들은 스페인이 쿠스코를 정복한 뒤 잉카인 포로들에게 벽화제작 교육을 시켜서 그리게 한 것으로, 그들이 벽화를 그릴 때 영혼을 상징하는 눈만큼은 잉카인의 눈을 그렸다고 한다.

건축물 가운데에 위치한 광장의 한가운데에는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 위에는 스페인 군이 물수해 가기 전까지는 황금의 야마상(야마란 낙타 위에 가마를 엎어놓은 것)이 있었고 바닥과 벽 전체가 황금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만들어져 있었다고 한다. 아울러 잉카인들은 글자와 문양이 없었지만 그 당시에 수레를 개발하여 사용할 만큼 지적수준이 높았다고 한다.

정오 12시에 꼬리칸차의 견학을 마치고 쿠스코 대성당이 웅장하게 서있는 쿠스코 중앙광장으로 이동하여 12시 50분부터 ‘Pachaculee Grill & Bar’라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중식 후 짧은 자유시간을 가진 뒤 오후 2시경에 버스에 승차하여 약 3,600m 고지에 있는 삭사이후아만(Sacsayhuaman) 요새에 도착하였다.

요새의 석축을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한 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요새의 최정상으로 올라가 쿠스코 시가지를 내려다 보았다. 시가지의 모양이 퓨마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머리 부분이 석축으로 지그재그로 짜여져 있었는데, 쿠스코시 자체가 페루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요새 기능을 하였다고 한다. 1546년 스페인에게 점령된 후 잉카의 소수 독립 운동가들이 반란을 일으켜 여기에서 항전을 하였으나 스페인군에 의한 야간 기습전투에서 패배하게 된다. 삭사이후아만(Sacsayhuaman) 요새는 해발 약 3,800m의 고지에 위치하며, 태양의 신전을 건설하여 적으로부터 수도(쿠스코)를 방어하기 위해 건설된 요새다. 길이가 380m이며, 3층의 돌 벽으로 만들어져 있으나 돌 사이에 틈이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돌을 깎아서 축성하였다.



〈그림 4〉 쿠스코 시가지 전경

돌을 자르는데 약 4,000여 명이, 돌을 끌어당기는데 약 6,000여 명이 동원되었으므로 총 10,000명의 인원이 동원된 셈이며, 15년간 축성하였다고 한다. 관람 후 약 3분 정도 버스로 이동하여 알파카와 같은 피혁제품과 기타 인디오의 민속품을 판매하는 가게로 안내되었다.

쇼핑을 마친 뒤 오후 3시 50분경 다시 버스를 타고 뽑캄뿌타(붉다는 뜻) 유적지를 지나 땀뿌마차이(Tampumachay) 유적지에 도착하였다. 하차하여 사진촬영과 민속악기를 팔고 있는 노점상에서 쇼핑을 마친 뒤 버스에 탑승하여 우루밤바지역에 있는 호텔(San Augstin International Urubamba CUSCO)로 출발하였다.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서 약 1시간을 달린 오후 5시 25분에 호텔에 도착하여 방 열쇠를 수령한 뒤 입실하여 여장을 풀었다. 호텔은 자연 속에 아담하게 자리잡고 있었으며 마치 시골에 있는 조용하고 깨끗한 여관집 같은 분위기였다. 방에서 조금 휴식을 취한 뒤, 저녁 7시경 호텔내의 식당으로 가서 전통의 민속음악 공연을 보면서 뷔페식의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다섯째 날 : 사라진 공중도시 “마츄피չ우”로(7. 23, 화요일, 쾨청)

방 공기가 차가워 예정보다 이른 아침 5시 57분에 잠에서 깨었다. 호텔 밖으로 빠져 나와

오른쪽 마을로 올라가면서 주변의 시골 풍경을 사진에 담기도 했으며, 호텔 건너 길가에서 전통 공예품을 팔고 있는 노점에 가서 홍정을 하면서 기념품도 구입하였다. 그리고 때마침 호텔 앞길을 지나던 등교길의 인디오 학생들과 기념촬영도 하였다.

오전 7시 30분경 버스에 승차하여 마추피츄행 기차역으로 출발하였다. 도중에 올란따이땀보(Ollantaytambo) 신전이 있는 유적지에서 하차하여 잠시 관광을 한 뒤 다시 출발하여 얼마 후 올란따이땀보 기차역에 도착하였다. 단체로 구입한 티켓을 한 장씩 가지고 기차에 탑승하여 마추피츄(약 42km 거리)역을 향해 출발하였다. 계곡을 따라 부설된 철로를 따라 기적을 올리면서 쉴새없이 달리는 열차의 차창 밖으로 가끔씩 건너 쪽 산허리나 철로 변을 따라 트래킹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눈에 띄었다.

이곳 철도는 스페인 정부가 부설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열차는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역을 출발한지 약 1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11시 10분에 잊어버린 도시 마추피츄(Machupicchu)역에 도착하였다. 시골 간이역 같은 역사를 빠져 나와 마추피츄행 버스에 승차한 뒤 산허리를 지그재그로 닦아놓은 좁은 산길을 따라 아슬아슬하게 타고 올라와 드디어 마추피츄 유적지가 있는 정상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뒤 정오 12경에 티켓을 구입하고 마추피츄 유적지로 들어갔다. 마추정상에 있는 전망대(당시는 초소로 쓰였다고 전함)까지는 산길을 걸어서 약 20여 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마추피츄의 역사는 Guide의 설명과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추피츄는 1911년 미국의 청년탐험가(뒤에 예일대 교수가 됨, 역사학자)인 하이람 빙검(Hiram Bingham)이 빌칸 칸바레(잉카의 도시인 엘도라도)를 찾아왔다가 한 인디오 소년의 얘기를 듣고 따라가 발견하게 된다. 16세기에 멸망하여 약 400년 간이나 되는 오랜 역사 속에 묻혀 있던 잉카제국³⁾의 유적지인, 공중도시 ‘마추피츄’가 이 때 해발 2,450m상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마추피츄 유적지는 쿠스코에서 112km나 떨어져 있으며, 우루밤바(Urubamba)강을 끼고 마추피츄(Machupicchu : 늙은 봉)와 와이나피츄(Waynapicchu : 젊은 봉) 사이에 형성된 도시이다. 언제, 누가, 무슨 목적(군사적 목적 혹은 종교적 목적)으로 만들었고 무슨 이유로 폐허가 되었는지 아직도 수수께끼에 쌓여 있다⁴⁾.

- 3) 1200년경부터 1500년경까지 약 300년 동안 인디오들에 의해 지금의 페루(Peru)를 중심으로 태평양 연안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국가이다.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키프(?)라는 것을 사용했으며, 케찬語(?)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전한다. 또한 로마의 길 못지않은 “잉카道”를 가지고 있었으며, 황금의 문명이라고 할 만큼 황금이 풍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4) 山上의 도시로 건설한 목적으로는 ①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신전으로 건설(종교적 목적), ② 쿠스코에 대항하기 위해 반대세력이 만든 숨은 도시(정치적 목적), ③ 아마존의 부족(적)에 대한 요새로 건설(군사적 목적)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자연석으로 만든 도시로서 중앙신전, 태양의 신전, 달의 신전과 같은 종교적 건축물과 계단식의 천수답인 ‘안데네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천수답의 규모로는 수천 명에서 1만 명까지 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 각 신전에는 황금의 조각으로 채워져 있으며, 식수는 멀리 떨어져 있는 빙산의 물을 쇠파이프로 끌어와서 사용하였다고 전한다.

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잉카인들이 건설했다는 설과 先잉카 때 만든 것을 그 후 잉카인들이 완공했다는 2가지 설이 있다고 한다. 마チュ피չ우 봉 아래쪽에는 공동묘지가 있어 인골 173구가 발견되었는데, 80% 이상이 여자라고 한다 (쿠스코대학 인류학전공의 사파타 교수의 주장: 스페인이 남긴 토지대장 연구결과). 당시 잉카인들은 스페인 군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것으로 예상하고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자와 어린이를 생매장하고 건장한 남자들만 데리고 도망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չ우(=마チュ피չ우)가 잉카·유팽키(=파챠쿠테 황제)의 토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료에 따르면 파챠쿠테 황제가 15세기 중엽 마チュ피չ우를 건설했다고 추정하고 있다(쿠스코대학 고고학자인 루이스·무리료 교수: 사파타 교수의 스승).

또한 마チュ피չ우 유적지(도시)의 남쪽 봉우리(와이나피չ우)가 퓨마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퓨마를 자신의 상징으로 삼고 있었던 파챠쿠테 황제가 이 자리에 창세신화⁵⁾의 신전을 건설하기로 결심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3개 창의 신전(the Temple of the Three Windows)의 3개 창문은 잉카의 창세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잉카사람들에게 창세신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건설한 것이다. 창세신화가 만코라는 사람으로 시작하므로 만코가 잉카의 전설상의 초대 황제가 된 것이다. 3개 창의 신전에 있는 창문은 초대황제가 태어났던 구멍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는 황제가 새로 지배한 타민족이나 자신에게 잉카의 뿌리를 알릴 필요가 있어서 건설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단서이기도 하다.



〈그림 5〉 와이나피츄봉과 도시 유적지

5) 잉카의 창세신화 내용: “신은 담뿌도꼬라는 장소의 3개 구멍을 통해서 몇 명의 인간을 부른다. 그 중에서 만코라는 남자가 금색의 회양목을 던지니 비옥한 토지를 받았다. 그 토지가 쿠스코였다.”



〈그림 6〉 세 창의 신전

따라서, 마추피չ우는 파챠쿠테 황제가 ① 창세신화를 재현하고 ② 그의 명예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건설된 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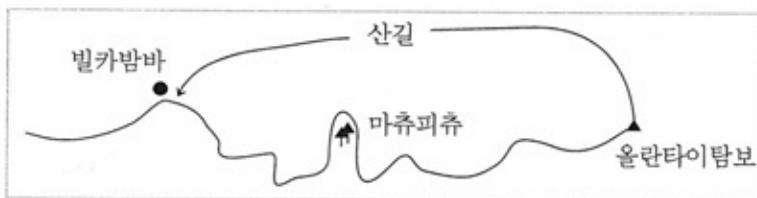
유적지 맞은편(남쪽)에 뾰족하게 솟아 있는 와이나피츄 봉(400m 높이)의 꼭대기에는 돌의 왕좌(王座)가 조각되어 있다. 이곳은 가장 높은 곳으로 태양에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쿠스코(Cusco, Cuzco)는 잉카(Incas)의 제9대 황제인 파챠쿠텍(Pachacutec)⁶⁾ 이 잉카의 중흥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한 옛 잉카제국의 수도로 “세계의 배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해발 약 3,400m 고지에 형성된 도시로 퓨마의 모양으로 건설하였는데, 퓨마의 머리부분이 파챠쿠텍 황제의 궁전(현재 아르마스(Armas) 광장의 성당자리)이 있었으며, 나머지 시내지역은 퓨마의 몸통 부분에 해당된다⁷⁾.

16세기 스페인은 황금에 눈이 멀어 1532년에 군대(군함)를 이끌고 잉카제국과의 전쟁(카하마르카의 전쟁)을 일으킨다. 200명의 스페인 군대는 잉카군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총, 대포, 말을 이용하여 수만 명의 잉카군대와의 단지 수십분 만의 싸움 끝에 승리를 거두었는데, 우선 황제를 체포하여 쿠스코로 진입한 뒤 잉카제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자멸시키기 위해 만코(Manco) 2세를 황제로 추대한다.

1536년 만코 2세는 스페인군의 오만함과 지나친 약탈(황금)에 격분하여 반란을 일으켜 성당에 방화한 후 수만 명의 잉카병들이 삭사이후아만에 진을 치고 대항하였으나 병사들이 이

6) 파챠쿠텍 황제는 1436~1471까지 약 35년간 잉카제국을 통치했던 역대 황제 중 가장 강력한 황제였다.

7) 파챠쿠텍 황제는 퓨마를 제국의 심볼로 삼았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림 7〉 잉카군대의 퇴각경로

탈하기 시작하여 만코 2세는 쿠스코 포위망을 포기하고 오란타이탐보(Ollantaytambo : 파차 쿠테 황제가 건설한 태양의 신전이 있음)로 철수하여 여기서 쿠스코 탈환을 꿈꾸고 있었으나, 총과 대포가 없는 잉카군은 대항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쿠스코에서 300km 떨어진 빌카밤바(Vilcabamba)로 피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때 강을 택하지 않고 4,000m 고지의 산길을 선택하여 빌카밤바로 철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루밤바 강을 끼고 있는 마츄피츄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둘러갔다고 전하고 있다.

이렇게 됨으로서 마츄피츄는 자연히 고립된 잉카의 성스러운 수도가 되었을 것이며, 마츄 피츄 사람들은 만코 2세가 피난 간 빌카밤바로 옮겨갔을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이때 마츄피츄에 남아 있던 것은 신관 남자와 태양의 소녀 뿐이었는데, 주민들이 떠나기 전에 이들을 공동묘지에 생매장을 하고 집은 지붕(짚으로 되어 있었다고 추정)에 불을 질러 도시 전체를 태우고 떠났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츄피츄가 400여년 동안 숨겨져 있었던 이유는 당시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에 눈이 어두워 신전에 있던 황금상에 욕심이 나서 잉카의 유적지를 찾았으나, 쿠스코 사람(잉카인)들은 그들의 횡폭한 행동을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전에 황금상으로 치장하고 있었던 마츄피츄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후 1시 30분경에 마츄피츄 관광을 마치고 버스에 탑승 후 마츄피츄역으로 출발하였다. 산길을 내려오는 도중에 버스가 커브 길을 돌아갈 때마다 “차스키”가 나타나 우리말로 “안녕히 가세요”라고 외치는 바람에 모두들 시선을 창밖에 집중하면서 내려왔다. 마지막 지점에서는 차스키가 버스에 탑승하여 기념촬영을 하면 \$1씩 지불하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다. 어린 인디오 “차스키”는 우리가 남미로 오기 10일 전 국내에서 TV로 방영되는 것을 보았다. 이때 관광버스가 커브 길을 들 때마다 지름길로 뛰어 내려와 각국 관광객들에게 특유의 그 나라 인사말로 끝까지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기억에 남아 있었다.

버스 주차장까지 함께 타고 온 차스키와 버스주차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헤어진 후, 오후 2시 8분에 식당에 도착하여 중식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기차시간에 맞추어 자유시간을 가졌다. 시간이 남아 마을 뒤쪽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 들러 운동회 연습광경을 관람하면서 비디오에 담기도 하였다. 여기서 우연히 이 학교 선생님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학교 교실까지 안내

를 받아 학생들과 기념사진도 찍고 교실 내부도 구경할 수 있었다.

기차 승차시간이 다 되어 집합장소인 기차역으로 출발하면서 중간에 찻집 같은 곳에 들러 잉카콜라를 사서 처음으로 시식을 해 보았는데, 코카콜라의 원조라는 선입견 때문인지 코카콜라보다 맛이 좋은 것 같았다.

오후 4시 50분에 열차에 승차(열차 뒤쪽에 2량 밖에 달려있지 않은 1등석에 두당 \$27.5를 지불하고 승차)하였으나 예정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오후 5시 40분에 마츄피츄역을 출발(예정 시각보다 약 40분 정도 지연)하였다. 열차가 달리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서서히 밖이 어두워졌으며, 객차의 지붕 양쪽에 투명 유리 밖으로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는 것이 보였다. 가끔씩 저속으로 주행하기도 하며, 실내등이 꺼지는 바람에 보름달의 흰한 달빛을 객차지붕을 통해서 감상할 수도 있었다. 연료를 석유로 사용하는 탓에 석유냄새와 기름 매연이 열차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였으나, 예전의 증기기차를 타던 어린시절로 되돌아가는 듯 감상에 빠지기도 했다.

출발한지 1시간 30분 후에 올란파이땀보 기차역에 도착하였고 7시 10분경에 주차장에서 버스에 승차하여 쿠스코시내로 향해 출발하였다.

저녁 9시 10분경에 쿠스코 시내에 있는 식당(La Retama)에 도착하였다. 저녁식사를 완료하고 버스에 탑승하여 호텔(San Agustin International Cusco)로 돌아왔지만, 그냥 잠자기가 아쉬워 중앙광장으로 나가 야경촬영을 했다. 일행 중 많은 사람들이 고산병 증세로 고생을 하는 듯 했고 잠도 설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았다.

여섯째 날 : 쿠스코에서 다시 리마로(7. 24, 수요일, 쾌청)

아침 8시 30분에 호텔을 출발하여 라 메르세드(La Merced) 수도원에 도착하였다. 이 수도원 건물은 원래 잉카의 신전과 귀족의 거주지였으나 스페인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개조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스페인은 잉카제국을 통치하면서 잉카의 성스러운 곳을 허물고 자신들의 건축물을 세워, 잉카의 문명(특히 석조 문화) 위에 스페인의 건축문명을 이식하는 형식을 취했었다.

관람한 첫째 방은 성경을 독송하거나 회의가 열리던 곳으로 성 마리아상(Las Mercedes)이 있었고, 벽의 장식은 나무 위에 깁스를 해서 도금으로 장식을 하였으며 벽화는 17c초~17c중엽까지 쿠스코 미술전공 학생들이 그린 그림이라고 전한다.

수도원의 관람을 서둘러 마치고 리마로 떠나기 위하여 버스에 탑승, 오전 10시에 쿠스코공항에 도착하였다. 수속을 마친 뒤 12시 30분에 쿠스코를 떠나 약 1시간 10분 뒤인 오후 1시 40분에 리마공항에 착륙하였다. 그 뒤 오후 2시경에 버스에 승차하여 점심식사를 위하여 까이야오 시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가이드로부터 페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스페인이 페루의 수도를 리마로 옮긴 이유는 12km나 되는 자연방파제가 있으며 연중 비가 거의 없는 기후상의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내에 있는 상류층 집에는 보안장치로 창문에 전부 철망이 쳐져 있었으며, 정원의 잔디는 정부에서 공급해 준다고 한다.

국기의 색깔 중에 빨강 색은 피(침략과 전쟁이 많았다는 역사적 증명)를, 흰색은 평화를 상징하며 매년 7월 28일을 스페인 식민지로부터 독립한(1596년) 독립기념일로 선포하여 7월 한 달 내내 국기를 게양한다고 한다.

또한 교통경찰의 6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뒷거래(비리)가 없다고 하며, 도둑보다 무서운 것이 경찰들이라고 한다. 5~6월에만 이슬비가 내리는 정도로 연중 건조한 날씨관계로 서민들의 주택 대부분이 지붕이 없고 시가지가 먼지로 덮인 삭막한 인상을 주었다.

오후 2시 45분에 중국식 식당(鴻福食街)에 도착하여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3시 50분 경에 산마르틴(아르헨티나인 장군 동상) 광장을 거쳐서 대통령궁 광장에 도착하여 성당견학 및 사진촬영, 대통령궁과 시청 등을 관람하였다.

약 40분 정도의 관광을 마치고 오후 4시 40분경 버스에 탑승하여 신시가지로 진입하는 가운데 가이드의 설명이 계속되었다.

리마 해안의 북쪽에 “비루”라는 강이 있는데 스페인 사람들의 귀에 “뻬루”로 들려 뒤에 “페루”라는 국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리마라는 이름은 “Rimac”강이라는 강의 이름에서 “Lima”가 생겨났다고 하며, 리마산 정상의 대형 십자가 모양과 해안선의 십자가 모양이 리마시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7월초가 되어 서커스시즌이 시작되면 러시아 등지에서 유명한 서커스단이 온다고 한다.

리마시내에는 리마대학, 가톨릭대학, 산마르코스대학 등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대학은 가톨릭대학이며 그 다음이 리마대학이라고 한다. 산마르코스대학은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일행은 오후 5시 20분경에 황금박물관(Fundación Miguel Mujica Gallo, Museos “Oro del Peru”, “Armas del Mundo”)에 도착하여 안으로 입장하여 관람을 시작하였다. 황금박물관은 일본인 3세(Miguel Mujica Gallo : 본인이름+일본인 부친 명+현지인의 어머니 성, 작년에 작고)가 개인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으로서 지하 1층은 황금의 방, 지상 1층은 무기의 방으로 23세부터 93세까지 수집한 진귀하고 수 많은 소장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한 사람이 수집하였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량이었다. 소장품의 2/3만 전시실에 전시를 하고 있으며, 정말 값어치가 있는 1/3 정도의 소장품들은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오후 6시 10분경에 관람을 끝내고 버스에 탑승하여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가이드의 설명이 계속되었다.

페루에서는 은행을 통해 돈 세탁 시 이자가 한 푼도 없으며, 보관료를 고객에게 받는다는 것과 먹을 양식만 있으면 그날 일을 하지 않을 만큼 느긋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 장래를 생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적금이나 예금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한다. 물가변동은 거의 없으며, 여기서도 중국 사람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e-wons”라는 대형 할인점 체인이 중국인 4명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 8〉 리마공항 상공에서 내려다 본 리마시가지

신시가지 해변가 전망대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하차하였다. “라르꼬마르” 쇼핑가에서 야경 촬영, 알파카 등의 Eye Shopping, 산책 등을 마치고 버스에 다시 승차하여 한국식당으로 출발하였다. 약 10분 뒤에 한국식당에 도착(하차)하여 오후 8시 40분까지 식사를 마치고 리마 공항으로 이동하였다. 출발 후 약 50분 정도 지난 뒤에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으며 탑승수속을 마치고 저녁 11시에 Valic항공기에 탑승하였다. 비행기는 11시 30분에 브라질의 상파울루로 출발하였는데, 오늘은 기내에서 취침하기로 되어 있었다.

일곱째 날 : 세계 최대의 이과수 폭포로(7. 25, 목요일, 쾨청)

아침 5시 40분경에 브라질의 상파울루(Sao Paulo) 국제공항에 착륙한 뒤 공항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먼동이 서서히 트고 있었다. 이어서 아침 6시에 브라질의 국내선 연결 수속을 마친 뒤 탑승구까지 이동하여 출발 전까지 휴식에 들어갔다.

아침 8시에 Brasil Varig 항공기에 탑승하였으나 지체되어 8시 40분경에 이륙하였다. 비행 중에 창 밖을 내려다보니 검푸른 산과 산 사이에 설원 같은 구름바다와 둑등 떠도는 흰 구름들이 인상적이었으며, 아침 9시 10분경에는 숲 속에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광활한 정글이 끝없이 펼쳐지는 장관을 볼 수가 있었다. 얼마 후 간식 정도의 기내 조식(소형 햄버그, 야쿠르트, 주스, 물수건 등)이 나와서 모처럼 맛있게 먹었다.

경유지 공항인 쿠리티바(Curitiba) 공항이 가까워지자 잔디정원과 푸른 초원 위의 말들, 크고 작은 호수들로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들이 눈 아래에 펼쳐지고 있었다. 오전 9시 30분경에 환경친화 도시로 알려진 쿠리티바 공항에 착륙한 뒤 공항 터미널 입구로 이동하여 경유지 승객들이 탑승할 때까지 기내에서 기다렸다.

오전 10시 30분경에 공항 터미널을 출발하여 이륙한 뒤 얼마가 지나서 기내식으로 햄버그와 주스가 나왔다. 중간에서 대거 탑승한 중국인들이 소란스럽게 얘기를 주고받으며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다.

목적지 공항에 다가오자 창 밖의 왼쪽에 물안개가 구름처럼 솟구치고 있는 광경이 목격되었다. 이과수 폭포일 것이라는 예측을 직감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웅장함을 보이고 있었다. 오전 11시 15분에 이과수공항에 착륙하여 공항터미널로 이동한 뒤, 입국수속을 마치고 버스로 숙소인 호텔(Falls Galli Hotel)로 출발하였다.

공항에서 현지 가이드인 김재옥 실장이 승차하여 호텔로 가는 도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들여주었다.

브라질에는 3有 3無가 있다고 한다. 3유는 축구(모든 국민이 광적으로 좋아하며 17회 개최된 월드컵의 전 대회에 참가하여 5번 우승했다는 대기록을 수립 중이다. 참고로 독일과 이태리가 15회 출전 중), 삼바 춤(인플레이션이 극심하여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도록 정부가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 최고 \$7,000만 짜리의 복권(빈부차가 심한 사회적 정서를 반영하고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세금 공제 후 일시불로 지불)이 있다는 것이다.

3무는 지진, 전쟁, 인종차별(북쪽에는 흑인, 남쪽에는 백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거의 인디오 피를 잊고 있음)이 없다는 것이다. 브라질 사회에서 일본인(1908년부터 이민)은 보증수표로 통하며, 우리나라 사람(1963년부터 이민)도 이 덕을 보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2002월드컵 이후 크게 덕을 보고 있다고 한다.

정오 12시 30분경에 호텔에 도착하여 입실 후 옷을 갈아입고 버스에 승차한 뒤 중식을 위해 식당(본인이 원하는 고기를 원하는 만큼 썰어 와서 구워먹는 바베큐 요리전문 식당)으로

출발하였다. 아르헨티나 육고기의 질은 남미에서 최고급이며, 브라질은 질은 떨어지거나 요리에서는 최고라고 한다. 브라질의 한국 교민 수는 공식으로 약 8만 명, 비공식으로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가이드 본인은 1977년에 파라과이로 이민 왔다가 그곳에서 브라질로 재이민(이민 22년째)하여 와 있다고 했다.

현재 파라과이에는 한국 이민자가 약 8천명 정도 있는데, 영주권 취득이 남미 다른 어느 나라보다 쉽다고(매수도 가능) 한다. 파라과이의 국민들은 이태리 계통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래 남미에서 최대의 국토면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1868년 브라질과의 전쟁에 패한 뒤 국민의 60%나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이 때 많은 땅을 브라질에게 빼앗기는 바람에 브라질이 가장 넓은 땅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다음이 우루과이라고 한다.

오후 1시 20분경 식당(Ratain Show)에 도착하여 식당 안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갔다. 식당의 규모가 할인매장과 같이 넓게 트여 있었고 자신이 직접 원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때 까지 가지고 와서 먹도록 되어 있었다. 양만큼이나 맛도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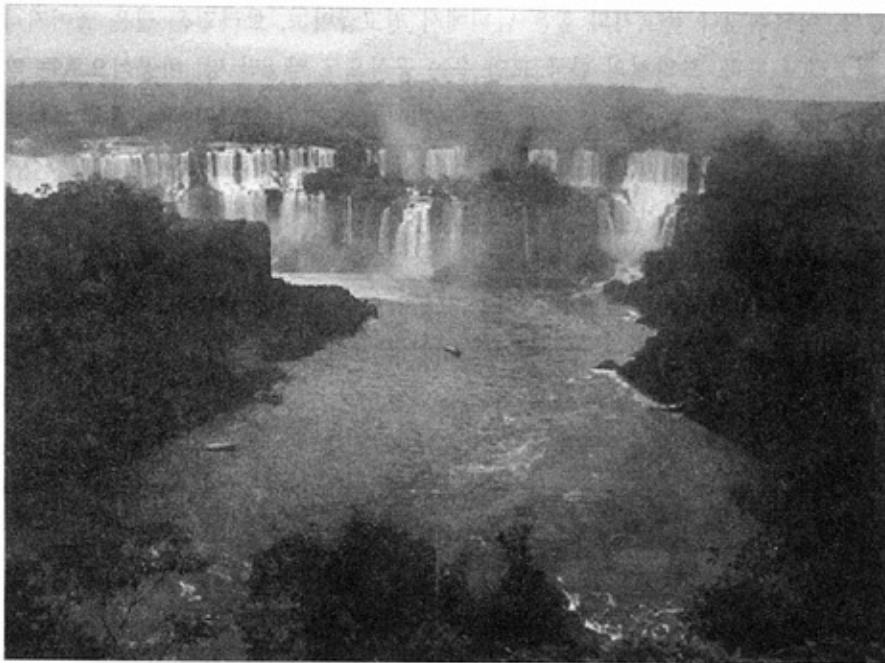
식사를 마친 후 버스에 승차하여 이과수 국립공원으로 출발하면서 브라질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들을 가이드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

브라질의 국토면적은 우리나라 남북한의 38배, 남한의 88배이며 세계에서 5번째로 넓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가용면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이다. 1인당 한 끼에 170g의 음식이 남을 정도로 음식물이 풍부한 나라로서, 국민성의 장점은 착하고 친절하며, 약자에게는 약한 반면 강자에게는 강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단점은 다혈질적이라는 점이다. 치안률은 50% 정도인데, 치안률만 높이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며, 남미의 어느 나라처럼 반미감정 또한 강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한다.

파라나(Parana)주에 속한 이과수(Iguassu) 국립공원에 도착하여 입장권을 구입한 뒤 공원 안으로 들어가서 국립공원 내에서 운행 중인 전용버스에 승차하였다. 이과수폭포는 약 2만 년 전에 지각변동으로 생긴 폭포로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및 파라과이의 3국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1542년에 “산타마리아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처음 발견하였고, 이과수의 이름은 원주민인 인디오들이 폭포를 부르던 호칭에서 유래하였는데, 인디오 말로 이구아수란 “큰물(이구 : 큰물, 아수 : 엄청 많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 뒤 1916년 브라질의 비행기 발명가인 산토스 두몽이 자신이 직접 제작한 경비행기로 이과수 강을 비행하다 폭포를 발견하였고, 이를 계기로 1939년에 이과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연중 관광객 수는 약 250만 명으로 집계될 정도로 인기있는 관광지로 되어 있다. 폭포의 개수는 275개로 아르헨티나 쪽에 271개, 브라질 쪽에 4개가 있어 브라질 쪽에서 보면 이과수폭포의 85%를 볼 수 있는 셈이 된다. 폭포의 총길이는 5km, 평균 낙차는 45~85m로 나이아가



〈그림 9〉 브라질 쪽에서 바라본 이과수폭포

라 폭포의 4배다. 공원의 대부분은 미개발의 밀림, 계곡, 폭포 등이 한데 어우러져 남미에서 몇 안 되는 자연 보존지대에 속하며, 파라나 주에서도 보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관광지이다. 참고로 영화 “미션”은 이과수폭포를 배경으로 촬영되었다고 한다.

오후 3시 5분경에 이과수폭포 전망대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하차하였다. 사진 및 비디오 촬영과 함께 폭포주변의 보도를 따라 가면서 육상관광을 했다. 상류 쪽에 물보라가 극심하여 가이드가 제공한 비옷을 입고 간신히 비디오 및 사진 촬영을 하였다. 조금 위쪽에 위치한 전망대에는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서 물보라가 심한 폭포의 상류 쪽을 관람하였다.

오후 4시 20분에 육상관광을 마치고 버스로 이동하여 무공해 배터리 자동차로 환승한 뒤 자연공원 안으로 사파리 관광을 하였다. 사파리 관광을 마치자마자 선창으로 이동하여 나누어 주는 우의를 착용하고 보트에 탑승, 1,350km나 되는 이과수 강의 선상관광이 시작되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물보라가 치솟는 폭포 아래까지 한 바퀴 돌아 나오면서 쾌속 보트의 스피드를 즐기면서 모처럼 시원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오후 5시 45분경 선착장으로 되돌아 와서 젖은 양말과 옷을 갈아입고 사파리 차를 타고 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숙박지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가이드가 엘도라도라는 고기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다. 엘도라도의 “도라도”란 황금이라는 뜻으로 남미에서 유명한 황금빛 물고기라고 한다. 11월에서 2월 사이에 산란기를 맞이하는데 이 기

간에는 낚시가 금지된다.

오후 6시 50분에 호텔에 도착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버스에 승차하여 식당으로 출발하였다. 중국식당에서 석식을 가진 뒤 三國 쇼(파라과이의 민속춤, 아르헨티나의 탱고, 브라질의 바이야 춤, 일명 삼바춤)를 보려간다고 한다. 쇼 극장에 도착하여 약 1시간 45분 동안 화려하면서도 격이 있는 세 나라의 전통 쇼를 관람한 뒤, 늦은 11시 20분경에 호텔로 돌아왔다.

여덟째 날 : “악마의 목구멍”에서 세계 3대 미항인 “리오”로(7. 26, 금요일, 흐림)

5시 30분에 기상하여 호텔내에서 간단하게 조식을 마치고 아침 7시 25분경에 버스에 승차하였다. 아르헨티나 쪽 이과수폭포 관광을 위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모 선물가게에서 잠시 정차하여 큰 짐을 맡겼다. 아르헨티나 국경 통과시 짐 검사가 까다롭다고 해서 취해진 조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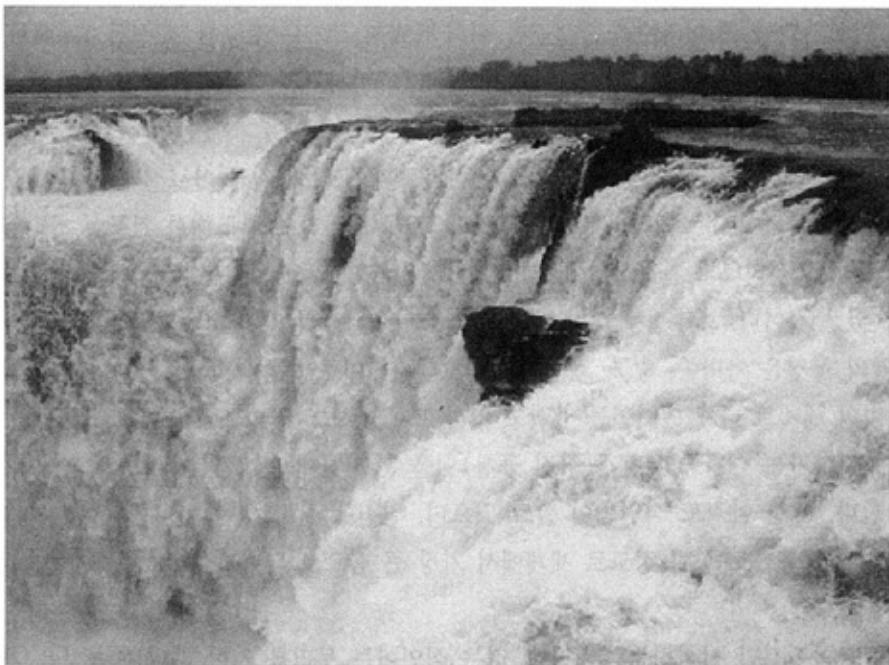
아르헨티나 쪽 국경검문소에 도착한 후 검문을 마치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 국경다리를 통과하여 아르헨티나로 진입하였다. 소문대로 관광객에 대한 검문이 까다로웠는데, 이것은 아르헨티나가 관광산업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브라질에 대한 가이드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계속되었다.

브라질의 특징은 아마존, 축구, 삼바 춤, 리オ데자네이로를 통상적으로 꼽고 있다. 아마존에는 신비의 세계로 나체 인디언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브라질의 모 기자가 보름 동안 찾아 헤맸으나 지나가는 나체족만 발견(사진 공개)했을 뿐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아직도 식인종이 살고 있으며, 밀림에 살고 있는 아나콘다(수꾸리)라는 뱀은 멧돼지를 통째로 삼킬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뱀으로 길이가 14m, 무게가 약 100kg이나 나간다.

아마존 북쪽에서만 서식하는 “피라냐”라는 식인어는 무리를 지어 다니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25분이면 황소 1마리를 빼만 남기고 먹어치울 정도인데, 회 간으로도 일품이라고 한다. 이러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로서 인식하여 1968년에 UNESCO에서 보존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삼바(카니발)축제의 유래는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아프리카 포로 및 이민자들이 심심풀이로 시작한 것에서 부터였다고 전한다. 지금은 세계적인 축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모든 시민들이 클럽형태로 참가한다. 매월 2월 중에 열리는 이 행사의 부작용 중에 하나는 그 해 12월에 사생아 출산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거의 일을 하지 않으며 엄청난 비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한 두 해만 이 행사를 하지 않으면 많은 외채를 갚을 정도라고 한다.

오전 8시 40분경에 아르헨티나 쪽의 이과수국립공원(Parque Nacional Iguazu) 입구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공원 안으로 들어가 전용 협궤열차에 승차하여 약 10분간 이동한 후 종착역에서 하차하였다. 악마의 목구멍까지 편도 약 1.1km를 도보로 관광하였는데, 악마의 목구멍까지는 주로 나무로 만든 다리와 보도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악마의 목구멍이란 예전에 인디언들이 폭포(목구멍) 직전까지 완만하고 대체로 잔잔한 강물을 따라 배를 타고 내려오다 갑자기 강 밑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불러진 이름이라 한다. 이름만큼이나 규모도 크고 모양도 목구멍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소리 또한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지반이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수량(水量)을 흡입하듯이 쏟아 내리고 있었다.



〈그림 10〉 악마의 목구멍

가장 가까운 곳에 전망대가 있어 기념촬영을 했다.

구경을 마치고 협궤열차 편으로 공원 입구 쪽 종착역까지 나와서 다시 버스를 타고 식당으로 향했다.

현지 가이드의 설명이 계속되었다. 브라질에서 커피가 많이 생산(수출은 전 세계의 44% 차지)되는 이유는 기후조건이 커피재배에 최적이라 한다. 또한 브라질 여성의 곡선미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곡선미는 많은 혼혈을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브라질은 혼혈이 많은 나라로서도 유명하다.

정오 12시경 식당(D' La mamma, Galeteria)에 도착하여 중식을 먹었다. 식사 중에 악사들이 테이블을 돌면서 팝송 연주를 해주면서 그들이 제작한 CD를 판매하고 있었다. 식사를 끝내고 오전에 짐을 맡겼던 토산품 가게 앞에서 버스에 짐을 옮겨 실는 동안 간단한 쇼핑을 하였으며, 출발 후 오후 2시 30분경에 이과수 공항에 도착한 뒤 오후 4시 20분경에 Varig 항공 편으로 리오 데 자네이로로 향했다. 이륙한지 1시간 20분이 지난 오후 5시 40분경에 상파울루(São Paulo) 공항에 착륙하였으나 기내에서 대기한 뒤, 오후 6시 30분경에 상파울루 공항을 이륙하여 오후 7시 15분경에 리오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 공항에 드디어 착륙하였다.

공항 출구 쪽에 현지 가이드인 박병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식당으로 가는 버스 속에서 자신의 소개를 마친 뒤 관광 안내를 하였다.

리오 데 자네이로는 1763년에서 1960년까지 브라질의 수도(지금은 브라질리아)로 연평균 기온은 23~24 정도가 되며, 세계 3대 미항의 하나로서 “리오”란 큰 강, “데 자네이로”란 1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스페인 탐험대가 1월에 이 강을 발견한데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는데, 원래는 “히오 데 자네이로”였으며 면적은 서울시의 2배 정도가 되지만 인구는 600만 명만 거주하고 있다.

인구 1,000만 명을 자랑하는 상파울루 다음으로 큰 도시로 현재 한국 교포는 약 40세대(200명 미만) 정도이며, 브라질에 거주하는 교포의 90%에 해당한다. 교포들 중에는 교회파와 골프파로 나뉜다고 하는데, 교회파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공짜로 얻어먹고 반찬값만 낸다고 한다.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이지만 30%가 극빈자로서 빈부 격차가 심한 도시로 연간 5,000명이 20세 전에 사망하는 좋지 않은 사회 환경을 가진 양면성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빈민가에서 태어나면 빈민가에서 죽어야 할 정도로 기득권층의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축구의 도시답게 마라카낭 축구장은 50년 전에 월드컵을 위해서 건설되었으며 세계 최대의 축구장이다. 프로축구팀은 약 800개나 되며 1부에서 5부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리오에서만 유명한 팀이 4개나 있다고 한다. 1개 팀은 4~500명 정도로 구성되나 리오 팀은 5,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나우두가 속해 있었던 플라멩고 축구팀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리오는 최우수 축구선수를 많이 배출시키는 축구의 도시이다.

한국인의 브라질 이민사를 보면, 1925년에 6명이 브라질에 도착했는데 이들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일본인으로 들어왔었으며, 그 뒤 1956년에 인도에 갔던 56명의 반공포로가 브라질에 들어왔다고 전한다. 본격적인 이민은 1962년 12월에 들어온 1차 농업이민이었는데, 한국인 신분으로는 이 때가 처음이라고 한다. 농업 이민자들은 6~70년대에 들어서서 봉제업으로 전

환하기 시작했다.

브라질 사람은 인심이 좋고 정이 많으며 착하다고 한다.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는 것은 “좋다”는 뜻이며, 미의 기준은 “눈이 찌어진 사람”을 미인으로 보고 있듯이 사뭇 우리와는 다른 미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오후 8시 30분경에 중국식당(中國餐館)에서 중식을 끝내고 버스에 승차하여 호텔(Windsor Hotel 계열의 Miramar Palace Hotel)에 도착한 뒤 체크인 수속과 함께 방 배정을 받아 투숙했다.

아홉째 날 : 브라질 월드컵 축구장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며(7. 27, 토요일, 맑음)

아침 7시경에 조식을 마치고, 코파카바나(Copacabana) 해변으로 잠시 산책한 뒤 오전 7시 45분에 체크아웃 후 버스로 호텔을 나왔다. 브라질의 인구는 1억 7천만 명으로 세계 제5위이며, 52%가 순수 백인(포르투갈계, 스페인계)인데, 1580~1640년 동안(이 시기는 포르투갈이 세계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음) 스페인에 의한 통치 때 스페인 계열이 많이 들어 왔다.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1년에 500명 정도씩 독일계의 백인이 많이 유입되었는데, 현재는 흑인이 12%, 아시아계가 2%, 브라질 혼혈(백인과 흑인, 백인과 인디오)이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흑인과 백인의 1:1 혼혈을 “불랏따”여인이라 부른다고 한다.

2대가 주로 찾으며 조깅 코스로로도 유명한 “이판네마 비치”에는 토플레스(상체만의 누드욕)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약 100명 정도가 완전누드를 주장하며 데모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판네마란, “인디오가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짜증을 낸다”는 “짜증나는 놈”이라는 뜻이다.

1500년 4월 20일 포르투갈에서 대서양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향해 브라질에 상륙했는데, 그 당시 400만 명이나 되는 원주민들이 나체로 살고 있었다. 그 중에서 2명을 데리고 포르투갈에 갔는데 2개월만에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포르투갈은 브라질 땅을 바로 점령하여 식민지화시키지 않고 먼저 약 30년 동안 정밀조사만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 브라질나무(빨강 색 염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들어온 프랑스인들이 먼저 이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1532년에 포르투갈군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프랑스인들을 퇴출시키고 브라질을 식민지로 예속시킨 것이다.

오전 8시 50분경에 슈퍼마켓에 도착하여 잠시 하차한 뒤 커피를 구입하고 나서 리오의 시내관광에 들어갔다. 축구명문인 플라멩고팀 소속의 건물을 지나면서 브라질 축구에 대한 가이드의 설명이 시작되었다.

브라질에는 프로선수가 약 2만명이 있으며, 800개의 프로팀이 결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2천명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60~70년대 축구영웅인 펠레(64세, 현 비아그라 광고

(출연)도 여기 출신으로 브라질의 체육부장관도 역임했으며, 연예인 활동을 하는 등 다방면에서 재능을 보이고 있다. 누구든 5분 이상 대화를 하면 친숙해 질 정도로 친화력이 뛰어나며, 동시에 겸손하다고 한다. 가난한 구둣방 아들로 태어나 학교에도 다니지 못했으며 선천적인 근시인 데에도 불구하고 감각적인 축구를 개발하여 눈으로 하는 축구에서 탈피하는데 성공한 축구선수였다. 은퇴할 때까지 총 3,162게임을 소화해 내었으며 2,982골을 넣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 어학에도 재능을 보여 검정고시를 통과하여 영어를 잘 구사할 정도이다.



〈그림 11〉 월드컵 경기장

축구의 구 영웅인 펠레에 비하여 신 영웅으로 불리는 호나우두는 14세 때 플라멩고 축구학교를 졸업하였는데, 빈민가에서 20km나 떨어져 있는 축구학교까지 뛰어서 다녔다고 한다. 처음에는 최하위 팀인 “선크리스토”팀 소속이었는데 브라질의 대표적인 축구선수 출신의 프로모터인 “자르징요(Jairzinho)”의 눈에 띠어 \$10,000에 데리고 와서 브라질 1부 리그의 고루제이로(Cruzeiro Belo Horizonte) 팀에 \$80,000에 넘겼다고 한다. 이 팀에서 52게임에 54골을 기록하였고 결국 이 팀을 우승으로 끌어 올려놓았다. 그 뒤 350만 불로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PSV Eindhoven)”팀에 이적하였으며, 이어서 1,800만 불에 스페인 프로구단인 “F.C. Barcelona”에 입단하였고 최근에는 2,700만 불에 인터밀란 팀으로 이적하였다. 호나우두는 밀레니와 결혼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명문대 출신이자 명문가 출신인 만능의 노랑 머리 인형 같은 스잔나와 결혼을 약속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빈민가 출신에 학력이 “無”

이며 광고모델이었던 그녀의 친구인 “스잔나”를 만나는 바람에 1주일만에 약혼을 하고 그 뒤에 결혼을 했다고 한다. 그녀의 장모도 호나우두를 계속 따라 다니면서 사위를 감시하고 있을 정도로 열성적인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 일행은 오전 9시 50분경에 월드컵 축구장에 도착하였다. 입구 쪽에 “소년의 꿈”이라는 축구선수의 동상이 있었는데, 이 동상은 빈민가 출신 축구선수들의 꿈을 키워주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한다. 축구장 현관 입구에는 역대 유명 축구선수들의 발을 각인한 곳이 있었는데 자신의 발을 끼워서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축구장 안으로 들어가 파랑 색 그라운드가 내려다 보이는 스탠드에서 축구장 내부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마침 다른 한쪽 스탠드에서 브라질 사람들이 자신들끼리 응원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이것을 본 우리 일행도 다른 쪽 스탠드에 앉아서 “대한민국”을 외쳤는데, 이 장면을 보고 놀라면서 우리들을 따라서 “대한민국”的 구호를 외치는 것이다. 스탠드를 빠져 나오는 출구에서 대한민국을 외쳤던 브라질의 한 꼬마(한국에 대한 열성 팬)가 우리들을 보고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기념사진도 함께 찍고 빠져 나오는데 출구까지 같이 따라 나왔다.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잘 알 수 있었던 광경이었다.

오전 10시 15분 버스에 승차하여 축구장을 빠져 나오는데 그 꼬마가 버스를 쫓아오면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소리에 버스를 일시 정지시키고 심상천 교수가 공항에서 사은품으로 받았던 붉은 악마의 티셔츠(Be the Reds)를 전달해 주었다. 티셔츠를 받은 꼬마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 같았다. 버스는 다시 출발하였고 가이드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계속되었다.

브라질의 카니발은 중세시대의 4순절(예수님의 고행)이전의 3~4일 동안 친구나 식구들끼리 모여서 고기와 술을 나누어 먹으며 놀던 행사로 그 이후에 고행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카니발(사육제)이 끝나면 12~13세의 미혼모들이 늘어나 콘돔사용과 성적인 자제를 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후 산바드, 카니발(카니발 축제의 출발 지점)에 도착하였는데 가이드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여기서 약 5,000명이 대기하면서 하루에 7개 팀씩 입장하는데, 500명씩 단위를 끊어서 진행한다고 한다. 3번째 팀이 입장하면서 홍이 나기 시작하는데 5번째 팀부터는 옷을 벗기 시작하여 7번째 팀부터는 팬티까지 내린다. 따라서 7~9번째 좌석이 입장료가 제일 비싸다(\$200)고 한다.

우리가 가는 곳 중의 하나인 “방제아 슈가로프” 돌산은 지구가 탄생한 이후 변하지 않고 있는 곳으로 약 5억년 전에 형성된 바위산이다. 모양이 “바우데아스 콩” 모양을 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3번째로 건설된 케이블카가 있다.

브라질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무학력자가 49%나 되며 35%가 신문을 읽지 못한다. 1929~1985년의 군정시대에 무민화정책이 실시되어 국립학교는 고등학교까지 무료인데 수석졸업자라도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는 학력저하를 가져왔다고 한다. 사립학교는 머리가 좋고 상류층인 사람들의 자제가 주로 다니는데 등록금이 비싸 명문사립학교인 경우 1년 등록금이 \$800~900이나 된다. 명문 사립중학교 1학년의 학력은 국립 중학교 3학년 수준이며, 국립학교 선생님들의 학력수준도 테스트 결과 70점 이상이 27%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브라질은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브라질은 1532년에 식민지가 되면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사탕수수와 포경업에 종사하면서 인디오를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다. 노예가 된 인디오들은 혹한 노동에 적응하지 못하여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는 바람에 인디오들은 노예로서 값어치가 땅에 떨어져 모잠비크 등의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수입하게 된다. 이 시대의 인디오 학살을 주제로 만든 영화가 바로 “미션”이다. 당시 흑인 노예들을 먹이기 위해 개발된 음식이 “렛조아”라는 탕 형식의 음식인데, 이 음식은 식당에서 먹어보았다.

람바다 춤은 흑인 노예가 편한 일을 맡기 위해서 주인을 유혹하던 동작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며, 삼바 춤은 종교의식의 일종으로 가운데에 있는 모닥불 주위로 앉아서, “삼바”라는 소리와 함께 손바닥을 치면서 자리를 바꾸어 가며 놀던 놀이라고 한다.



〈그림 12〉 슈가로프 돌산에서 내려다 본 리오데자네이로의 전경

오전 10시 45분경에 슈가로프 돌산 케이블카 정류장에 도착하였다. 케이블카를 타고 돌산을 오가면서 리오의 산과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비디오와 카메라에 담았다.

슈가로프 돌산 관광을 마치고 버스에 승차하여 식당으로 출발하였다. 토플리노 해변을 지나 12시 15분경 식당(Carretão)에 도착하였다. 브라질 요리로 중식을 실컷 먹은 뒤 버스를 타고 세계 최대의 보석회사로 향해 출발하였다. 현지 가이드의 안내가 이어졌다.

브라질의 의료시스템은 진료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의사는 외출 중에도 항상 환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운을 입고 있어야 할 정도라고 한다.

철강과 우라늄의 매장량은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철강 생산량의 35%는 우리나라 포철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따라서 포철사장은 브라질의 국빈대접(대통령 전용기 사용)을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포철에서는 프로축구 구단 2개를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브라질 축구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지코가 운영하고 있는 축구학교에는 우리나라 꿈나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3년차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

대졸자는 범법자라도 고급인력으로 취급하여 별도의 감옥에 수용하고 있는데, 감옥이 언덕 위에 하얀 집으로 풀장과 도서관 등이 준비되어 있어 항상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인이 와서 함께 잠을 자고 갈 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고졸 범법자는 감옥이 많아서 10명 수용인원을 2교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감옥이 비좁아서 서로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의 9%만 대졸자 출신인데 졸업이 쉽지 않기 때문(졸업률이 50% 미만, 낙제제도 철저)이다. 명문 유치원, 명문 사립초등학교가 있어 학교평준화는 없다. 브라질의 대학교수는 “Master”라 부르며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며, 일반 선생은 “Professor”라고 부른다.

매년 인플레가 심해서 돈은 물건 구매 등으로 가능한 빨리 소비해야 한다. 무학자들의 꿈은 첫째 아파트 수위와 식당종업원이라고 한다. 아파트 수위는 평생직이 보장되며 봉급차이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서민들은 이러한 즐거움이 없는데, 그 대신 내가 좋아하는 축구프로팀이 이겨주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라 한다.

시내에 위치한 100평 아파트의 시가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만원 정도이며, 1시간 정도 근교로 나가서 농장이 딸린 집은 2천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한다.

오후 1시 30분경 세계최대의 보석회사인 “H. Stern”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하차, 보석회사 안으로 안내되어 보석가공 작업현장의 견학과 비디오 자료의 시청을 끝마친 후, 구내 쇼핑센터에 들어가서 쇼핑을 했다. 관람 및 쇼핑을 끝내고 버스에 승차하면서 이야기는 이어졌다.

브라질의 성장문화 및 퇴보의 원인은 6~70년대에 차관으로 거대한 국책사업(수력발전소 건설, 수도이전, 정글내 고속도로 공사, 세계 최장의 다리 건설 등)을 지나치게 확장한 탓이

다. 그때 마침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1,2차 오일쇼크로 말미암아 경제침체기에 돌입하게 된 것이 주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브라질을 식민지화시켰던 포르투갈은 나폴레옹이 리스본까지 쳐들어와 함락시키는 바람에 1788년 포르투갈 왕정이 무너지면서 1807년 12월에 그 왕족들 1,500명이 브라질로 피난을 오게 된다. 이후에 브라질 내에 왕족파와 브라질파가 형성되면서 정치적인 갈등이 조장되었다. 당시 브라질 식민통치를 책임지고 있던 국왕인 “주앙 6세”가 프랑스와의 전쟁에 따른 후유증으로 1821년 포르투갈로 일시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바람에 그의 아들인 둠 페드루 황태자에게 브라질의 통치를 맡겼는데, 1년 뒤인 1822년 7월 1일에 상파울루에서 브라질의 독립을 선언하고 스스로 페드루 1세라 칭했다⁸⁾.

그러나 페드루 1세는 36세의 젊은 나이에 급성폐렴에 걸려 자리에 누운지 3일 만에 급사하였고, 따라서 그의 11세 아들인 “페드루 2세”에게 왕위가 위양되었으나 나이가 어려 섭정이 시작되었다.

1863년에는 파라과이의 로페즈가 브라질을 공격해 왔으며 1863~1870까지는 파라과이와의 7년전쟁을 치렀다. 1888년에는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으나, 대지주와 지방의 세력가 등으로 이루어진 계급집단인 ‘콜로네레스’가 이에 불만을 품고 이듬해인 1889년 무혈반란을 일으켜 왕제를 폐지하고 공화정권을 세웠다. 따라서 브라질의 역사는 식민지에서 왕정으로, 다시 공화국으로 진행된 역사이다.

예수재림상은 1926~1931년까지 제작한 동상으로 무게가 1,145톤(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이며, 높이가 38m(성당까지 예수상만 30m)나 된다. 팔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으며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축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한다. 경사가 35°쯤 되는 동산을 20분 정도의 전동차로 등산하여 관람하도록 되어 있다. 이 예수동산의 위치는 우리나라의 팔각정과 같은 위치이다. 성금 \$40만에 시비로 제작된 것이다.

리오의 시내에는 터널이 약 60개나 있을 정도로 전체가 암반의 지질로 구성되어 있다.

오후 3시 15분에 예수동산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역 주차장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하차하였다. 탑승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바람에 승차권을 구입하고도 1시간 30분이나 기다려야 했다. 4시 40분경에 전동차 정류장을 출발하여 예수동산의 정상에 있는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5시 20분이 지났다. 곧 어두움이 깔리기 시작할 것 같아서 서둘러서 동상 쪽으로

8) 페드루 1세는 흑인유모에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스페인에 휴양간 사이에 노예를 해방 시켰다고도 전해진다. 그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모두 사망하고 딸만 2명 남았다. 그 중에 큰딸인 “이사벨”에게 뒤에 통치권을 맡기게 되는데, 화려한 파티를 치루고 1주일 후에 멀망하게 된다.

1889년 12월 15일에 백지 각서에 사인을 함으로써 왕정이 회수되고 포르투갈로 귀양을 가게 된다.

이동하여 예수상의 사진 촬영과 함께 아름다운 시내야경을 구경하면서 사진에 담았다. 관광을 서둘러 마쳤지만 하산을 위한 탑승객들이 줄지어 서 있는 바람에 1시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렸다.

오후 6시 40분이 지나서나 순서가 돌아와 전동차에 승차할 수 있었다. 비행기 탑승시간이 촉박하여 전동차 하차역에서 내리자마자 쫓기듯이 서둘러서 버스에 승차하여 공항으로 출발하였다. 리오데자네이로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수속을 밟는 가운데 초밥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떼우고 출국 게이트에서 대기하였다. 오후 9시 50분 출발예정인 VARIG RG 8836기종이 RG5836기종(소형)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상파울루로 가서 RG 8836기종으로 갈아타게 되었다. 계약위반이라 승무원에게 항의도 하였지만, 예정보다 1시간 40분이나 지체된 밤 12시가 지나는 시각에 Varig Brazil에 탑승하여 리오데자네이로 공항을 이륙하였다.

열째 날 : 리오데자네이로를 떠나며(7. 28, 일요일, 맑음)

비행기에서 날짜가 바뀌면서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다. 오전 0시 10분경 리오데자네이로 공항을 출발한 Varig Brazil 항공기는 새벽 1시경에 상파울루 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공항 터미널 대합실에서 약 1시간 정도 대기하였다가 새벽 2시 30분경에 다시 LA행 항공기로 바꿔 타고 상파울루 공항을 떠났다.

오전 8시 10분에 기내식으로 아침식사를 마치고, 오전 10시경에 LA 국제공항에 착륙하였다. 터미널에 도착하여 환승 수속을 마치고 잠시 기다린 뒤 오후 1시경에 대한항공편으로 LA공항을 이륙하였다. 29일(토) 오후 4시 25분경에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므로 약 1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오후 1시 50분경에 중식으로 기내식사가 나왔다. 육식에 질린 탓인지 오랜만에 먹은 비빔밥의 맛은 일품이었으며, 특히 함께 나온 미역국은 정말 시원하고 맛있었다. 대한항공을 타고 오면서 우리나라 항공기의 IT화에 새삼 놀랐다. 개개인의 등받이에 음악방송과 TV방송 등의 채널을 리모콘으로 편리하게 통제할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오후 7시 5분에 날짜 변경선(Date Line)을 통과하면서 시계를 16시간의 시차를 더하여 고쳤다.

열하루 째 마지막 날 : 학술답사를 마치며(7. 29, 월요일, 맑음)

오전 11시가 지나자 기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서 “오후 4시 25분경 인천국제공항 도착 예정”이라는 안내 자막이 표시되었다. 곧 이어 오후 12시 30분에 기내 중식이 나왔다.

지루한 탑승시간과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고국이 가까워지면서 일행은 서로 피로한 기색을 뒤로한 채 밝은 표정으로 얘기를 주고 받으며, 기지개도 펴고 복도에서 몸을 풀기도 하였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이다. 모두들 강행군의 여행 스케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탈없이 무사히 여정을 마칠 수 있었다는 안도감으로 그 동안의 긴장을 풀면서 학술답사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듯 했다.

인천국제공항 상공에서 내려다 본 녹색의 산과 들, 그리고 밭으로 어우러진 우리나라 강산은 정말 축복받은 땅이 아닐 수 없다. 페루의 그 삭막한 산과 들을 상기해 보면 우리나라의 산과 들은 글자그대로 금수강산이다.

이과수폭포가 쏟아 내리는 폭포수만큼이나 풍부한 수자원과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수목만큼이나 광활한 숲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4,500만 우리들이 큰 불편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우리의 금수강산! 정성껏 잘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이번 학술팀사 지역은 다른 그 어느 때 학술팀사 지역보다 쉽사리 가기 힘든 고산지대였으며, 일정 또한 길고 타이트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행 환경에서도 무사히 학술팀사를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일행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끝으로 다시 한 번 우리 한국경영사학회의 발전을 기원해 본다.

참 고 문 헌

*Photographic Guide To : Cusco And Machupicchu.
Cusco and the Sacred Valley of the Incas, Cusco-Peru, 2002*

참고 사이트

- <http://www.sre.gob.mx/corea/cormexico.htm>
- <http://www.mofat.go.kr/mission/emb/ww-info-view.mof>
- <http://www.mexicotourkanco.com/doc/info07.htm>
- <http://www.ecmd.co.kr/webzine/total-main14.htm>
- <http://www.sportsnine.com/health/health/wine/contents.html>
- <http://www.orio.net/story/mexico.html>
- <http://www.mexicotourkanco.com/doc/info03.htm>
- <http://dragon.taejon.ac.kr/~tu41505/se-26.html>
- <http://my.netian.com/~quetzal/Pais/mexico.htm>
- <http://www.crystalinks.com/mexico.html>
- <http://www.crystalinks.com/pyrsun-moon.html>

<http://archaeology.la.asu.edu/teo/>
<http://hometown.weppy.com/~onlygj/manintro-rivera.html>
<http://www.diegorivera.com/>
<http://www.artchive.com/artchive/K/kahlo.html>
<http://hometown.weppy.com/~onlygj/manintro-sequeiros.html>
<http://www.mexconnect.com/mex-/history/jtuck/jtsiqueiros.html>
<http://hometown.weppy.com/~onlygj/manintro-orozco.html>
<http://www.mexconnect.com/mex-/history/jtuck/jtorozco.html>

방송자료

NHK 방송 특집자료：“世界七不可思議の旅”

제12회 한국경영사학회 국제학술심포지엄 및 해외학술탐사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Academic Research & Travelog on Australia and New Zealand

유성기*

目 次

I. 학술탐사의 개요	II. 학술심포지엄
1. 학술탐사 목적	III. 학술탐사활동
2. 학술탐사 지역	1. 오스트레일리아
3. 학술탐사 기간	2. 뉴질랜드
4. 학술탐사단 구성	참고문헌
5. 학술탐사 후원기관	학술탐사활동 약사

I. 학술탐사의 개요

1. 학술탐사의 목적

한국경영사학회는 2003년 해외학술탐사 활동의 하나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선정하여 국제학술심포지엄과 학술탐사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 1) 남태평양지역 중 호주와 뉴질랜드의 문화적 특성과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유학생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 2)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경제적 발달과정과 교역현황을 살펴봄으로서 국토는 넓고 인구가 적은 이들 지역과의 경제적 교역증진을 위한 경영사적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 3) 호주와 뉴질랜드에 진출한 한국기업 또는 교민기업의 현황과 경영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진출할 기업에 도움이 되게 한다.
- 4) 호주와 뉴질랜드가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어떻게 보호하고 보전하는 가를 살펴보고 이를 국민계도와 후진지도에 활용한다.

* 주미 교수

5) 선진 축산업의 실태를 살펴보고 낙농제품의 수입이 우리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아울러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학술탐사 지역

- 1) 호주-시드니,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 2) 뉴질랜드-(남섬)크라이스트처치, 퀸스타운, 밀포드사운드 (북섬)오클랜드, 와이토모, 로토루아

3. 학술탐사 기간

2003년 7월 8일(화요일)부터 7월 18일(금요일)까지.

4. 학술탐사단 구성

단 장 : 이승욱 교수(한국경영사학회 회장)
총 무 : 박현희 교수(한국경영사학회 사무차장)
기 록 : 유성기 교수(한국경영사학회 상임이사)
 송동섭 교수(한국경영사학회 이사)
촬 영 : 김태명 교수(한국경영사학회 상임이사)

〈학술 탐사 단원〉

고광한 교수(안양대)	김성수 교수(경희대)
김 신 교수(경희대)	김세영 교수(단국대)
김영래 교수(충북대)	김정식 교수(조선대)
김희중 교수(호남대)	민승기 교수(성균관대)
문원석 교수(제주대)	박광서 교수(순천향대)
신장철 교수(승실대)	안종태 교수(강원대)
오성동 교수(조선대)	유세준 교수(인천대)
이건희 교수(이화여대)	이광로 교수(건국대)
이광종 교수(신흥대)	이광주 교수(단국대)
이남구 교수(건국대)	이문선 교수(한양대)
이승영 교수(동국대)	이훈섭 교수(경기대)
조수종 교수(충북대)	전 형 교수(단국대)
최원철 교수(제주대)	홍부길 교수(이화여대)

5. 학술탐사 후원기관

보령그룹(2003년 한국 경영사학회 선정 창업대상 수상 기업)

II. 학술 심포지엄

The 12th Overseas Academic Research a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Business History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Date : July 9, 2003

Place : Avillion Hotel, Banquet Room
Sydney, Australia

Opening Address : Prof. Seung Wook LEE, (KABH President)

Chairperson : Prof. Kun Hee LEE(Ewha Womans Univ.)

Session I : A study on Boryung Group

Topic 1 : Prof. Kwang Sur PARK(Soonchunhyang Univ.)

A Study on the Life and Management Philosophy of
Seung Ho KIM, Chairman of Boryung Group.

Session II : A Study on Business History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Topic 1 : Prof. Shin KIM(Kyunghee Univ.)

A Study on the History of South Pacific Entry

Topic 2 : Prof. Seong Suhn KIM(Dankook Univ.)

The Trend and Prospect about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Australia

Topic 3 : Prof. Jong Tae AHN(Kangwon National Univ.)

Changing Pattern of Industrial Relation Systems of Australia

General Discussants : All Participants

III. 학술 탐사 활동

금년도 해외학술탐사 및 국제학술심포지엄은 호주와 뉴질랜드로 정하여 2003년 7월 8일부터 18일까지 한국경영사학회 해외 학술탐사단 32명의 교수들과 함께 호주와 뉴질랜드 두 나라를 다녀와서 그간 보고 느낀 점을 기록으로 남겨 놓음으로써 학술적 연구자료나 후학지도 및 차기 탐사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몇 자 적어본다.

〈인천공항에서 호주 시드니로…〉

2003년 7월 8일, 화요일. 서울은 여름인데도 맑고 덥지도 않아 여행하기 좋은 날씨

6시 30분까지 인천공항 출국 대합실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32명이 다 모이는 데는 30여 분이 더 필요했다. 7시 30분 출국수속을 마치고 한산한 공항을 보면서 경제가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라고 한마디씩 했는데 8시 30분 KAL기에 탑승을 하고는 그것이 기우였음을 알았다. 거대한 747기에 빈 좌석은 한 곳도 찾을 수 없었다.

드디어 8시 45분 굉음을 울리면서 시드니를 향해 이륙했다. 앞으로 10시간 이상을 날아가야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데도 모두들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인지 밝은 표정이다. 고도를 잡고 한반도를 지나 일본을 벗어났을 즈음 저녁식사가 나왔다. 비빔밥을 시켜 고추장에 비벼서 포도주를 곁들여 맛있게 먹고는 잠을 청했다.

얼마를 지났을까? 안내방송소리에 놀라 눈을 뜨니 새벽 4시다. 5시에 아침식사를 마친니 안내판에는 남태평양 군도를 지나가고 있음을 알려준다.

1. 호주(Australia) 탐사

〈호주의 개요〉

면적 : 7,686,850km²

섬의 크기는 남북 3200km · 동서 3800km로

(한반도 35배, 알라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과 비슷)

인구 : 19,606,300명(2002년 9월)

수도 : 켄버라

대도시 : 시드니 4,210,100명, 멜번 3,364,800명

브리즈번 1,536,000명

위 치 : 남태평양 남위 $10^{\circ}41' \sim 43^{\circ}$ 동경 $113^{\circ}9' \sim 153^{\circ}39'$

민 족 : Caucasian 92%, Asian 7%, Aboriginal 1.4%

주민은 백호주의로 주로 유럽계(92%)이고 1950년대 부터 인종차별이 완화되고 아시아계 이민자 증가.

언 어 : 영어, 에버리진어

종 교 : 영국성공회 26%, 카톨릭 26%, 개신교 24%, 기타 24%

기 후 : 동남쪽은 건조하고 온대성기후이고 북쪽은 열대성기후

연평균기온 24.8°C , 수도 캔버라의 평균기온은 1월 20.2°C , 7월 5.3°C

강수량 : 연평균강수량 630.7mm

교 육 : 의무교육기간은 6~15세까지고 대부분 공립학교에서 무료로 수업을 받는다. 초등학교는 6~7년제이며 중등학교부터 전문학과 선택이 가능하고, 대학진학 때 입학시험은 없고 재학 중의 평가나 성적에 따라 선발한다.

진학률은 약 70%이고 종합대학 43개, 전문대학 또는 공과대학 48개.

한국유학생수 : 15,775명(2001년보다 5,283명 증가)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자료

〈호주의 역사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호주의 역사〉

호주의 원주민(Aboriginal)은 38,000만년 전 동남아시아에 이주(전성기 30만명)

1521~22년 최초로 호주를 탐사한 사람 : 포르트칼린 멘도사

1622년 호주를 뉴 네덜란드라고 명명 : 얀스 존 등 네덜란드 탐험가들

1642년 네덜란드인 아벨 타스맨이 태즈메니아섬과 뉴질랜드 발견

1770년 영국탐험가 James Cook : 영국 식민지 선언

1785년 영국은 쿡 선장이 선언한 토지를 New South Wales 라고 명명

〈쿡(Cook) 선장과 필립(Phillip) 선장〉

1770년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천문관측을 위해 호주 대륙과 뉴질랜드 등을 탐사했다. 그는 대륙의 동해안을 따라 시드니 남쪽에 상륙하였으며, 해안선을 따라 북상하면서 약 3,000km를 측량하기도 했다. 쿡 선장의 보고서는 영국내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미 식민지 미국을 상실한 영국에서는 호주를 미국을 대신할 유형지로 삼기로 결정했다. 본격적인 이주역사의 첫걸음은 1788년 1월 31일 죄수 759명을 포함한 11척의 선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선단을 이끈 아서 필립 선장은 뉴사우스웨일스 식민지의 초대총독이 되었고, 그들이 입항한 포트잭슨은 오늘날의 시드니로 발전했다. 이 날(1월 31일)은 오스트레일리아 이민

을 기념하여 건국일로 지정되었다.

〈식민지 시대〉

시드니 서쪽에 위치한 블루 마운틴을 넘는 루트가 발견됨으로써 식민지는 서쪽을 포함한 북쪽과 남쪽으로 확대되어 갔다. 인구도 급증해서 1820년에 3만 4천명이던 것이 1850년에는 40만을 넘어섰다. 이 같은 인구증가는 자유이민자가 늘어난 결과였는데, 자유이민자들은 식민지 곳곳에서 유형 반대운동을 펼쳐 1840년 죄인의 유형은 끝이 났다. 그동안 산업의 발전이 미비했던 호주에서도 1796년 존 맥커더가 남아프리카에서 수입한 메리노종 양 번식에 성공한 이래 대표적인 양모 수출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골드러시와 급격한 인구 증가〉

1851년 뉴사우스웨일스의 마터스트에서 금이 발견되고 이어서 빅토리아의 밴디고에서도 풍부한 금광이 발견되자 급격한 골드 러시현상이 일어난다. 인구 또한 급증해서 1860년에는 114만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금광의 발견으로 인해 호주는 새로운 경제 활력을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식민지의 확대와 도시 발전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 반면 금광개발을 위해 유입된 비유럽계 인종의 증가로 인해 백호주의와 배타적 노동조합의 갈등이라는 뿌리깊은 사회문제를 남기기도 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의 성립과 식민지의 확대발전에 따라 식민지의 자치 독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1823년 뉴사우스웨일스가 제한부 독립식민지가 된 것을 필두로 태즈메이니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빅토리아에 이어 마침내 1890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가 자치를 획득했다. 자치와 더불어 식민지간의 관세문제를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 등의 태평양 진출이 활발해지자 빅토리아 여왕의 뜻에 따라 1901년 5월 연방의 회가 열리고 6개의 식민지는 주로 승격되었다. 20세기 새로운 관계 모색 영국연방의 일원으로서 외교, 경제 등 정책 전반에 걸쳐 영국과의 절대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불황 하에서 영국 연방 이외의 나라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었다. 아시아 각국과의 무역도 점차 증가하여 기존의 백호주의 또한 사라져 갔다.

호주의 경제와 산업 그리고 우리 나라와의 관계

호주의 1인당 GDP는 1980년 1만 달러를 달성한 이래 2003년 현재 2.5만 달러이며, 지하자원은 현재 인구가 앞으로 800년 동안 먹고 살만큼 풍부하고 1924년 지하철을 건설했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없다. 전력은 70%가 화력이고, 30%는 수력이며 원자력 발전은 제한하고 있다. 오후 5시 이후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무료라고 한다.

주로 1차산업과 3차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2차산업 중 제조업, 특히 전자산업이나 철강산업은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고 공해없는 교육산업이 철강산업의 2배라고 한다. 현재 호주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계가

가장 많다. 한국계만 1.5만~2만명을 헤아린다. 이것은 이 나라가 인종차별이 별로 없고 백호주의가 사라져 동양인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사업으로 큰 돈을 번 James Ahn이라는 한국인 재벌이 있는데 그는 한국 유학생이 늘어나자 한국 유학생 대상으로 사설 학원을 시드니에 설립하고, 퇴직 대학교수나 고교 퇴직교사 등을 채용하여 어학 교육, 예상 시험문제 등 족집게 과외를 실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은 전국에 분원을 가진 500억 원 이상의 학원 재벌로 부상했다. 현재 시드니에는 종로학원, 대성학원 등 타 학원도 진출했 다니 과연 학원 공화국의 진가를 이곳에서도 발휘하나보다.

호주는 넓은 국토를 이용하여 주로 목축업과 관광산업이 발달되어 있는데 초기에 아프리카에서 양 암놈 3마리와 숫놈 2마리를 가져와 호주 인구보다 5배나 많은 1.5억~1.7억마리(보통 양 한 마리 4만원)로 불렸으며, 양모 수출액만도 GNP의 22%에 달하며 양고기와 부산물 수출도 상당한 액수라니, 양모 처리 기술의 발달로 세계 최상의 제품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육우도 끊임없는 쇠고기 육질 개선을 통해 지방이 적고 맛좋은 쇠고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인이 좋아하는 꽃등심(사실은 콜레스테롤이 많다)도 개발하여 수출한다.

우리나라와 호주와의 교역은 1958년 600만 달러 상품수입으로 교역이 시작되어 1970년대 들어 교역이 급증하였지만 교역 시작이래 우리나라는 한 번도 무역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2002년 현재 수출 23.4억 달러, 수입 59.7억 달러로 36.3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

호주는 한국전쟁 때 4번째로 파병하여 많은 병력이 희생된 혈맹관계로 정식 수교는 1961년에 했고, 1970년대에 한국 이민이 성사되었는데 현재 시드니에만 3.5~4.5만명의 교민이 있고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7~8만 정도는 된다고 한다.

〈세계 3대 미항 시드니〉

7월 9일(수요일), 흐렸다 맑음.

7시 10분 인천공항을 떠난지 10시간 25분만에 구름 속을 비집고 시드니 국제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 그러나 복잡한 입국 수속을 마치는데 1시간이 더 걸렸다. 8시 30분에야 현지 가이드와 함께 한국 교민이 특별 제작하여 한국 관광객에게만 대여한다는 호화 버스에 올라 블루 마운틴(blue mountain)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출근 시간 때문인지 여기도 차가 막힌다. 새벽에 비가 내렸는지 길은 촉촉이 젖어 있고 잔뜩 흐린 날씨는 나그네의 마음을 착잡하게 한다. 가이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여 열심히 호주를 설명하는데 모두들 꿈나라를 헤매고 있다.

시드니 시내를 벗어나 간이 휴게소에 들러 맑은 공기로 잠을 쫓고 다시 블루 마운틴으로

향했다. 2시간을 달려 블루 마운틴 입구 카툼바(Katoomba)에 도착했다.

에코포인트(Echo Point)에서 하차하여 블루 마운틴 전경과 세 자매봉을 구경하면서 합동 기념사진도 남겼다. 블루 마운틴은 호주의 푸른 그랜드캐ニ언이라고도 하는 2억 5000만년 전인 트라이아스기에 퇴적한 사암층이 오랜 세월에 걸쳐 빗물과 강물에 침식되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협곡의 길이는 400km이고 1000m급의 산들이 병풍처럼 이어지고, 햇살이 강한 낮에는 유카리 숲에서 증발하는 알코올 성분의 수액 때문에 온통 푸른 안개로 뒤덮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블루 마운틴이라는 이름을 붙였단다. 이어서 250m의 수직 절벽을 52°각도(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철도)로 오르내리는 열차(Scenic Railway)를 타고 블루 마운틴 계곡으로 내려갔다. 이 기차는 원래 1880년대 석탄을 운반할 목적으로 만든 화물열차였는데 지금은 관광용으로 개발하여 사람을 실어 나르고 있다.



〈사진 1〉 블루 마운틴 전경과 세 자매봉

부시워킹(Bush walking) 코스를 따라 햇빛도 들지 않는 원시림을 감상하고 당시의 석탄 캐는 광부와 운반차 앞에서 사진도 찍고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와 근처 한국 교민이 운영하는 Avon Leigh라는 식당을 찾아가 호주에서 첫 식사를 했는데 고기가 질겨 낙농업이 발달한 호주 쇠고기는 맛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바꿔 놓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흐렸던 날이 활짝 개었다. 12시 30분, 다시 왔던 길을 따라 시드니로 되돌아 가면서 본 차창에 비치는

집들은 주위의 아름다운 자연과 어울려 단아하고 깨끗한 느낌을 준다. 어디를 가도 지저분한 집이나 건물은 없다. 실제로 시드니는 도시 미관을 위해 지붕의 색깔까지도 규제를 하며(적·백·녹·청색만 허용) 빨래도 사람들이 보이는 집 밖에 널지 못하게 한다(벌금 Aus\$ 500). 세계 3대 미항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시드니는 주택 값이 비싼 지역인데 바닷가 전망이 좋은 집은 보통 50~60억원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고가라고 한다. 실제로 오페라하우스 입구 160평짜리 아주 오래된 아파트 시세가 100억원을 호가한다고 한다니 서울의 강남 사람들이 여기 와서는 울고 가겠군.

오는 길에 야생동물원(Wildlife Park)에 들러 1시간 동안 호주에만 있는 희귀동물인 캥거루(Kangaroo), 코알라(Koala), 두더지의 일종인 웜벳(Wombat), 작은 캥거루족 월래비(Wallaby), 에뮤(Emu), 포악한 육식새 쿠카브라(Kookaburra) 등을 보았다. Koala는 대나무 잎만 먹는 중국의 Panda와 같이 곰의 일종인데 호주에서 자생하는 유칼리 나무 잎만 먹고 살며 잎속에 들어 있는 알코올성분 때문인지 물도 먹지 않고 하루 20시간을 잠만 자는 게으른 동물이다. 얼마 전까지만해도 코알라를 안고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번식력이 떨어지고 개체 수가 줄어들어 지금은 구경만 할 수 있다. 곧 바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진행했다. 도착하니 3시인데 쾌청하던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더니 기온이 떨어졌다.

주경기장은 총 11만 5천석 규모인데 건축비가 많이 들었고, 올림픽이 끝난 다음 운영문제



〈사진 2〉 심포지엄

로 국영기업인 Testra에 매각하였다고 한다.

일정이 일찍 끝나 내일로 예정되었던 호주의 명물 오페라 하우스로 향했다. 다시 헛빛이 나더니 금방 어두워지기 시작해 주위와 실내를 충분히 살펴 볼 여유가 없었다. 서둘러 사진을 찍고 시드니 중앙공원인 Hide Park에서 100년이 넘은 아름드리 나무 숲을 거닐고 2차대전 직후 프랑스와 맺은 협정을 기념해 세웠다는 아치볼드 분수와 바로 옆에 있는 St. Mary 성당을 구경했다. 이 성당은 Notre-Dame 성당을 본따서 만들었으며 1868년에 시작해 60여 년에 걸쳐 완성했으며 전체 길이가 106m이고 화려한 스테인드 그拉斯가 볼 만하다. 성당 아래쪽 건물 색깔과 탑쪽 건물 색깔이 다른데, 그것은 당시 총독이 카톨릭 성당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성당만 짓고 탑은 세우지 않다가(탑까지 세워 완공하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 종교의 자유가 정착된 후 탑을 세워 벽돌 색깔이 다르다고 한다. 동성 연애자 거리, 마약자 거리를 지나 한국 식당에서 김치찌개로 빙 속을 채우고 바로 Avillion Hotel로 가서 방 배정이 끝난 다음 호텔 연회실에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탐사단 전원이 참가하여 해당 주제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오페라 하우스(Opera House)와 그에 얹힌 비화〉

오페라 하우스는 14년에 걸친 기나긴 공사 끝에 1973년 완성된 건축미학의 걸작이자 시드니의 얼굴 마담 1호다. 1957년 호주의 국제 공모전에서 32개국 232점의 경쟁작을 물리치고 우승한 덴마크의 건축가 요른 우존(J Xrn Utzon)의 작품으로 보는 이에 따라 요트나 상어 지느러미, 조개껍질을 복합적으로 연상하게 설계했는데 하늘과 땅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도록 디자인하였다. 하지만 공사 초기에는 구조적인 결함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요른 우존이 사임한 1966년이었으며 호주 건축팀이 공사를 맡아 1973년 완성시켰다. 그 동안 투입된 공사비는 무려 1억 200만 달러가 들었고, 스웨덴에서 수입한 106만 5,000장의 하얀 타일로 지붕을 처리했는데 헛빛이 강한 호주의 기후에 맞게 타일을 광택과 무광택 반반씩 섞어 시공하였고, 타일을 다이아몬드 형으로 붙여 자정작용을 하도록 하여 준공 후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내부는 2,690석의 콘서트 홀, 1,574석의 오페라 극장, 544석의 드라마 극장, 398석의 연극 무대, 288석의 브로드 워크 스튜디오, 리허설 룸, 레스토랑, 바, 의상실, 휴게실, 도서관, 갤러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날마다 각종 콘서트와 오페라를 공연한다. 사실 오페라 하우스는 1957년 공모전에서 치열한 경합 끝에 최종 예선에 오른 작품은 모두 10점이었는데 디자인 못지않게 심사위원들이 고려해야 했던 사항은 공사비였다. 예상 공사기간 3년, 총공사비 700만 달러를 제시한 요른 우존(당시 35세)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건축물 위치 선정에 6개월이 걸렸고, 지반 공사의 어려움, 구조 변경 문제로 준공은 늦어지고 건축비는 계

속 늘어나자 호주 정부와의 마찰로 결국 건축사는 완공을 하지 못한채 떠났고, 완공 후 세계적 명물이 되자 호주는 그를 초청했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다가 지난 1993년 6월 8일 그의 딸이 와서 아버지의 작품을 감상했다고 한다. 세계적 예술품이 탄생하는 데는 그만큼 진통이 있었나 보다. 부족한 공사비는 복권 발행으로 충당했는데 10만 달러짜리 복권에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은 당시 8살짜리 꼬마였다. 꼬마는 몸값을 노린 유괴사건에 휘말려 목숨을 잊는 비극의 주역까지 맡아야 했다.



〈사진 3〉 오페라 하우스와 하비브릿지

7월 10일(목요일), 아침엔 이슬비가 오더니 금방 맑고 쾌청.

오늘 일정은 시내 관광인데 6시에 일어나 준비를 한 다음 8시에 승차하여 첫번째 방문지인 New South Wales 대학에 도착하니 이슬비가 내린다. 재학생이 2만명이 넘는 학교 치곤 너무 조용하고 다니는 학생도 별로 없다. 캠퍼스는 좁고 건물은 낡았다. 그런데 한국 학생이 3천명이라니 놀라운 일이다. 시드니 유학생 중에는 우수학생 뿐만 아니라 문제학생도 우리나라 학생이 많은 모양이다. 학교 매점에서 차 한 잔씩 하고 다음 목적지인 영국식 공원이라는 더 도메인(The Domain), 보타니 가든(Royal Botany Garden)을 거쳐 미세스 매魁리스 포인트에 도착하니 흐렸던 날씨가 활짝 개었다.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가 한눈에 들어

오는 아름다운 곳으로 벌써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다. 이곳의 이름은 호주2대 총독 매쿼리스 부인이 시드니만의 경관을 감상하러 자주 이곳에 들렀기 때문에 붙여졌다. 매쿼리스포인트 근처에는 바위를 깎아 만든 의자가 있는데 이것은 매쿼리스(MacQuaries) 부인을 위해 1810년에 만들어진 것이란다.

유람선을 타기 전에 호주의 건강식품 판매회사에 잠시 들러 로얄제리, 스쿠알렌, 상어연골 등을 구경하고 필요한 분은 구입도 했는데 상당히 고가였다. 한국인 고객이 얼마나 많은지 전원이 한국인 판매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Darling Harbour에 도착해 Matilda라는 유람선에 오르니 11시 20분이다. 1시간 30분 동안 아름다운 시드니항을 유람하면서 선상 뷔페도 먹고, 영국 죄수들이 시드니에 처음 상륙하였다는 바위 투성이의 더 록(The Rock), 그 위에 건설된 하버 브리지 밑을 지나 오페라 하우스, 총독 관저 등을 감상하면서 항구에 되돌아 오니 항구에는 호화 요트들이 저마다 위용을 자랑하며 떠 있다. 호주에서는 요트가 부의 상징인데 호주 출신 세계적 프로골프 선수인 Greg Norman이 이 호화 요트 건조회사 Owner이며 2015년까지 예약이 다 끝났단다. 비싼 요트는 600억원이 넘는 것도 있다니 그는 골프 못지않게 요트 건조에도 일가견이 있는 모양이다.

하버 브리지(Harbour Bridge)는 낡은 옷걸이(Old Coathanger)'라는 애칭으로 친숙한 시드니의 또 다른 얼굴이다. 총길이 1,149m로 뉴욕의 베이온 브리지(1,149.6m)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다리이다. 또한 대형 선박도 지날 수 있도록 해면부터 꼭대기까지의 높이가 134m이다. 1920년대에 몰아친 경제공황의 타개책으로 1923년부터 시작해 1932년까지 장장 9년에 걸쳐 2000만 달러의 공사비와 5만 2,800톤의 강철, 매일 1,400명의 노동력이 투입되었고 16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또한 녹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도 해마다 3만 리터의 페인트를 새로 입히고 있다.

폭 49m의 교량 상판에는 8차선의 자동차 도로와 2차선의 철로, 양쪽 옆에 하나씩 자전거 겸용 인도가 만들어져 있다. 건설 초기 시간당 교통량은 6,000대 정도를 예상했으나 1980년에 이르러서는 매시간 1만 5,000대의 차량이 하버 브리지를 통해 시드니의 남과 북을 오가게 되었다. 결국 밀려드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 1992년에는 바다 밑에 해저 터널을 뚫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있다.

하버 브리지 건설비용은 영국에서 차관을 들여와 충당했으며, 1932년 3월 19일 개통 직후부터 차량 통행료를 징수해 1988년에야 겨우 갚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통행료를 받는 이유는 교량 유지 보수비와 해저터널 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충당하기 위해 파일럿 전망대 구경에 2달러를 받고, 다리 아치 꼭대기 관람에는 우리 돈으로 10만원을 내고 3시간 반 정도 관람할 수 있는데 관광객이 넘친다고 한다.

〈시드니에서 골드코스트로〉

시드니 구경을 마치고 브리즈번으로 가기 위해 시드니 국내공항에 14시 10분에 도착하여 간단한 수속을 마치고 탑승, 동북쪽으로 990km를 날아 브리즈번에 도착하니 16시 30분이다. 브리즈번(Brisbane)은 호주에서 세 번째 큰 도시로, 인구 150만명이고 퀸즐랜드 주의 주도이다. ‘브리즈번’이라는 지명은 뉴 사우스 웰스 주 정부 관리자인 ‘토마스 브리즈번’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브리즈번은 1824년에 북쪽의 레드 클리프에 있던 죄수 유배지가 옮겨 오면서 형성된 도시인데, 1839년에 유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842년부터 자유 이민자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1859년에 이르러서야 뉴 사우스 웰스 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고, 1988년 세계무역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급속히 발전한 도시이다. 이 일대 우리 교민은 약 150세대이고 유학생은 1,500~2,000명이나 된다. 이들은 Queensland Univ. (캠퍼스만 114ha이고 역사깊은 명문대)나 Queensland Univ. of Technology 등에서 주로 인문계에 다니는데 이곳 호주사람들은 이공계에 많이 진출하고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있어야 취직이 쉽다고 한다.

브리즈번은 남쪽 골드 코스트의 서퍼스 패러다이스와 북쪽의 선사인 코스트로 향하는 관문으로서 동부해안을 여행하는 모든 이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이다.

기후는 사막성기후로 건조하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C 이상 나는데 겨울철에도 낮에는 25°C, 밤에는 11~15°C로 관광하기에는 알맞다. 16시 50분 짐을 찾아 1번국도 Pacific Highway를 따라 70여 km를 달려 목적지인 Gold Coast에 7시에 도착했다.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한다. Surfer's Paradise 근처 한인 식당에서 불고기와 된장찌개를 든든히 먹고 한국식 품만 파는 가게에서 안주와 술을 사서 호텔에서 간단한 파티로 여독을 풀었다. 오늘 숙소는 Crowne Plaza Hotel로 Gold Coast 중심지에서 3km 정도 북쪽에 있는 특급호텔인데 모든 시설이 좋았다.

7월 11일(금요일), 오전 쾨청 오후 소나기.

Gold Coast의 새벽이 밝았다. 건너 빌딩위에 까마귀 2마리가 손님을 맞아준다.

잔잔한 남태평양 바다 위로 고개를 내민 태양이 흰포말을 안고 백사장으로 밀려오고 붉고 푸르고 흰 집들이 숲과 강과 바다와 조화를 이루어 그림같은 전경이 눈아래 펼쳐진다.

충동에 못이겨 백사장으로 달려 나갔다. 45km나 이어졌다는 설탕을 뿐 놓은듯 부드러운 백사장. 많은 조깅족들과 함께 걷다가 뛰다가 결국은 신발도 벗어 던지고 붉은다리 갈매기와 친구가 되었다. 호텔의 회전하는 꼭대기 층에서 Gold Coast 전경을 감상하면서 뷔페를 즐기는 맛 또한 일품이다.

9시 30분에 버스에 올라 Surfer's Paradise에서 바닷가를 따라 Broad Beach, Main

Beach를 구경하면서 Sea World로 갔다. 도중 하루 숙박비만 80만원하는 등급이 7 star인 베르사체 호텔을 멀리서 구경했다. 이 호텔 카페트는 한인 공장에서 생산한 것이라고 가이드는 목에 힘을 준다.

시월드에는 10시에 도착하여 케이블카를 타고가 돌고래 쇼장에 입장하여 관중과 함께 즐기는 쇼를 보고, 아이맥스극장에서 15분짜리 입체 해적 영화를 보았다. 순환기차를 타고 두 팀으로 나눠 관중들의 박수소리로 점수를 매겨 흥미를 유발하는 Ski Challenge라는 현란한 수상스키 묘기를 보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더니 금방 관람석에 개울이 생긴다.

모노레일에 올라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스릴도 느껴보고 3시 20분에 시월드 관광을 마쳤다. 여전히 비는 내리는데 북쪽으로 20여 분을 달려가니 팜트리가 열병처럼 늘어선 마을에 도착했다.

이곳이 실버타운으로 유명한 *sanctuary cove*로 55세 이상 은퇴자 중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노후를 보내는 지역인데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그림같은 낙원을 만들어 놓아 관광명소가 되었단다. 이곳에는 노인을 위한 병원, 상점, 음식점, 놀이시설, 극장, 골프장, 스포츠 시설 등 모든 편의시설이 다 마련되어 있으며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요트가 작은 만안에 수백 척이 정박해 있다. 이 요트로 Ferry Sports까지 즐기면서 노후를 보낸다니 I envy you!



〈사진 4〉 골드코스트의 새벽

관리 사무소에는 각 주택의 매매가격과 돈이 부족하면 공공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살 수 있다는 안내 광고까지 붙여 놓았다.

이곳은 젊을 때 국가에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연금 뿐만 아니라 노후 자금을 쉽게 빌려 실버타운에서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다시 국가에 귀속된다고 한다.

다시 남쪽으로 50여 분을 달려 Gold Coast 외곽에 있는 한국 식당에 도착, 불낙전골이라더니 아니 不字 불낙인지 낙지는 한 마리도 없다. 알고보니 요리사가 전골에 쇠고기만 넣고 낙지는 빠뜨렸다나. 대신 20달러씩 하는 비싼 소주를 몇 병 내어놓았지만 마시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오후 내내 소나기가 왔다가 이슬비가 왔다가 변덕을 부리는 날씨 속을 뚫고 강행군을 했으니 모두들 피곤했나보다. 10여 분 거리에 있는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자기 숙소로 흘어진다.

7월 12일(토요일), 햇빛 짹쨍, 가끔 흐림.

아침에 눈을 뜨자 말자 해변으로 달려 나갔다. 어제 비가 와선지 더욱 맑고 상쾌한 아침이다. 벌써 수 많은 사람들이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을 따라 조깅도 하고 공놀이도 하면서 건강을 다지기고 하고, 붉은 다리 갈매기와 함께 낚시를 즐기는 사람도 있다. 또 Surfer's Paradise라더니 겨울 아침인데도 Surf를 타는 젊은이들도 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휴양지인 Gold Coast는 중심지인 Surfer's Paradise를 기점으로 북쪽으로 South Port까지 10km, 남쪽으로 Coolangatta까지 35km나 뻗어 있는 길고 긴 모래사장이 아침 햇살에 황금빛으로 물들어 Gold Coast라고 한단다.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일출을 보면서 Gold Coast와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오늘은 느긋하게 9시 30분에 호텔을 나와 근교에 있는 Paradise Country란 관광목장에 도착했다. 도착하니 서부영화에서 보던 포장마차에 차례대로 태워 목장을 한 바퀴 돌고 Koala 사육장도 들러보았는데 이곳은 사설목장이므로 13달러만 내면 코알라를 안고 사진촬영이 가능하단다. 돈에 눈독이 들었군. 곧이어 Cowboy Show가 시작되고 두 사람의 목동이 나와 한국 유학생 통역으로 개척기 목장에서 차와 땅 만드는법, 젖소 젖짜는 방법, 말을 타고 소몰이, 개를 이용한 양몰이 등을 보여 주었는데 특히 소몰이 때 쓴 채찍시범은 백미였다.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 새쫓는 때기와 같은 방법이지만 채찍으로 소녀가 입에 물고 있는 풀잎을 한 토막 한토막 잘라 가는 걸 보니 신기에 가까웠다. 1970~1980년대까지는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찾았다지만 1990년대에는 어느 곳을 가든 한국사람이다. 오늘 행사장도 반 이상은 한국사람인 것 같다. 관광객이 많아서인지,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는지 모든 안내서, 팸플렛, 광고에는 한글이 맨 앞쪽에 쓰여 있고 한국인 안내원을 배치하여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SBS에서도 호주 탐사팀을 파견하여 Show 전체를 촬영하

고 있었다. 곧 이어 양털깎기 쇼장으로 옮겨 8마리의 서로 다른 양을 전시하고, 그 사용 용도를 소개해 주었으며 하루 두 번씩 쇼를 한다고 한다. 목장내의 Steak House에서 호주산 Steak 맛을 보았으나 씩 맛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관광객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여 음악과 민속춤도 즐길 수 있도록 악사 한 사람이 기타를 치면서 리드를 하고 있었다. 13시 10분 승차하여 20여 분 거리에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양모공장 방문. 주로 카페트와 이불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에도 지점이 있다고 한다. 이 회사가 바로 베르사체 호텔에 카페트를 납품했었던 다. 양모는 6개월 내의 어린양 (Ram)털과 가죽이 최고급으로 쓰이고 세탁회수에 따라 A, B, C, D급으로 분류되는데, A급은 36번 세탁, B급 24번, C급은 12번 세탁을 해서 등급별로 제품을 만들어 출하하는데 이 공장에서는 주로 A급만 사용한다.

2시 45분 Brisbane에 도착해 호주 2대맥주 중의 하나인 4X beer 공장을 어깨너머로 보고 개척 당시 퀸즈랜드 스타일이라는 이동이 가능한 유카리 나무로 지은 집(timber house)이 밀집해 있는 거리를 지나 브리즈번 전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다는 Mt. 쿠샤(Mt. Coot-Tha)로 올라갔다. 표고 276m라니 우리나라 남산과 같은 높이인데 근처에 산이 없어 브리즈번 일대가 한눈에 보인다. 공기가 맑으니 남태평양까지 손에 잡힐듯 밀려온다. 맑고 좋은 날씨가 갑자기 흐리더니 빗방울이 떨어진다. 이것도 산이라고 기후가 다른 모양이다. 쿠사산에서 공항으로 가는 동안 공동 묘지를 보았는데 무덤이 없고 비만 서 있다. 땅을 아끼기 위해 묘지의 넓이를 제한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그 위에 다른 사람의 무덤을 쓴다고 한다. 묘지는 형편에 따라 관을 세우기도 하고 우리처럼 눕히기도 하는데 그 비용은 보통 주택(300평 정도)의 10분의 1정도 된다고 한다. 국토의 넓이가 우리의 35배나 된다는데 좀 지나친 것인가, 호화 분묘를 쓰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4시 40분 공항에 도착하여 짐을 부치고 예정했던 비행 스케줄이 변경되어 출국 시간이 2시간 정도 늦어지게 되어 공항에서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대신했다. 결국 7시가 다 되어 브리즈번 공항을 이륙했다. 호주여 안녕! 골드코스트여 또 만나자.

2. 뉴질랜드(New Zealand) 탐사

〈뉴질랜드의 개요〉

면적 : 26만 8670km²(한반도의 1.2배), 남섬·북섬

인구 : 400만명(2003년 4월 24일)

위치 : 남태평양 남위 41.20°, 동경 174.48°, 해안선 길이 15,134km

수도 : Wellington

대도시 : 오클랜드-1,364,400명, 크라이스트처치-360,000명, 웰링턴-346,000명

민족 : 유럽계(영국·아일랜드) 75%, 마오리족(전체 14%), 아시아계로 구성

현재 한국 교민 25,000~30,000이나 불법 체류자가 상당수 있는 모양

언 어 : 공식어-영어(Kiwi English)와 마오리어

종 교 : 영국성공회 24%, 개신교 28%, 카톨릭 15%를 차지하고 그 외 33%

기후 : 4계절이 있으며 남쪽으로 갈수록 춥고, 계절도 우리와 반대로 12~2월이 여름이고, 3~6월은 가을이다. 6~8월은 겨울이고, 9~10월이 봄이다. 1~2월이 가장 따뜻한데 평균기온은 15°C(최고는 25°C 이상)이고 7월이 가장 추운데 평균기온은 9°C로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는 크지 않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는 크고 기후의 변덕이 심하다.

강수량 : 북섬은 연평균 1,300mm이며 1년 내내 고른 강수량인데 남섬은 지역에 따라 500mm~3,000mm까지 차이가 많다.

교육 : 의무교육이 6세~15세까지 실시되며 19세까지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2년, 고등학교는 최장 5년, 대학 3~4년이다. 대학은 한국계 학생이 가장 많은 오클랜드대학, 와이카토대학(해밀턴), 빅토리아대학(웰링턴), 캔터베리대학과 링컨대학(크라이스트처치), 오타고대학(더니든), 마세이대학(탈머스턴) 등 7개의 종합대학과 그 외 단과대학과 전문대학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찾는 영어연수원(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이 40~50개가 있다. 한국 유학생 9,870명으로 집계되어 있지만 실제는 12,000명 이상이라고 한다.

매스컴 : 신문-NZ Herald, Dominion, Press 등 중앙지와 그 밖에 지방지가 다수 있다.

방송-TV는 채널 1,2,3 세 개의 방송국과 위성방송 Sky가 있다.

스포츠 : 국기는 럭비(Rugby)로 국가대표팀 All blacks는 인기가 대단하고 4~9월에 오클랜드 등에서 국제경기를 치른다.

국조 : Kiwi

〈뉴질랜드 역사〉

뉴질랜드의 첫 정착자는 마오리족의 용감한 추장 쿠페(Kupe)로 AD 850년경 폴리네시아의 하와이키(Hawaiki) 섬으로부터 위대한 남쪽의 땅을 찾아 뉴질랜드로 항해해 왔다고 한다. 쿠페가 뉴질랜드를 발견했을 때 길고 흰 구름이 섬 전체를 덮고 있어서 'Aotearoa(아오테아로아)-길고 흰 구름의 나라'라고 새 땅을 이름지은 데에서 뉴질랜드의 마오리어 공식명은 아오테아로아가 되었다. 1350년경 마오리족은 쿠페가 남긴 항해 지시를 따라 10여 척의 카누를 이끌고 뉴질랜드로 이주한다. 이들은 다른 문화의 방해없이 부족의 영역을 지키며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킨다.

1642년 네덜란드의 항해사 아벨 태즈먼(Abel Tasman)은 인도네시아로부터 호주를 거쳐

항해하여 뉴질랜드를 발견한 첫 유럽인이 된다. 뉴질랜드라는 국명은 태즈먼이 이 때 자신의 조국 네덜란드의 지명, 'Zeeland'에서 따와 'Nieuw Zeeland'라고 한데서 유래되었다. 1769년 영국 항해사 제임스 쿡(James Cook)이 뉴질랜드로 항해하였다. 제임스 쿡은 여러 지역을 탐사하고 지도를 만들고 그 땅이 영국의 소유임을 선언하였다.

〈와이탕이 조약과 마오리 전쟁〉

1814년에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1840년까지 이주해 온 2,000여 명의 정착민들은 영국에게 보호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1840년 마오리족의 추장들과 영국의 대변인 사이에 뉴질랜드 북쪽 베이 아일랜즈(Bay of Islands)의 와이탕이(Waitangi)에서 조약이 체결된다. 조약이 체결된 2월 6일은 '와이탕이 데이'로서 현대 뉴질랜드의 탄생일로 기념되고 있으며 와이탕이는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다. 조약의 내용은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마오리족이 갖지만 통치권은 영국에게 양도하며 대가로 영국은 마오리족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다. 와이탕이 조약의 의도는 상호 우호적이며 양방에게 공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럽인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영어와 마오리어의 해석 문제를 놓고 특히 토지소유에 관한 갈등이 속출하였다. 1860년 마오리족은 자치 정부를 세웠고 갈등은 전쟁으로 표출되어 1860~1865년 유럽인과 마오리족은 전면전(마오리전쟁)을 치른다. 결과는 유럽인의 승리로 조약의 내용은 무시된 채 마오리족의 토지는 몰수된다. 1860년대부터 시작된 골드 러시(Gold rush) 이후 유럽인의 정착과 영향력은 더욱 증가하여 뉴질랜드는 농·목축업이 발달한 나라가 되었으나 반면 마오리족의 인구는 1900년까지 급속히 감소했고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분투를 계속한다. 20세기에 들어와 남태평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뉴질랜드는 마오리족에 대한 태도를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다. 1975년 부터는 1877년 무효화를 선언했던 와이탕이 조약의 재검토를 시작하여 원 계약 상태로의 복귀를 선언, 마오리족에게 불공정하게 몰수된 토지를 보상해주었고 교육과 제반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현재 뉴질랜드는 유럽과 마오리의 문화를 잘 조화시키며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군인은 14,000명인데 육군과 해군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군 700명은 호주군에 편입시킴.

〈우리나라와의 관계〉

뉴질랜드는 6.25 때 우리나라에 터키, 필리핀 다음 3번째로 파병한 참전국가로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교적으로도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조를 맺고 있다.

1947년 : 남한정부 인정

1950년 : 한국전 참전 5,350명 파병. 가평전투에서 41명 전사, 193명 부상

1962년 : 정식 수교

1968년 : 박정희 대통령 방문-세마을 운동전파

1980년 : 전경환씨 뉴질랜드 소 수입-소 파동의 원인이 됨.

2000년 : 김대중 대통령 방문

뉴질랜드와 우리나라의 교역은 1965년 처음으로 \$100만 뉴질랜드 상품을 수입한 이래 해마다 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수출대상국 5위를 차지하며 주로 원목, 농수산물, 가죽 등 1차 상품을 수입한다. 정식 이민은 198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98년 현재 1만 5천여 명의 교민이 살고 있다.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서〉

7월 13일(일), 겨울같이 맑은 날, 아침은 약간 춥다.

호주의 브리즈번에서 7시에 출발하여 3시간만에 뉴질랜드 남섬에서 가장 큰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 공항에 내리니 이곳은 14일 0시 05분이었다. 호주보다는 2시간이 빠르고 우리나라와는 3시간의 시차가 있으니 지금 서울은 한 여름밤 9시뉴스를 볼 시간이다. 비행기에서 내려 30여 분만에 짐을 찾았는데 입국신고와 짐 검색에 1시간 이상이 걸렸다. 다른 나라 공항에서는 주로 테러와 관련된 짐 검사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곳은 세관원 외에 MAF(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 즉 농림부 직원이 나와 다른 나라에서 유입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곤충, 괴충류 등 동식물 또는 농산물 반입을 막기 위해 2중검사를 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니 자연 불평불만이 많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낙농업이 주요산업이므로 돼지콜레라나 구제역(Mouth & foot disease) 같은 가축에 치명적인 질병이 유입되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발에 묻은 흙까지 털게 하고 소독을 한 후 입국케 한다.

처음에는 화가 났으나 새벽까지 자기업무에 충실한 이곳 공무원들의 사명감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뉴질랜드에는 뱀이 없는데 몇 년 전인가 공항에서 뱀 껍질이 발견되어 전국의 MAF 직원을 소집하여 뱀잡기 작전을 펼치고 그것도 모자라 뼈리를 뿌리고 TV에 5분마다 Spot News를 내보내고 뱀 포획 작전으로 뉴질랜드 남섬이 온통 뒤집힌 적도 있었단다. 어쨌거나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그들의 노력으로 아름답고 폐적한 뉴질랜드를 유지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까치가 길조라고 까치가 없는 제주도에 까치를 풀어놓아 심각한 과수 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대용식용으로 들여온 황소개구리, 부르길, 애완용으로 들여온 붉은귀거북 등은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인간을 제외하면 말이다.

교수 한 분의 짐이 오지 않아 가이드가 수소문한 끝에 짐의 행방을 확인한 후 모두들 대기하고 있는 버스로 향하는데 찬 공기가 온몸을 감싼다. 이번 여행에서 처음으로 겨울의 차가운 맛을 보았다. 준비해온 겨울점퍼를 꺼내입고 버스에 올랐는데 날씨가 추워 시동이 안 걸린단

다. 얼마나 춥길래 안 걸리나 확인해 보니 현재 기온이 -4℃란다.

28년만에 찾아온 기록적 추위라고 호들갑이다. 대체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차창에 서린 서리를 닦으면서 미지의 세계에 낯을 익혔다. 20여 분만에 조그만 호텔에 도착했다.

모텔인지 호텔인지 Millennium이라고 써 붙인 것으로 봐서 오래된 호텔은 아닌 모양이다. 방배정이 끝나니 갑자기 시장기가 돈다. 가이드가 배급해준 사발면을 꺼내어 동료교수와 나눠먹었다. 시장이 반찬이라더니 평생 이렇게 맛있는 라면은 처음이다. 라면국물을 안주 삼아 소주 한 잔을 하고나니 3시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너무 피곤했나보다.

크라이스트처치는 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고 남섬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도시다. 넓이는 부산시와 비슷하고 인구는 36만명이며 한국유학생이 오클랜드 다음으로 많은 곳이기도 하다.

Oxford대학 Christchurch College 동창생 5명이 처음 뉴질랜드에 와서 최초로 세운 도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고 모교의 이름을 따서 Christ church라고 했다고 한다. 영국 밖에서 가장 영국적인 도시이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1위에 선정될 만큼 아름답고 잘 정돈된 도시이다. 또한 도시의 8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공원과 광장에는 가는 곳마다 꽃과 녹음이 우거져 도시라기보다는 정원을 연상케 하며 그래서 Garden City라고도 불린단다. 이러한 명성을 얻기까지는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다. 각 가정의 정원도 손질하지 않거나 잔디를 깎지 않으면 옆집에서 고발하게 하여 벌금을 부과해서라도 도시를 가꾸는 강제적 정책이 성공을 거두었음이다.

자는둥 마는둥 했는데 모닝콜이 요란하다. 7시 30분에 일어나 호텔식당에서 뉴질랜드의 첫 식사를 신선한 야채와 과일로 과식을 했다. 호텔앞 대성당 광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9시에 버스에 탑승, 뉴질랜드 탐사가 시작되었는데 크라이스트처치의 명소로는 대성당, 해글리 공원, 도심을 흐르는 Avon강 등이 있는데 우리도 크라이스트처치를 벗어나기 전 영화 ‘피아노’를 촬영했다는 해글리 공원(Hagley) 안으로 뚫린 리카튼로(Recarton Road)을 스쳐 지나갔다. 이곳은 전설적 여성인권운동가 케이트 세퍼드(Kate Shepherd)가 살던 곳으로 처음 15명의 여성운동단체를 만들어 남성중심 사회에 대항하여 세계 최초로 1893년 여성참정권을 따냈고, 1917년 피선거권도 따내어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10\$짜리 뉴질랜드 지폐의 인물이기도 하다. 이 여성인권 운동은 25년만에 영국으로 전파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가는데는 장장 44년이 걸렸다.

〈Queenstown을 향하여〉

눈이 시리도록 맑고 상쾌한 날씨가 여행객들의 맘을 더욱 설레게 한다. 공기가 오염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100여 km나 떨어져 있는 흰 눈모자를 쓰고 있는 남알프스가 바로 눈앞에 있는 듯 선명하다. 남알프스는 산맥의 길이가 483km이고 3,000m가 넘는 고봉이 22개나 있

으며 최고봉은 Mt. Cook이란다. 뉴질랜드의 국민적 영웅 힐러리경도 마운트 쿠에서 체력을 단련하여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다고 한다. 힐러리는 그 공로로 영국 여왕으로부터 식민지의 평민으로는 최초로 기사작위를 받았다. 미국대통령 Clinton이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나는 두 분의 힐러리를 모시고 연설을 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능청을 떨었을 정도의 유명인이 남알프스에서 배출된 셈이다. 우리나라의 1.2배 넓이라면 별로 크지도 않은 나라인데 가도 가도 평원이고 양떼가 노니는 거대한 목장으로 끝없이 이어져 마치 호주에 있는 듯 하다. 장거리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달리는 차 유리창 사이로 쏟아지는 햇볕에 뜨거워 눈을 뜨니 마을 앞에 거대한 연어 동상이 버티고 있다. 이곳 강은 남알프스에서 빙하가 흘러내린 강인데 연어가 많아 연어 낚시를 위해 관광객이 이곳으로 많이 온단다. 그래서 마을 앞에 연어 동상을 세워 놓았다. 뉴질랜드는 마을마다 그곳의 특산물을 동상으로 만들어 세워둔다고 한다. 특산물을 마케팅하는 셈이다.

경기도 넓이만한 켄터베리(Canterbury plains) 평원을 지나 11시에 한국의 천안 삼거리 같은 제랄딘(Geraldine)에 도착하여 20분간 휴식 – 이곳의 명물인 호키프카 아이스크림을 맛보고 다시 달려 12시에 맥킨지고원(Mackenzie Basin)에 있는 최고급 양모 생산지라는 페어리(Fairlie)에 도착했다. 이곳 지형이 미국의 와이오밍고원이나 몬타나고원과 같다고도 하고 몽골 고원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몽골을 가보지 않았으니 알 수는 없고 눈 덮인 고원이 황량하기만 하다. 그런데 페어리(Fairlie)는 뉴질랜드 양모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양모의 집산지이자 최대시장이란다. 뉴질랜드에 처음 양이 들어온 때는 1802년으로 한 신부가 양 두 마리와 소 한 마리를 가져온 것이 지금은 뉴질랜드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양모 중 최고급품은 Royal Merino이고 중급품은 Merino, 하급품은 Merino Cross 양털로 짠 제품이라고 하는데,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양을 괴롭히는 방법만 고안한다고 하니 동물보호의 천국이라는 뉴질랜드에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양은 평생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주거비가 없고 거의 모든 부위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있다.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목초지를 12칸으로 나눠 철조망을 치고 2달마다 옮겨 가면서 기른다. 양은 풀밭의 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풀을 짧게 뜯어 먹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두면 풀밭을 쓸모없게 만들어 로테이션을 시키는 것이다.

양의 수명은 10~12살로 보통 6살까지만 털을 깎는다고 한다. 털은 겨울철과 여름철 2번을 깎는데 털을 다 깎은 양은 비좁은 곳에 가두고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리면 세탁도 되고 털을 빨리 자라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겨울철에 털이 자라 여름철에 채취한 털이 고급이고 그 중에서도 6개월 이내의 어린 양 목덜미 털을 최고급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모든 목장에 있는 양은 모두 암컷이고 수컷은 고기나 종자용으로만 사용한다. 양의 가격과 수급은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암컷의 발정기를 조절함으로써 새끼양의 숫자를 결정한다. 발정

기가 되면 한 칸에 암컷 200마리당 수컷 1마리를 집어넣으면 수컷은 제일 예쁜 암컷을 골라 교미를 하는데 교미한 암컷을 가려내기 위해 수컷 배에다가 페인트를 칠해 놓고 엉덩이에 페인트가 묻은 암컷을 5분마다 분리시키면 모든 암컷과 교미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교미를 완전히 끝마치는 데는 건강한 양이 일반적으로 10일~12일이 걸린다고 한다. 양의 대단한 정력이 놀랍다. 요즘은 수컷의 목에다 페인트를 칠한다고 한다.

4개월 후 한 마리가 새끼를 낳으면 다른 양도 새끼를 낳는데 2시간 내에 200마리가 모두 새끼를 낳는다고 한다(연쇄 반응?). 새끼를 낳고 나면 제일 먼저 사슴 가죽을 뒤집어 쓴 5~6명의 사람들이 목장 안으로 들어가 양의 태반을 수집해 나오는데 그 태반은 비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한다(S-25 1병에 A\$70). 사슴 가죽을 쓰는 이유는 양이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란다. 2번째 사람은 죽은 양을 수집해 나온다. 양은 새끼를 낳으면 2시간 동안 혀로 새끼를 할아 주는데 젖이 2개 밖에 없어 2마리 이상 낳으면 키울 수가 없어 처리하게 된다(최고 기록은 6쌍동이). 이렇게 처리된 어린 양과 6개월 이전에 도살한 수양의 모피는 가장 비싼 최고급 제품을 만드는 자료로 쓰인다.

3번째 사람은 목동으로 암수를 구별하여 수컷은 파란색 페인트로 “X”표시를 하고 암컷은 빨강색으로 “O”표시를 하여 60일이 지나면 파란 “X”표시를 한 수컷을 도살하여 모피와 고기로 사용한다. 6개월 이전에 도살한 새끼 양고기는 냉장육으로 가공 처리하여 수출하는데 그 중 70%는 일본이, 30%는 유럽에서 수입해 가서 식도락가들의 미각을 돋운다고 한다.

생후 11개월이 지나서 12월 크리스마스 때 첫 번째 양털 깎기를 한다. 양 사육은 10,000마리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으며 양몰이를 할 때는 양몰이 개를 사용하는데 보통 5마리가 2,000~3,000마리의 양을 몰이한다. 양 무리에는 반드시 우두머리가 있어 그 우두머리가 가는 방향으로 양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은 양몰이 개 두목은 목동 옆에 앉아 있다가 목동의 지시가 있으면 우두머리 양을 찾아 눈싸움을 하여 우두머리 양의 기를 꺾고 부두목 개는 짖고 나머지 개는 뛰어 다니면서 무리에서 흘어지는 양을 물이하여 목적지로 이끈다. 유식한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맥킨지 고원을 지나가니 이윽고 2,500만 평의 거대한 테카포(Tekapo) 호수가 안개 속에서 얼굴을 내민다(최고수심 233m). 12시 45분이다. 수정 같이 맑은 물과 흰 눈을 이고 있는 병풍처럼 둘러친 산이 조화를 이뤄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하다. 멀리 보이는 마운트 쿡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눈싸움도 하다가 뉴질랜드에서 가장 작다는 미니 교회 앞에 서니 마치 천상에 온 듯하다. 길가에 조금씩 쌓여 있던 눈이 여기서부터 제법 쌓여 있다. 이곳은 겨울철에 폭설이 내리는 지역인데 옛날 목동 한 사람이 폭설이 내린 날 말을 타고 양몰이 개 몇 마리를 데리고 이곳을 지나다가 응덩이에 말과 함께 넘어졌는데 그만 다리가 절골되어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다.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데 눈에 갇힌 1개월 반 동안 두목 개가 자기부하 개를 물어죽여 그것으로 주인을 살렸다는 것이

다. 그래서 그 충성스런 개를 기념하여 마을사람들이 개 동상을 세워 놓았단다.

맥킨지 고원(MacKengie Basin)은 해발 750m로 그 유래가 재미 있다. 스코틀랜드의 좀 도둑 맥킨지는 호주에 유배 중 탈출하여 남섬 최남단 던힐의 노천광에서 노다지를 캐다가 벌이가 시원치 않자 차츰 차츰 북쪽으로 이동, 이곳에 도착하여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뺑을 사서 먹고 있는데 웬 뼈째 마른 개가 다가와 꼬리를 쳐 뺑을 나눠 주었더니 계속 따라와 개와 함께 가시덤불을 헤치고 언덕을 올라보니 거대한 고원이 펼쳐져 있었다. 임시 음막을 짓고 잡을 자는데 개가 짖어 나가보니 양 1마리를 개가 물고 왔다. 그 다음 날은 2마리, 또 그 다음 날은 4마리, 그렇게 하여 1,000여 마리가 되자 양을 잊은 사람들의 고발로 감옥을 가게 되었다. 4번째 탈옥 때는 Friday(개이름)을 싣고 호주로 도망가려다가 다시 잡혔지만 묵비권을 행사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고원을 발견한 그의 이름을 따서 맥킨지라고 하였다고 한다.

다음 행선지는 마오리족의 영적 호수인 푸카키(Pukaki)로 향했다. 갑자기 날씨가 변하여 눈발이 날리고 안개가 자욱한데 나무마다 눈꽃을 피워 그 아름다운 설경이 나그네의 발목을 잡는다.

13시 50분, 드디어 푸카키 호수에 도착하였다. 면적은 4,800만평이고 최고수심은 321m로 물안개가 피어올라 호수 전체를 볼 수는 없었지만 바로 눈앞에 마운트 쿡이 하얀 이불을 뒤집어 쓴 듯 버티고 있다.

9시부터 5시간 동안 강행군을 하였더니 몹시 시장한데 10분 거리의 투이절(Twigel)에 한 국인 식당이 있단다. 된장찌개로 빈속을 채웠지만 음식은 별로였다. 근처 호수에서 양식했다는 연어 회만 팔려고 맛보기로 줬지만 값이 비싸 사 먹는 분이 없었다.

이 마을은 수로공사와 변전소공사를 하면서 기숙사로 지은 방갈로에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형성된 마을인데 마운트 쿡 등반의 출발지라고 한다. 이곳 수로는 호수와 호수를 연결하여 그 낙차로 발전도 하고 양을 먹일 목초지에 물 공급도 할 목적으로 건설했다.

14시 50분 식당을 출발하여 Queenstown으로, 15시 30분 과수단지로 변한 Cromwell에 도착. 크롬웰은 1800년대 중반 사금이 발견되어 급속히 발전된 도시였으나 1920년대 사금의 경제성이 떨어지자 주민은 뿔뿔이 흩어지고 먹고 살길이 막막하니 Pisa산(해발 1780m)에서 흘러내린 크루터 강의 협곡을 막아 인공호수 Dunstan을 만들어 사과, 체리, 살구, 포도 등 과일나무를 재배하여 뉴질랜드 과일집산지(fruit bowl)이자 고급와인 생산지로 명성을 얻었다. 또 호수에는 송어를 키워 낚시꾼들을 불러 모아 수입을 올리는데 한 사람이 50cm 송어 세 마리까지만 잡을 수 있으나 판매할 수는 없다고 한다. 금광이 없어지자 남은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고 이 지역에 적합한 과수재배와 송어낚시로 관광객을 불러 모아 성공한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 농촌이나 탄광지대에서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1시간여를 남쪽으로 달려 Jone's Fruits라는 과일상점에서 각종 과일과 건과일을 무료로 시식하고 6시경 오늘의 목적지인 퀸즈타운(Queenstown)에 도착했다.

〈뉴질랜드 제일의 관광지 퀸즈타운〉

이곳에선 7월이 한겨울이니 일찍 해가 져 18시에 벌써 어두워졌다. 불빛에 비친 와카티푸를 바라보면서 호수가에 정박해 있는 증기선 언슬로(Earnslow)호를 구경하고 시내에 들어서니 찬바람이 온몸에 스며든다. 와카티푸호수(Lake Wakatipu)는 마오리 말로 괴물이 누운자리라는 뜻인데 그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00배인 7,800만명이고 S자형의 호수의 길이는 84km, 최고 수심은 399m, 호수면은 해발 350m인데 15분마다 수면이 8cm씩 늘었다 줄었다 하는 신비의 호수란다.

18시 30분 근처 충남 예산 사람이 운영한다는 한인식당에서 양고기, 돼지고기 바베큐와 함께 포도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니 한기가 가신다.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Coronet Alpine Hotel에 도착하여 check-in하니 19시 35분이다. 모처럼 가족과 통화를 했다. 모두들 긴 여로에 피곤했는지 조용하다. 잠이 오질않아 퀸즈타운 안내서를 꺼내들었다.

퀸즈타운은 뉴질랜드에서 네 번째로 큰 S자형의 와카티푸(Wakatipu) 호수와 조화를 이뤄 형성된 그림같은 도시이며 리마커블(The Remarkables) 산맥(최고봉은 2,343m의 더블



〈사진 5〉 푸카키호수와 마운트쿡

콘)이 둘러싸고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세계적 스키장과 골프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 밖에도 번지점프는 물론 제트보트와 래프팅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와 휴양의 도시이기도 하다. 아울러 밀포드사운드(Milford Sound)로 떠나는 일일투어가 시작되는 거점도시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름답고 즐길 것이 많은 이 도시로 사시사철 전세계에서 수 많은 관광객(연간 약 150만명)이 몰려 온다. 퀸즈타운은 1862년 쇼토버(Shotover) 강변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일화천금을 노리고 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형성된 도시이다. 이들은 여왕이 사는 도시 못지않은 부를 누릴 수 있다는 환상에서 퀸즈타운이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1900년에 들어서면서 금과 은이 고갈되어 경기가 하강하자 주민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200여 명만 남아 옛날처럼 양을 치거나 포도주 가공으로 생계를 이어가다가 1963년 호수 주변으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제2의 황금기를 맞이했다. 남은 주민들과 정부는 천혜의 자연을 이용하여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전천후 휴양도시로 변모시켰으며 낡고 흉물스러운 폐광과 증기선은 오히려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천상의 피오르드랜드 Milford Sound로〉

7월 14일(월요일), 맑았다 비오다 변덕스런 날씨.

5시 30분 기상, 6시 30분까지 식사 완료, 7시 승차. 마치 군대처럼 꽉 짜여진 일정, 숙연한 자세로 갈아입을 옷만 챙기어 버스에 오르니 곧바로 출발. 아직 먼동이 트기도 전이다. 어렴풋이 구름 사이로 고개만 내민 달빛에 비친 와카티푸 호수, 전설만큼이나 슬픔을 머금고 보일 듯 말듯 하더니 먼동이 터오면서 여인의 속살같은 교교한 자태를 드러내 만리타향에서 온 나그네의 맘을 설레게 한다. 다시 꿈나라에 빠진 교수분들도 계셨지만, 8시 40분 서쪽으로 달리는 차창 뒷쪽에 태양이 떠오르자 영롱한 쌍무지개가 마치 우리 일행을 환영하듯 아치를 놓는다. 호수의 가장 남쪽에 있는 킹스튼(Kingston)을 지나 바다와 128km 떨어져 있어 뉴질랜드에서 가장 내륙에 위치한 가斯顿(Caston)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뉴질랜드 최초로 사슴사육이 시작된 모스번(Mossburn)이란 곳에서 또 다시 서쪽으로 서쪽으로. 갑자기 빗방울이 들더니 비가 내린다. 비가 오나보다 했는데 언제 그랬느냐는듯이 비는 그치고 아침식사를 즐기는 양떼를 위로 햇살이 따사롭다. 어느새 푸른 초원 사이로 황량한 고원에서나 자란다는 키작은 스코티스불름이라는 향나무가 손님을 반긴다. 스코티스불름은 일명 절약꽃이라고도 하는데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면서 가시가 많은 스코티스불름 가지를 찔라 돈과 함께 주머니에 넣어주면 돈을 꺼낼 때 따가우므로 자연 절약을 배우게 된다고 하여 절약꽃이라고 한단다. 모스본을 지나 Milford로 가는 출발지인 Te Anau에 도착하니 9시 15분이다. Te Anau호수는

뉴질랜드에서 2번째로 큰 빙하호수이며 면적이 352km²(1억 5,000만평)이고, 길이가 자동차로 40분 거리인 61km,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은 수심이 417m로 남섬에서는 가장 큰 호수이다. 테 아나우는 샘이 솟는 호수라는 뜻인데 전설에 따라 부정 불륜의 호수라고 마오리족은 이 호수의 물은 안 마신다고 한다. 테 아나우는 인구 3,000명의 작은 도시이나 피오르드랜드(Fiordland)의 관광이나 밀퍼드 트랙(Milford Tracking or trekking)의 시발점으로 피오르드랜드를 찾는 관광객들과 트레커들로 언제나 활기가 넘친다. 이곳 주민의 30%은 중국인이란다. 1920년대 카와라강 사금을 캐던 중국인들이 중국처럼 남쪽으로 오면 따뜻할 줄 알고 이곳으로 내려와 처음은 남향집을 짓고 살았는데 중국과 정 반대인 것을 몰랐던 모양이다. 어쨌든 이곳의 카푸치노 커피가 맛있다고 하여 한 잔 하면서 아름다운 호수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조약들도 즐다가 9시 50분 Milford로 출발.

원래 뉴질랜드에는 맹수나 뱀이 없기 때문에 자연 날개가 퇴화되어 200여 종의 날 수 없는 새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멸종되고 몇 가지 종만 남아 있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새가 Kiwi이고, 그 밖에 카카토 앵무새, 타카헤 등이 있다. 뉴질랜드 국조인 키위는 야행성이고, 게을러 낮에는 잠만 자고 밤에만 활동하는데 코끝으로 냄새를 맡아 지렁이나 곤충 등을 잡아먹고 살고,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키우고 암컷은 먹이를 구해 온단다. 점점 그 수가 줄어들어 국가에서는 키위 보호정책을 쓰고 있다.

또 테 아나우에는 Wildlife Centre가 있는데 뉴질랜드 야생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옥외 테마파크로 이곳에는 멸종된 줄 알았던 타카헤(Takahe)를 볼 수 있는데 이 새는 1948년 다시 발견되어 지금 피오르드랜드에 150여 마리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 지금은 멸종해 버린 거대한 새 모아(Moa)는 200년 전에만 해도 마오리족의 주식이었는데 지금은 캔터베리 박물관에 새 골격 표본과 알화석을 전시해 놓았다. 퀸즈타운에는 석조 모아가 와카티푸 호수기슭에 있는데 마오리족은 이 새를 주식으로 하면서 수명이 짧아졌다는 설도 있다.

호수 중간쯤 가니 밀포드트랙킹(이곳 사람들은 트램) 출발점인 Te Anau Downs를 뒤로하고 일년내내 비가 오락가락한다는 Milford 지역 입구에 들어서니 정말 비가 오기 시작한다. 10시 40분 이곳 지형은 빙식곡으로 7,000년 전 빙하기에 빙하가 쌓이면 빙하의 무게 때문에 밑부분이 녹아 강을 이뤄 빙하가 떠내려 가면서 주위 계곡을 갈아 직각의 협곡을 만든 것 이라는 데 그 바닥폭은 5km나 되고, 양옆 산은 1,000개 이상 직각 절벽을 만든다고 한다. 10시 40분 차에서 내려 직접 빙하기에 형성된 강바닥을 밟아보니 스폰지를 밟는 것처럼 푹신푹신하다. 강바닥은 잡초로 덮여 있고, 숲속의 나무는 85%가 너도밤나무(Beech Forest)가 숲을 이루고 있고, 나이가 많은 나무는 껍질에 온통 이끼가 끼어 있고, 늙은 나무는 쓰러져 있는데 나이테가 없다. 일년내내 비가 와서 계속 자라기 때문이란다. Mirror Lakes라고 하

여 큰 호수인줄 알았더니 조그만 연못이다. 물은 검은색을 떨 정도로 혼탁해 보이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눈산이 선명하게 비치는 신비의 연못이었다. 연못과 너도밤나무숲 사이로 나무 다리를 놓아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11시 10분에 화장실이 있는 Knox Nob에 정차하여 생리작용을 해결했다. 한국 같으면 숲속에 들어가서 해결하면 되는데 노상방뇨하다가 국립공원 순찰한테 걸리면 남자는 N\$300~400, 여자는 N\$200란다. 이것은 여남 차별이 아닌가? 여기서부터 하늘이 안보일 정도로 숲이 우거져 있고 길 양쪽에 호수가 있는데, 왼쪽 큰 호수는 남자호수로 Gunn 호수라고 하고 오른쪽 경치가 더 아름다운 호수는 부인이름을 따서 Lake Fogus라고 한다. 그 연유를 알아보니 1938년 이 지역에 비행기 한대가 SOS를 치고 사라져 의사인 Gunn 박사는 그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눈 덮힌 산을 단신으로 말을 타고 수색 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듬해 눈이 녹고 나서 부인이 온 산을 뒤진 결과 비행기 잔해 옆에 7구의 시신과 말의 시체가 있었단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Gunn과 그 부인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호수에 두 사람의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단다. 이 호수의 물은 남극의 물(AAA급) 다음 등급인 특급청정수(AA급)라고 하더니 비가 오고 물안개가 피어 오르는 데도 수정처럼 맑다. 호수면은 해발 500m이고 수온은 7°C이며 빙하가 녹은 물이란다. 수지청즉무어(水至清則無魚)라더니 이곳 호수는 너무 물이 맑고 차가워 물고기가 살 수 없단다. 호수를 지나니 대관령 아흔아홉 고개처럼 꼬불꼬불하고 험준한 산과 계곡이 나타나는데 고개정상 부분에 전망대를 설치해 놓아 올려다 보니 앞쪽 높은 산 계곡에 빙하가 있다. 그리고 천길 낭떠러지같은 계곡이 있는데 옛날 금광맥을 찾아 다니던 호리포드의 이름을 따 호리포드계곡이란다. 마치 우리나라 백담사 계곡에 온 듯하다. Milford Sound 지역은 맑은 날이 연중 80일도 안되고 강우량 3,000mm에서 6,000mm까지 내리며 지역에 따라 6,500~7,50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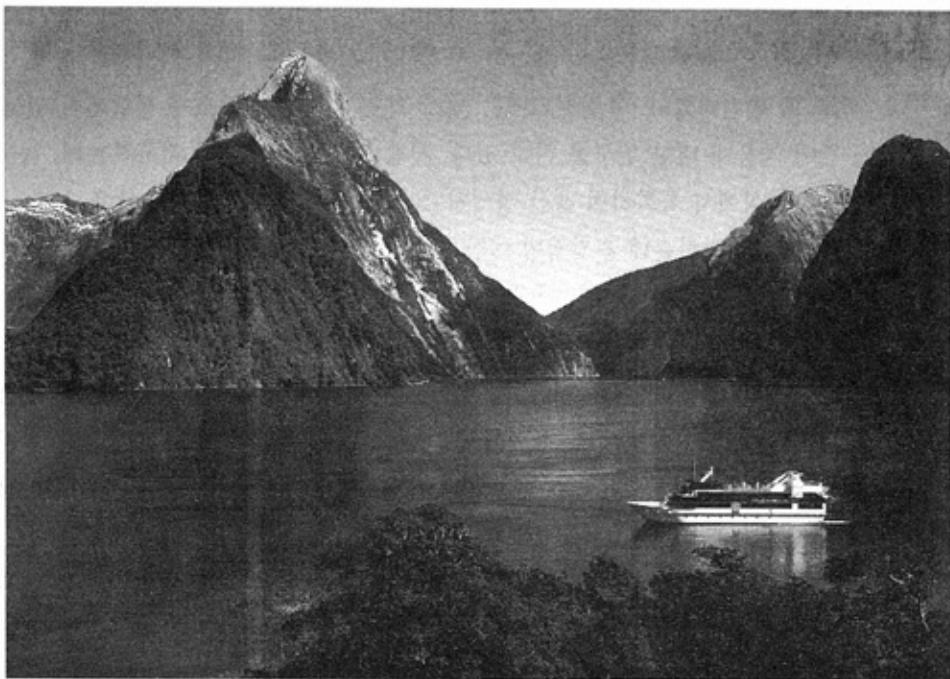
11시 55분 빙하가 녹아 흘러내리는 계곡에서 빙하수를 마시고 물병을 채웠다. 이상하게 생긴 새가 관광객을 따라 다닌다. 케아(Kea)새인데 일명 Alpine parrots라고 하는 이 새는 고무를 좋아해 운동화, 자동차 윈도우 브레이드나 심지어 타이어까지도 쪼아 먹는단다. 옛날에는 목동이 이 새를 보면 잡아 죽였는데 케아가 양의 등에 타고 다니면서 살을 파먹어 양을 죽게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보호새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South Alps산맥 중 Marian Corner로 가는 가장 낮은 Divide재를 넘으니 진눈개비가 날린다. 눈이 많이 오면 Milford Sound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자 유일한 통로인 Homer Tunnel을 넘을 수 없단다. 언덕길을 한참 오르니 도로에는 눈이 조금씩 쌓여서 은근히 불안한데 만년설을 이고 있는 거대한 산들이 앞을 막아서고 있다. 금방이라도 눈사태가 날 것 같다. 그 사이로 차 한 대가 지나갈만한 조그만 Tunnel이 있는데 이것이 호머터널이다. 이 터널은 길이 1,270m, 높이 3.82m인데 넘어서가는 입구는 해발 900m이고 밀포드 쪽은 700m로 서쪽으로 경사진 터널이다. 터널은 1918

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1954년 완공했는데 공사의 시작은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더니 이 지방 Henry Homer란 사람이 부인과 아들 4명과 함께 삽과 곡괭이로 땅을 파고 있었으니 그 가륵한 정성을 보다 못한 마을 주민들이 합심하여 땅을 뚫기 시작했다. 처음은 200명이 나중에는 3,000명으로 불어나게 되자 결국 정부도 협조를 하여 36년 만에 완공되어 그의 공로로 모두가 편리하게 쓰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가 희생되고 막내아들도 다이아마이트 폭파 때 2차 붕괴로 인해 이 터널에서 목숨을 잃어 엄청난 시련을 당했다.

터널을 빠져 나가니 수 많은 실폭포가 장관을 이루고 주위의 산과 계곡이 어우러져 여기서 Chasm까지는 2510만년 전 빙하 침식으로 이루어진 지형으로 바위가 동물뼈처럼 움푹움푹 파인 사골바위들이 많았다. Chasm 일대를 둘러보고 나서 울창한 밀림을 헤치고 유람선 선착장에 도착하여 크루즈에 승선하니 오후 1시다. 선상에서 뷔페로 점심을 먹으면서 Milford Sound 관광을 시작했다.

밀포드 사운드는 남섬 서남부에 자리잡고 있는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14개 사운드(구불구불한 좁은 만으로, 노르웨이어로 Fjord)의 하나로 노르웨이, 송네 피오르드와 함께 세계적 협만이다. 피오르드랜드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으로 사운드와 호수, 산, 숲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연의 보고로 UN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곳이다. 피오르드는 지각변동과 화산폭발, 빙하의 침식 등에 의해서 생긴 사운드와 호수, 험하고 뾰족한 산봉우리, 직각으로 솟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 등이 어우러져 태고적부터의 신비한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 밀포드사운드는 14개 사운드 중 가장 북쪽에 있으며 바다 입구에서 16km나 깊이 들어가 있고, 바다에서 보면 산 끝부분이 급격히 꺾여 있어 Cook 선장도 발견하지 못한 곳이다. 주변은 1,000m가 넘는 수직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곳곳에 수 많은 폭포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탄 배가 맨 먼저 도착한 곳은 마이터 피크(Mitre Peak)로 바다에서 곧장 1,710m나 솟아 오른 뾰족한 봉우리로, 바다에서 솟아 오른 산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그 옆 산골짜기에서는 2개의 폭포가 굉음을 울리면서 쏟아지는데 사진을 찍고 좀더 자세히 보려고 배 앞쪽갑판에 나갔다가 갑자기 비 바람이 몰아쳐 비맞은 생쥐꼴이 되었다. 이 산 아래쪽은 밀포드 사운드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265m이며 Mitre는 카톨릭 주교님의 머리에 쓰는 관을 닮았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란다.

반대편은 사자가 웅크리고 있는 모양의 사자산과 코끼리 형상을 하고 있다는 코끼리산이라는데 별로 닮은 것 같지는 않다. 크루즈는 경치가 좋은 곳이라 거대한 폭포에서는 잠시 멈추어 자연감상을 도와 주었다. 갑자기 배가 요동쳐 내다보니 이제 협만은 끝나고 넓은 바다다. 남태평양 Tasman해의 파도 때문이었다. 협만의 입구에 St. Anne Point 등대가 손을 들어 인사하는 것 같다. 크루즈는 더 이상 나가기가 무서운듯 고개를 돌려 문지기처럼 버티고 있는 Dale Point로 들어서니 파도가 잔잔해 진다. 이곳에서 간혹 돌고래도 볼 수 있고, 물개



〈사진 6〉 MILFORD

바위(Seal Rack)에서는 햇볕을 쬐는 바다표범도 볼 수 있단다. Milfort Sound는 수심이 2~8m 밖에 안되는 곳이 많은데 이곳에 심해고기가 사는 것은 착시현상 때문이다. 즉 Sound 밑바닥쪽에는 수압이 뻔 바닷물이 들어오고 물위는 민물로 층을 이루고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Sound 입구에서 배를 돌려 왼쪽으로 다시 항구로 돌아오는데 몇 개의 폭포가 있었다. Milfort Sound의 많은 폭포 중에서 겨울철에 마르지 않는 상시폭포는 3개이고 가장 긴 것은 그 높이가 160m, 153m 순이고 그 중 가장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는 폭포는 146m의 스틸링(Stirling) 폭포이다. 모두들 그 장관을 카메라에 담느라 분주하다.

밀포드에서 왔던 길을 되돌아 진눈깨비가 내리는 호머터널을 빠져 나오니 15시 20분이었다. 이 지역은 날씨의 변덕이 심하여 갑자기 추워지면 눈사태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험이 예상되면 마리안 코어에 있는 문이 폐쇄되며 관광객들은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데 하느님이 도왔는지 하늘 아래 최고의 선경을 구경하고 무사히 돌아 나왔다.

이 지역은 또 다른 전기한 자연 현상인 나무사태를 볼 수 있는데 표토층이 없는 경사가 심한 너도밤나무숲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한다. 바위 위에 이끼가 끼고 그 위에 나무씨가 떨어져 자라면서 뿌리가 얼기설기 형틀어져서 서로를 200~300년을 의지하고 있다가 폭우나 폭설이 내리면 그 무게 때문에 200~300년 동안 형성된 숲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현상이다.

16시가 되니 비가 밀포드 지역을 벗어났는지 비가 그치고 주위가 환해진다. 뉴질랜드에서

테일러란 사람이 최초의 사슴목장을 설치했던 지역인 Mossburn에 도착하니 17시 20분이었다. 700에이커 땅에 1,300마리의 Red deer를 사육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양과 함께 뉴질랜드 주요산업으로 발전하였다. 뉴질랜드에는 세계 최초의 녹용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고 1,200명의 연구원이 녹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사슴은 주로 남섬에서 사육하는데, 녹용은 북섬에서, 녹혈은 남섬에서 특화하여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주 소비국은 한국이다. 녹용이 이 나라의 주요산업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한국인이었다.

경동시장에서 약재상을 하던 분이 우연히 뉴질랜드 관광을 왔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녹각을 보고 가산을 정리하여 한의사인 아들과 함께 뉴질랜드로 와서 수 많은 시행착오 끝에 뉴질랜드의 동물보호법을 뚫고 녹용을 상품화하여 한국으로 수출함으로서 뉴질랜드의 주요산업으로 발전시켰고 본인도 크라이스트처치에서 10대 갑부가 되어 한인을 위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Christ church와 자매결연도 맺고 3월 1일은 한국인의 날로 지정받기도 했다.

잠시 눈을 붙였다가 눈을 뜨니 새벽에 떠났던 Queens town이다. 지금이 19시이니 12시간 동안 강행군을 한 셈이다. 시내 쇼핑몰 2층에 있는 Arrirang 식당에서 된장국, 불고기 백반에 소주 한 잔으로 피로를 풀고 Hotel로 직행, 20시에 각자 방으로 헤어졌지만 몇몇 교수들과 모여 한 잔 하고 꿈나라로 갔다.

7월 15일(화요일), 맑고쾌청.

새벽에 일어나 호텔 주위를 한 바퀴를 돌았다. 하늘엔 별이 총총하고 서쪽 하늘엔 달님이 이별이 서려워 차마 지지못하고 있다. 8시 10분 승차하여 출발. 퀸즈타운 지역은 최상의 스키 휴양지로도 유명한데,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는 전 세계에서 수 많은 스키어들이 몰려와 국제적인 규모의 Coronet Peak Ski장, The Remarkables Ski장 등에서 스キー를 즐긴단다. 그런데 Lift pole을 조립식으로 설치를 하여 여름철에는 뽑았다가 겨울철에는 다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지혜를 가졌단다.

Southern Nata 지역에는 한솔제지가 8,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벌목허가를 얻어 제지를 만드는데, 벌목한 자리에는 반드시 식목을 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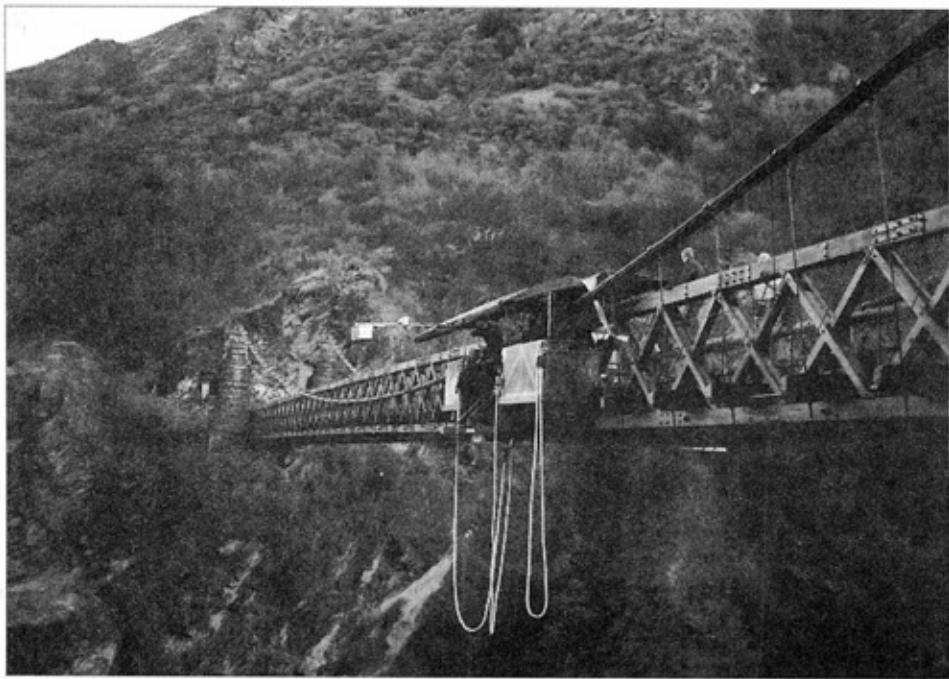
Queenstown에서 버스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Arrow Town에 도착했다. 이곳은 130여년 전 금을 캐던 노다지 시대를 재현해 놓은 민속촌인데 가이드가 어제부터 열심히 광고을 하던 녹혈을 파는 Red Deer라는 가게에 들렀지만 사는 사람이 없어 미안했다.

Arrow Town 근처에는 Millbrook Golf Club이란 LG소유의 최고급 Golf Course가 있는데 Clinton 대통령이 와서 더더욱 유명해졌다고 한다. 이곳에서 가장 비싸다는데 Green fee가 N\$ 85이라니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얼마나 싼가? 남섬에만 200여 개의 골프장이 있는

데, 50개는 정식 Golf Club이고 150개는 Golf Link(목장내에 만들어 놓은 간이 골프장)란다.

9시 15분에 카와라우강 계곡에 도착했다. 그 유명한 Bungy jump장이 있는 곳이다. 차에서 내리니 귀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날씨다. 번지 점프(Bungy Jump)는 1986년, 10여 년에 걸친 탄성도 실험 끝에 만들어진 특수 '고무줄'에 의지해 에펠탑에서 뛰어내린 뉴질랜드의 모험가 A.J. Hackett는 1988년 11월 세계 최초로 상업적인 번지 점프를 창안했다. 그는 1년 동안 각국을 다니면서 홍보를 했고, 1~1,000번까지는 공짜고 1001번째부터 돈을 받겠다는 광고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아 짧은 시간내에 bungy가 세계적 레포츠로 발전케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3년만에 임차한 다리값을 다 갚았다. 이 점프대는 시내에서 동쪽으로 23km 떨어진 Kawarau강의 다리위에 자리잡고 있는데 점프는 낮에만 할 수 있으며, 다리에서 강물이 넘실거리는 바닥까지의 높이는 43m다. 번지 점프장에 도착하면 먼저 예약표에 자기 이름을 적어 넣는다. 예약표에는 비디오나 사진을 추가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다. 몸무게를 젠 다음 매직으로 손등에 적어준다. 대부분의 여성은 이것을 감출려고 하지만 정확한 몸무게를 알아야만 뛰어내릴 곳을 정할 수 있다. 이곳에서 경량급과 중량급 두 종류의 점프대가 있으며 손등에 적힌 숫자에 따라서 분류하여 앞사람이 뛰기 전에 두 다리를 꽁꽁 묶는데 이 때 다들 놀라게 된다. 면으로 만든 수건 2개를 십자가 모양으로 둘둘 말아서 묶어 주는데 사실 발목을 보호하는 데는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고 한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니 안내자들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뛰는 순간인데 거의 대부분이 몇 번을 망서리다가 뛰어내린다고 한다. 우리가 갔을 때도 영국 여성 1명, 영국 청년 3명, 거기다가 우리 한국 여인 2명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 여성 중 대학생은 거의 망서림없이 2번만에 뛰어내렸는데 기혼 부인은 5-6번을 망서리다가 심호흡을 한 후 간신히 뛰어 내렸다. 한번 뛰어내리는데 보통 N\$160 내외라니 적은 돈은 아니다. 점프가 끝나면 아래에서 기다리던 보트로 내려지며, 강가로 돌아가 계단을 따라 한참 올라가면 번지 점프장으로 돌아온다. 티셔츠나 비디오 신청자는 바로 받을 수 있고, 사진 신청자는 시내 사무실에서 찾으면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점프증명서다. 한국여행객 특히 신혼부부들이 많이 시도한다. 여하튼 Hackett라는 사람은 Bungy Jump를 원주민의 성인식 때 높은 곳에서 칡 넝쿨에 발을 묶고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 착안했다지만 에펠탑에서 뛰어내린(경범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의 마케팅 전략은 뉴질랜드에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부를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세계적 명사가 되었다.

A.J. Hackett Bungy에서는 카와라우강의 번지 점프 말고도 스kipper스 캐ニ언(Skippers Canyon)의 71m 번지, 케이블 카를 타고 올라간 다음 숲을 향해 뛰어내리는 47m짜리 렛지(The Ledge), 1999년 네비스(Nevis)강의 협곡 위에 새로 생긴 149m 번지 점프대 등도 운



〈사진 7〉 Kawarau강의 번지점프

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102m에서 뛰어내리는 파이프라인(Pipeline) 번지나, 헬리콥터를 타고 300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빅점프(Big Jump) 번지(N \$299)도 가세해 퀸스타운에서만도 번지 점프 6파전이 벌어지고 있단다.

Jump에서 성공한 한국여자 대학생과 기념촬영을 하고 카와라우강을 따라 내려오는데 강가에 개집 같은 돌집들이 늘어서 있다. 개척시대에 사금을 캐던 중국인들 숙소란다. 이 지역에는 매년 4월에 유명한 토끼사냥 축제가 있는데 토끼를 많이 잡은 사람에게 상을 주는 행사로 동물보호국에서 웬 동물을 죽이는 행사를 할까?

우리가 살기 어려울 때 단백질 보충한다고 들여온 외래종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뉴질랜드도 토끼를 들여와 그 고기를 미국의 개밥으로 수출할 목적이었는데 문제는 토끼의 번식력을 간과한 것이었다. 엄청난 숫자로 불어난 토끼는 사막 같은 황량한 이 지역에 녹화를 위해 심어놓은 나무를 껍질째 먹어치우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10시 30분 다시 과일 가게에 들렀더니 학회에서 건과일 1봉지씩 나눠줘 맛있게 먹고 크롬웰을 지나 1시간을 달려 거대한 언덕을 오르니 나무는 없고 누런 풀만 있는 고원같은 지형인데 흔눈이 그 위를 덮어 읊씨년스럽다.

여기가 남섬에서 가장 높은 고개인 Lindis Pass란다(해발 934m). 1870년 처음 사슴을 도입했을 때 사슴을 끌고 이 고개를 넘어간 사슴 인솔자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란다.

고령토 광산으로 유명한 Omarama에 도착하니 12시 40분이다. 이곳은 연간 260일 이상 햇볕이 난다고 하여 빛고을이란 뜻의 지명을 붙였단다. 이곳 평야에는 직선 길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동차 속도측정을 자주 하는 곳으로 신문에 오마라마의 어느 지점 측정기를 설치한다는 공고를 한 후 설치를 하여 속도가 130km 이상은 면허를 취소한다고 한다. 올 때 식사했던 Pukaki garden이란 곳에서 설렁탕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나니 13시 45분이다. 지난 번 식사 때에는 날씨가 우중충하기도 했고 음식 맛도 없더니 오늘은 날씨가쾌적하고 마치 봄 날씨 같아 음식 맛도 맛있나 보다.

14시 10분 Pukaki 호수에서 연중 60일 정도 밖에서 못본다는 Mt. Cook(아우테아르)를 보고 Tekapo 호수에서 잠시 쉬었다가 Geraldine에서 Jip Jop Ice cream을 다시 맛보고 16시 20분 Christchurch로 향해 출발했다. 운전사가 선심을 써 오던 길이 아닌 새로운 코스를 관광시켜 주겠다고 72번 국도를 따라 Mt. Hutt길로 들어서 신나게 달렸는데 그만 타이어가 평크나 잭키도 부실해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pick up차 운전수가 마치 자기 일처럼 도와준다. 한 여론조사에서 뉴질랜드인은 '가는 길을 멈추고 도와주겠다'가 62%로 나타났다고 한다. 아마도 이곳은 인구는 적고 한적하여 다니는 사람이나 차도 별로 없기 때문에 상부상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교훈인 것 같다. 다행히 두 운전사의 노력으로 40여 분만에 타이어를 완전히 교환하고 나니 18시가 되었다. 도중 모피 공장 방문 일정은 취소하고 Christchurch 시내 국일관에 도착하여 돼지불고기를 배불리 먹고 서둘러 공항으로 가니 19시 20분이다. 지난 13일 크라이스트처치를 출발하여 2박 3일간 장장 1,650km를 돌아 다녔다니!

무사고 기록에 빛나는 Qantas 항공으로 21시 30분 출발하여 오클랜드(Auckland)에 22시 40분 도착. 내국 간이라 그런지 검사없이 바로 통과하여 기다리고 있던 가이드의 안내로 오늘의 숙소인 Novotel에 도착하여 방 배정이 끝나니 23시 40분이다.

7월 16일(월), 아침부터 비가 내림.

은근히 비가 그치길 바랬지만 이곳은 연중 83일이나 비가 오고, 우기의 하루 중 24번씩 바뀐 적도 있다고 하니 이 지역 날씨는 귀신도 모른단다. 오늘 일정이 짹빡하여 어젯밤 늦게 잤지만 6시 10분 기상 나팔, 7시 30분까지 식사 완료하고 8시 버스 탑승하자 첫번째 방문지로 Auckland대학을 찾아갔다. 이 대학은 1883년 설립하였고 학생 수는 2.3만 명이고 세계 100대 대학에 드는 명문으로 특히 지구과학, 의과, 건축학과 등 공학과가 유명하다. 캠퍼스도 별도로 없고 대로변에 여기저기 학과별로 나뉘어 있고 입학생의 1/2 정도만 졸업할 수 있다.

Auckland는 인도를 침략해 영웅이 된 영국의 오클랜드 경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고, 1840년부터 1865년까지 수도였다가 수도는 Wellington으로 옮겨 갔지만 여전히 뉴질랜드의 경제, 문화적 중심 도시이다.

비가 오는 데도 이곳 사람들은 우산을 쓴 사람을 별로 볼 수 없었다. 오염이 되지 않아 비를 맞아도 해가 없고 빗물이나 호수물도 식수로 쓸 수 있다고 한다.

8시 30분. 이곳도 출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심각함을 보면서 240km 떨어져 있는 Glow Worm의 고장 Waitomo를 향해 출발. 와이토모에 도착한 것은 11시 15분, 입구에 Glow-worm Cave라고 쓰여 있다. 입장료가 1인당 25달러나 하는 단체관광인데 사람 수를 세지도 않고 그대로 입장시킨다. 서로를 믿는 믿음의 사회가 형성된 것이다. 우리와는 너무 대조적이다. 우리도 언제쯤 이런 믿음의 사회가 만들 수 있을까?

안내서에 의하면 이 동굴은 1887년 영국인 탐험가 프레드 메이스와 마오리의 추장 티노라우가 발견한 것으로 200~300만년에 걸쳐 형성된(3,000만년 전이란 설도 있음) 거대한 종유동굴이라는 지질학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어두운 지하동굴 안에서 환상적인 빛을 발하는 글로웜(반딧불이 유충과 유사함)으로 유명하다.

입구에서 경사진 길을 따라 내려 가면 높이 15m의 넓은 홀이 나오고 이곳에서 기묘하게 자란 석순과 종유석을 관찰할 수 있는데 산화작용이 없는 석회동굴이라 흰색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생긴 모양에 따라 갖가지 이름을 붙여 놓았다.

여기서 계단을 따라 지하 깊숙히 내려 갔다가 다시 조그만 언덕 같은 곳을 오르니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연못이 있고 배가 떠 있다. 이곳은 침묵지역으로 빛과 소리에 민감한 반딧불이가 놀랄까봐 사진기 플래시나 보트의 모터소리도 금물이다. 손으로 끄는 보트에 25명씩 태워 지하 강을 따라 가다 보면 천정에 수만 마리의 글로웜이 모여 발광하는 환상적인 푸른빛에 입이 벌어진다.

반대편 고대의 풀 고사리가 푹푹한 동굴 밖에 나와 기념사진을 찍고 나니 12시 15분이다. 1시간 동안의 탐사였지만 석회동굴은 별로 볼 것이 없었고, 이곳 뉴질랜드에만 있다(남섬 Te Anau 호수에도 있음)는 신비의 글로웜은 가히 사람의 넋을 잃게 한다. 이 동굴 하나가 지난 100년 동안 세계의 수백만 관광객을 끌어모았다니.

근처 한국인이 운영하는 전원식당에서 모처럼 맛있는 뉴질랜드 steak를 맛보았다.

북섬은 말을 많이 기르는데 경주마도 호주산과 함께 뉴질랜드산도 알아준다고 한다.

양 다음으로 많은 가축은 소인데 뉴질랜드에 약 800만 마리(젖소 300만 마리, 육우 500만 마리)가 있고 사육은 1만평에 15마리씩만 방목을 한단다. 그것은 오염의 자연 자정(自淨)을 위해서이고 목초지도 윤번제로 키우며, 목장 중간 중간에 물통을 만들어 놓고 빗물을 받아 소가 마시게 해 놓아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자연방목으로 사육비가 들지 않는다고 하니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와 과연 경쟁이 되겠는가? 4~5년마다 산성화를 막기 위해 초지를 갈아 엎고 옥수수를 심어 땅의 기운을 둑운 후 다시 풀씨를 뿌려 초지를 만든다.

육우와 낙농제품의 95%는 수출하고 5%만 국내에서 소비한다. 가축을 도살할 때도 MAF

직원이 나와 관리한다고 하며, 여기서는 고기값은 양고기→사슴고기→쇠고기→돼지고기 순으로 비싸다고 한다.

13시 30분, 이번 탐사의 최종 목적지인 Rotorua로 향했다. 로토루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황온천 휴양지로 해발 297m에 위치해 덥지는 않으나 안개가 질게 끼이고 연중 1/3이 비를 뿌리는 곳은 날씨란다. 인구는 7만명 쯤 되지만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로토루아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867년 영국군에 밀리던 Waikato족이 Arawa족을 공격하자 아라와족은 영국군과 동맹을 맺었는데 이로써 영국군에게 새로운 관광지 하나를 선사하는 결과를 불러오고 말았다. 로토루아는 마오리 말로 호수라는 뜻의 Roto와 두 번째라는 Rua가 합친 말로 두 번째 호수란 뜻이다. 호수 중앙에 있는 Mokoia섬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연가>라는 사랑노래의 무대이기도 하다. 이 노래는 마오리 민요인 Pokare Kare로 옛날 모코이아 섬에 살던 청년 Tutanekai는 Arawa족의 평민이었는데 로토루아에 살던 오호마랑족의 추장 딸 Hinemoa와 사랑에 빠졌다. 투타네타이가 섬에서 피리를 불면 히네마오가 카누를 타고 가 만났다. 그런데 이 결혼을 반대하던 추장이 카누를 뱃줄로 묶어놓아 연인을 만날 수 없자 처녀는 상사병에 걸렸다. 어느 추운 겨울날 남자를 만나려 해엄쳐 건너가 기진맥진한 처녀를 청년이 몸온기로 살려 냄으로써 원수기간이던 두 집안이 화해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다. 연간 한국 관광객이 14만명이 넘어서자 한국의 날을 지정하고 모든 관광지에 한국어 안내책자, 안내판 등 한국 사람을 끌여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명 유황도시인 로토루아는 중앙 정부 지원은 1% 내외이고 30% 이상이 관광수입으로 시 재정을 메꾸고 있으니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곳에는 여러 가지 관광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묶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Five Star Attractions이다. 로토루아 호수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 볼거리를 묶은 것인데 양떼들이 뛰노는 애그로돔(Agrodome)과 송어 양식과 야생동물 보호 구역인 Paradise Valley Springs, 광천수 온천탕 Polynesia Spa, 농고타하산의 Skyline Skyrider, 화카레와레와 민속촌과 간헐천을 말한다.

그 중 오늘은 먼저 Paradise Valley를 들러보고 다음 폴리네시안 온천에서 목욕하기로 했다. Paradise Valley Springs(Wildlife Park)는 1939년 송어(Trout) 보호구역으로 개장한 후 1975년 친한파인 Hamlett 형제가 사들여 인접땅을 1996년에 4.5헥타르, 1998년에 천연림 8헥타르를 구입하여 확장공사 중인데 지금 한솔제지가 공원내에 식목사업을 하고 있다. 진입로와 공원내에 빽빽하게 들어선 Red wood 자연림 속을 걸으니 막혔던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이곳에서 양식하는 무지개 송어(일명 향어), 갈색 송어(Brown Trout), 야생 뱀장어를 키우는 물은 옛날 마오리 병사들이 마시던 약수로 웨이레카 샘(Weireka Springs)에서 솟아나오는 물인데 맛이 좋았다. 뉴질랜드 뱀장어는 악행성으로 색깔이 새까맣고 큰놈은 몸길이 2m, 몸무게가 50kg까지 나가는 것도 있으며 수명은 80살까지 산다고 한다. 먹이는

사람도 먹기 어려운 쇠고기 간이나 닭 간을 준다고 하니 과히 귀족이군. 그 밖에 뉴질랜드 야생 조류인 카카리키, 얼굴 모습이 박쥐 같은 주머니쥐, 마운트 쿡 돼지(Kune Kune pigs), 작은 캥거루 왈라비나 포섬 같은 유대류 등을 15시 10분부터 50분 간 관람했다. 이곳에는 all black 검은 젖소가 있는데 우유는 하얗다고 가이드가 웃긴다.

16시 10분 Waiotapu에 있는 녹용집 방문. 남섬은 녹혈제품, 북섬은 녹용제품으로 특화하였다더니 판매제품이 주로 녹용관련 제품이다. 녹용연구소에 근무한다는 한국인 전문가까지 동원하여 판매에 열을 올렸지만 홍보차 내어 놓은 녹용주만 많이 축냈다.

17시 50분. 시내 동북쪽에 있는 polynesian spa에 도착하여 준비해 온 수영복을 입고 1시간 동안 온천을 즐겼다. 이 온천은 1882년에 개장한 NZ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지하에서 분출되는 라듐과 프리스트가 함유되어 근육통과 관절염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한다. 오른쪽으로 입장하면 공동탕(pulic)과 독탕(private)이, 왼쪽으로는 호화탕(luxury) 있는데 독탕은 3층에 17개가 있고, 공동탕(N\$25)은 실내에 온천풀과 미네랄 풀이 있고, 노천탕은 온도가 다르고 성분이 다른 8개의 풀이 마련되어 있는데 물이 뜨겁지 않아 공동풀에서 수영을 하며 놀다가 서둘러 시내 중심가에 있는 숙소 겸 마오리 민속공연 장소인 Centra Hotel에 도착하니 7시다. 방 배정을 마치고 곧바로 1층 민속공연장으로 직행.

항이 요리식 Buffet와 회장이 낸 포도주를 반주로 저녁식사를 마쳤다. 토속 항이 요리는 화산지대라는 지역 특성을 활용한 음식으로 펄펄 끓는 지열을 이용해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육류와 감자를 땅속에서 쪄내는 테아라와 마오리족 특유의 요리다.

곧이어 8시부터 마오리 민속공연이 파테레(노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마오리의 콘서트는 주로 여성이 중심이 되어 이뤄지는데 긴 끈에 달린 공으로 하는 포이댄스와 막대기를 던지며 노래부르는 티 라카우댄스, 두 팀으로 나뉘 관중이 점수를 매기는 손놀이게임, 그리고 남자들이 전투에 참가하기 전의 의식인 하카춤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혀를 내밀어 상대방을 위협하는 동작으로 된 하카춤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실감할 수 있게 한다. 이야기와 노래, 그리고 춤이 있는 마오리의 콘서트는 청중들이 모두 무대 위로 나가 마오리의 전통적인 인사법인 홍이(코와 코를 비비며 나누는 인사)를 교환하며 끝을 맺는다. 공연은 9시에 끝나고 모두들 숙소로 돌아가 이번 탐사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7월 17일(목), 무척 맑고 따뜻한 날씨.

서울로 돌아간다는 설레임일까 새벽까지 잠을 설치고 6시에 기상. 돌아갈 짐을 싸서 호텔 앞에 모이니 8시다. 오늘 첫 관광은 남쪽 3km에 위치한 로토루아에서 가장 큰 유황온천지대 이자 마오리 문화의 중심지인 화카레와레와(Te Whakarewarewa Thernal Reserve)다. 먼저 마오리족의 문화가 살아 숨쉰다는 민속촌(Puiapa)에서 박물관, 마오리 공예학교(Maori

Arts Crafts Institute), 마을공화당(Whorenki), 음식저장소(Pakata), 고사리 나무로 만든 움막집 등을 구경했지만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라 별로 신기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울타리 하나만 넘으니 창조주의 조화일까 개펄과 같은 진흙이 부글부글 끓는 진흙탕(Mud Bath), 뜨거운 물이 끓는 소리가 개구리 울음소리와 비슷한 연못탕, 옅은 청색을 띤 Blue pool 여기저기서 거대한 공장지대 같이 연기와 수증기가 피어 오르고 유황냄새가 코를 찌르는 별천지가 펼쳐졌다.

더욱 신비한 것은 어떤 곳은 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지역에 키는 크지 않지만 갖가지 꽃과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떡엄 떡엄 마치 눈꽃이 핀 것 같은 하얀 Manuka 꽃(항생제나 마누카 꿀을 채취하는 꽃) 나무가 유황이 용고되어 노랗게 착색된 땅바닥과 조화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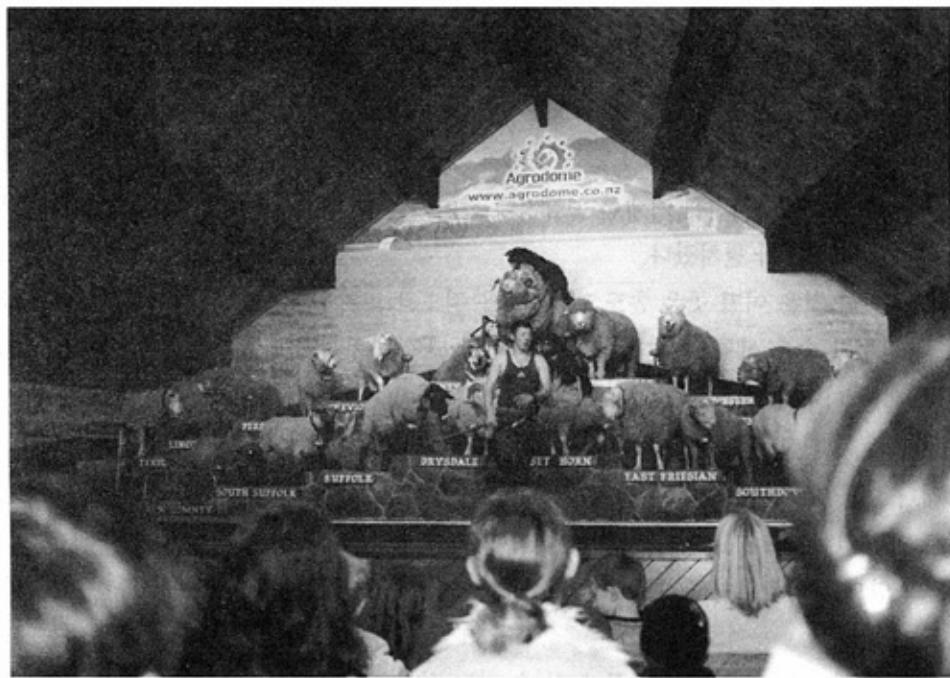
그러나 이곳의 별미는 표후투간헐천(Pohutu geyser)인데 하루에 10~25번씩 25~30m 까지 1~5분간 온천수가 솟아 오른다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쉬는 시간인지 그 장관을 못 보았다. 그 옆으로 와코로히히(Warkorohihi) 간헐천 등 다양한 모양의 온천이 좁은 지역 안에 모여 있다.

겨울철(춥지는 않지만) 엉덩이를 녹일 수 있는 천연 온돌바닥을 만들어 놓아 그 위에 앉아 좀 쉬고 있는데 가이드의 재촉에 아쉬움을 남기고 민속촌을 나섰다. 아침엔 빗방울이 떨어지고 흐렸던 날씨가 마치 봄날같이 화창하다.

근처 한국인 기념품점에 들러 쇼핑을 하고, 시내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져 있는 양쇼(Sheep Show)를 한다는 아그로돔(Agrodome)에 도착하니 10시 55분이다. 오늘의 두 번째 쇼다. 벌써 수 많은 관광객이 모여 있다.

이곳은 그 넓이가 160헥타르나 되는 뉴질랜드의 전형적인 농장으로 근처 레인보 팜스(Rainbow Farms)와 함께 하루에 세 번씩 양털깎기 쇼, 목양견의 양몰이 시범, 소젖짜기, 새끼양 우유먹이기 등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먼저 8각형의 건물 안에서 양털깎기 쇼를 관람했다. 한국어 통역 장치가 되어 있어 헤드폰으로 진행자의 모든 쇼를 관람할 수 있는데 8종류의 양쇼를 했었던 호주와는 달리 이곳은 19종의 양을 등장시켰다.

오늘 전시한 양은 양모용과 고기용이 있는데 양의 종류만 나열하면 Texel, Lincoln, Perendale, Cheviot, NZ. Romney, Corriedale, Border Leicester, English Leicester, Coopworth, Poll Dorset, Dorset Horn, Black Romney, South Suffolk, Suffolk, Drydale, East Friesian, Soutdawn, Merino, Royal Merino이다. 이 중 Merino는 전세계에 5억 마리 이상이 있고 호주, 스페인, 남미에서 많이 기르는데 이곳 남섬에 만 50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Royal Merin는 1마리에서 양모가 8kg 정도 나오는 고급종으로 가장 부가 가치가 높은 종류이다.



〈사진 8〉 마그로돔의 양털깎기 쇼

뉴질랜드에서 신랑감의 인기 직종은 경찰관 등 공무원이 가장 인기가 있고, 그 다음으로 관광 안내원과 양털깎기사라고 한다. 양털깎기사 조합이 각 농장에서 양털깎기 의뢰를 접수 받아 배정해 주면 전국을 순회하면서 깎는데 연 8개월만 일하고 연수입 6만 달러 정도를 번다. 중산층의 평균 연봉이 3.8만 달러이니 고소득층인 셈이다. 전문가는 1마리 깎는데 1~1.5분 걸리고 하루 9시간에 400~600마리(보통 200~300마리)를 깎는단다. 1마리 깎는데 1.5달러라니 그 수입을 짐작할 수 있다.

양털을 깎을 때는 먼저 양을 편안하게 양 무릎 사이에 끼우고 배(가장 더러운 곳)부터 깎는데 숫양의 고추를 조심하라고 한다. 시범이지만 순식간에 깎는 모습과 아이들을 불러내 어린 양에게 젖을 먹이게 하며 관객과 함께 하는 쇼를 1시간 동안 보고 나와 별도로 마련된 곳에서 목양견의 양들이 쇼를 보았다. 양들도 무리 속에 두목이 있는데 목양견이 두목을 찾아내어 눈 싸움으로 두목을 굴복시켜 쉽사리 양몰이를 한다고 한다.

12시에 로토루아 호수 서북쪽에 있는 Skyline Skyrider로 달려갔다. 여서 해발 900m의 농고타하(Ngongotaha)산 정상까지 연결된 스카이라인 콘돌라를 타고 올라가 로토루아 전경을 감상했다.

남태평양의 강렬한 햇빛이 호수 위에 부서져 수 많은 보석을 만들어내고 호숫가에는 로토루아 시가지가 다소곳이 앉아 있다. 선경이 이보다 더 할소냐!

산 정상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마오리 전통식을 맛보았는데 다른 음식은 맛이 있었으나 사슴고기의 노랑내가 역겨웠다. 다시 곤돌라를 타고 내려오니 13시 30분이다. 오클랜드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다. 가는 도중 날씨는 흐렸다, 빗방울이 떨어졌다, 해가 나왔다 수 없이 변덕을 부린다. 정말 이곳 날씨는 귀신만이 아나보다. 초원의 나라답게 겨울인데도 푸른 초원이 끝없이 이어진다. 그 초원 사이로 가이드의 뉴질랜드 민요를 들으면서 16시에 마누카우(Manukau)에 있는 교포가 운영하는 양모공장을 방문했다. 양모제품에 대한 설명을 몇 번 들었더니 이젠 제법 양모에 대한 분별력이 생겼다.

출국시간에 쫓겨 서둘렀지만 오클랜드 시내의 교통혼잡으로 18시 20분에야 낙원식당에 도착했다. LA갈비, 안심, 장어구이, 된장국에 여행사에서 제공한 포도주를 푸짐하게 먹고 마시고 나서 공항으로 달려갔더니 19시다. 이별이 아쉬웠든지 비가 주룩 주룩 내린다. 까다로운 출국절차를 마치고 20시 30분 탑승하여 21시에 드디어 오클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하였다. 인천을 향하여(7월 8일부터 11일 간의 대탐사를 마치고 18일 아침 5시 15분에 인천국제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아듀! 호주여! 뉴질랜드여!

참 고 문 헌

1. 넥스투어, 자신만만 세계여행(호주편), 삼성출판사, 2002.
2. 정동영 외 3인, 호주·뉴질랜드(100배 즐기기), 중앙 M&B, 2003.
3. Nex Tour, Yahoo 여행 : 호주, 뉴질랜드, Yahoo Korea Corp, 2003.
4. Sydney, The Official Guide, Autumn / Winter 2003.
5. Trael Index, Travel Guide to NZ, Travel Index Co. 2003.
6. itag, Visitor guide to NZ, itag Co, Winter 2003.
7. Jasons, Travel guides to NZ, Jasons Travel Media LTD, 2003.
8. AA, Visitor guide to NZ, AA Travel Co., 2003.
9. atoz, Visitor guide to NZ, atoz, 2003.

해외 학술탐사활동 약사

회차	탐사 년월일	탐사지역	탐사인원	후원기관
1	1994 7. 24~8. 6	영국(런던, 베밍헴, 맨체스터),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네덜란드(암스테르담), 스위스(취리히), 러시아(모스크바, 쌍페페르부르크)	33명	쌍용
2	1995 7. 25~8. 4	스위스(취리히), 스페인(토레도, 마드리드), 프랑스(니스, 깐느), 모나코(모나코), 이태리(제노아,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 나포리, 품베이, 소렌토)	33명	삼성
3	1996. 7. 15~25	이집트(카이로, 룩소르), 터키(이스탄불), 그리스(아테네)	32명	교보
4	1997 7. 18~30	덴마크(코펜하겐), 노르웨이(卑爾根, 오슬로), 스웨덴(스톡홀름), 핀란드(헬싱키), 체코(프라하)	34명	아남
5	1999. 7. 21~27	중국(장춘, 연길, 백두산, 북경, 대련)	32명	현대
6	1999 8. 14~15	금강산	18명	현대
7	2000 7. 9~18	독일(프랑크푸르트), 폴란드(바르샤바), 슬로바키아(브라티슬라바), 불가리아(소피아), 헝거리(부다페스트), 오스트리아(비엔나)	33명	LG
8	2001. 7. 9~19	캐나다(밴쿠버, 켐거리, 토론토), 미국(보스톤, 뉴욕)	32명	SK
9	2002. 7. 28~8.	미국(LA), 멕시코(멕시코시티), 페루(리마, 쿠스코, 우르밤바, 마추피치), 브라질(桑파울로, 리오, 이과수), 아르헨티나	32명	두산
10	2003. 7. 8~18	호주(시드니,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뉴질랜드(크라이스트처치, 퀸스타운, 밀포드, 오클랜드, 와이토모, 로토루아)	32명	보령

2003년 현재 국제학술심포지엄은 12회를 개최했으며 해외학술탐사는 10회를 다녀왔음.

附 錄

- 學術誌『經營史學』의 發刊實績
英文學術誌, The Journal of Business History의 發刊實績
- 韓國經營史學會 會則
- 韓國經營史學會「創業大賞」規程
- 韓國經營史學會「專門經營者大賞」規程
- 經營史學 學術賞 規程
- 韓國經營史學會 論文集 編輯委員會 設置 內規
- 「經營史學」投稿要領
- 基金運營委員會 規程
- 韓國經營史學會 任員名單

學術誌『經營史學』의 發刊實績

1. 創刊號(1986年 12月 30日 發刊)

〈論 文〉

特輯：省谷 金成坤 研究

- ① 省谷의 生涯와 經營理念(金柄夏)
- ② 省谷의 政治(金舜坤)
 - 主로 政治家로서의 그의 片貌
- ③ 省谷과 育英·文化事業(崔泰鎬)
- ④ 省谷의 言論機關 運營(權丙卓·金柄夏)
- ⑤ 省谷의 體育活動과 企業 및 體育界에 미친 影響(裴守鎮)
- ⑥ 轉換期의 農場經營과 奴婢(高承濟)
- ⑦ 經營史 研究 方法論 緒說(金鋼淇)

〈論 評〉

- ⑧ 韓國會計史 研究(尹根鎬 著)(安潤泰)
- ⑨ 藥令施 研究(權丙卓 著)(金孝東)

2. 第2輯(1987年 12月 30日 發刊)

〈論 文〉

特輯：企業活動家의 事例

- ① 小南 金台原의 事蹟과 金井金鑛의 經營(金峻憲)
- ② 省谷의 企業家活動(金柄夏)
- ③ 省谷의 經營과 人脈(高在經)
- ④ 三共合資會社에 관한 考察(金柄夏)
- ⑤ 省谷과 金星紡織(黃明水)
- ⑥ 韓國 시멘트工業의 展開와 雙龍洋灰(趙璣濬)
- ⑦ 朝鮮時代의 人口規模推計(I)(李永九·李鎬澈)
- ⑧ 美國의 經濟史 研究(黃明水)

-過去와 現在-

〈論 評〉

韓國廣告史(申寅燮 著)(金 南 奎)

日本的經營論爭(岩田龍子 著)(李 義 圭)

3. 第3輯(1988年 12月 30日 發刊)

〈論 文〉

- ① 湖巖의生涯와 經營理念(金 柄 夏)
- ② 大同法 研究(金 玉 根)
- ③ 會計發達史攷(高 承 禧)
- ④ 朝鮮時代의 人口規模推計(Ⅱ)(李 永 九 · 李 鎬 澈)
—17, 18세기 人口增加率 推計을 中心으로—
- ⑤ 日本의 經營史學界 및 研究現況(孫 一 善)

〈論 評〉

- ⑥ 『現代經營史』(金信雄 · 朴載錄 共著)(金 商 圭)
- ⑦ 『財閥の比較史 研究』(安岡重明他著)(李 春 根)

4. 第4輯(1989年 12月 30日 發刊)

〈論 文〉

特輯 : 湖巖 李秉喆 研究

- ① 三星物產의 成立과 湖巖의 企業家活動(黃 明 水)
- ② 湖巖의 事業轉換(金 柄 夏)
—第一製糖의 成立을 中心으로—
- ③ 湖巖과 第一毛織(趙 璞 潤)
- ④ 湖巖의 多角的 經營과 韓國肥料(金 柄 夏 · 崔 明 奎)
- ⑤ 湖巖과 三星電子의 事業展開(安 春 植)
—特司 半導體 事業을 中心으로—
- ⑥ 湖巖의 育英 · 文化事業觀과 事蹟(劉 元 東)
—龍仁自然農園을 中心으로—
- ⑦ 戰前期 日本의 財閥所有者와 專門經營者와의 關係(安岡重明)
- ⑧ 財閥(史)論과 企業集團의 接點(石川健次郎)

〈動 向〉

- ⑨ Fuj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siness History에 다녀온 所感(金 聖一)

5. 第5輯(1990年 12月 30日 發刊)

〈論 文〉

- ① 1979年까지의 現代建設의 資本蓄積과 經營理念(金 柄 夏)
② 住友財閥의 形成과 廣瀬宰平의 企業家活動(作道洋太郎)
③ 農村住民의 構成과 存在樣態에 관한 經濟史的研究(李 永 九 · 李 鎬 澈)
—慶北 軍威郡 A마을의 事例를 中心으로—

〈動 向〉

- ④ 韓國經營史學의 研究動向(金 商 奎)

6. 第6輯(1991年 12月 31日)

〈論 文〉

- ① 우리나라 民族銀行의 經營近代化 過程에 관한 研究(閔 庚 旼)
—近代 金融機關의 成立過程을 中心으로—
② 韓國勞動責任形成史의 定立을 위한 序說的 研究(金 聖壽)
③ 日本—產業化 初期의 勞使關係(康 季 三)
④ 財閥—政府關係의 歷史的 推移(柳 町 功)
—三星財閥의 事業擴張過程을 中心으로—
⑤ 意思決定支援會計情報 システムの 展開過程についての一考察(李 盈 周)
⑥ 日本資本主義 成立期의 工業構造(黃 完 昱)
⑦ 1945~1950 忠南製絲(株)의 經營構造(金 惠 水)

7. 第7輯(1992年 12月 30日 發刊)

〈論 文〉

- ① 日帝時代의 市場과 商業活動에 관한 研究(金 聖壽)
② 忠清北道의 工業發達過程(金 信 雄)
③ 「社史」分析을 通한 韓國企業의 發展段階別 特性에 관한 研究(李 宗 舜 · 池 祿 泽)

- ④ 牧山 許周烈의 生涯와 經營理念(朴光緒)
- ⑤ 解放後 民間貿易에 관한 研究(柳基惠)
- ⑥ 在來市場의 生成·發展에 따른 流通近代化에 관한 研究(李相玉)
- ⑦ 戰後日本における企業會計制度の發展史(高承禧)

〈評論〉

- ⑧ 崔泰鎬 著,『近代韓國經濟史研究序說』(徐吉洙)
- ⑨ 金宗炫 著,『工業化와企業家活動』(朴光緒)

8. 第8輯(1993年 12月 30日 發刊)

〈論文〉

- ① 獨逸商社의 對極東進出(金光洙)
－1990年까지에 있어서 韓國과 日本을 中心으로－
- ② 都中에 관한 研究(金柄夏)
－開城 선주전과 海州 선주전을 中心으로－
- ③ 韓國의 生命保險產業經營에 관한 史的 考察(朴光緒)
- ④ 染織界의 始祖, 金德昌 研究(李漢九)
－東洋染織株式會社를 中心으로－
- ⑤ 金輸出入의 史的 考察(金町新)
- ⑥ 東洋拓殖株式會社의 朝鮮經濟收奪의 金融業經營(강태경)
- ⑦ 近代株式會社의 形成과 儒教의 價值觀의 變化(柳町功)
－明治初期와 韓末期의 比較－
- ⑧ 스위스의 傳統線業(崔榮順)
－The Microeconomic Determinants of Consolidated Firms－
- ⑨ Performace(1905~1919)(Kang, Joo-Hoon)

9. 第9輯(1994年 12月 30日 發刊)

〈論文〉

特輯:柳一韓 研究

- ① 柳一韓의 生涯와 經營理念(黃明水)
- ② 柳一韓의 企業活動과 經營戰略(安春植)
- ③ 美國에서의 柳一韓의 經濟·政治·社會活動(金光洙)

- ④ 柳一韓의 社會事業 및 育英事業(金 峴 經)
- ⑤ 柳韓洋行의 成長과 發展(逝去時까지) (金 聖 壽)
- ⑥ 柳韓洋行과 韓國製藥事業(金 信 雄)
- ⑦ 柳韓韓의 遺業과 繼承發展(朴 輽 錄)
- ⑧ 柳韓韓의 經濟思想과 社會的 責任(朴 光 緒)
- ⑨ 柳韓洋行의 經營陣들(高 承 禧)
- ⑩ 韓國經營史學會 產業革命地 學術調查 紀行文(金 相 圭)

10. 第10輯 第1號(通卷 10號) (1995年 6月 30日 發刊)

〈研究發表論文〉

- ① 日帝下 土着綿工業資本의 性格에 관한 研究(I) (李 漢 九)
- ② 東西貿易의 史的研究(金 新)
- ③ 韓國 労組 組織形態의 變遷에 관한 研究(金 倉 宣)
- ④ 地中海 中世 商業史 考察(金 聖 壽)
- ⑤ 中世 地中海 沿岸의 貿易經路에 관한 研究(朴 光 緒)
- ⑥ 中世紀 유럽지역의 會計學 發展史에 관한 研究(李 建 烹)
- ⑦ 이탈리아 複式薄記의 會計史的 考察(高 承 禧)

〈一般論文〉

- ⑧ 獨逸의 產業革命(金 光 洙)
- ⑨ 獨逸 社會的 市場經濟의 史的 展開過程(黃 俊 性)
- ⑩ 韓國 在來市場의 變遷과 流通近代化에 관한 研究(李 相 玉)
- ⑪ 1950년대의 工業化와 資本形成(徐 賛 洙)
- ⑫ 資本國際化와 韓國經濟(李 甲 泳)

11. 第10輯 第2號(通卷 11號) (1995年 12月 31日 發刊)

特輯 : 光復50周年記念 해방등이 企業 研究

- ① 靜石의 生涯와 經營理念에 관한 研究(金 聖 壽)
- ② 韓進그룹 形成過程 研究(李 漢 九)
- ③ 東亞建設 創業者의 生涯와 經營理念(高 承 禧)
- ④ 東亞建設의 成長과 發展(金 光 洙)

- ⑤ 中外製藥의 成長과 創業理念(朴光緒)
- ⑥ 中外製藥의 成長과 發展(金信雄)
- ⑦ 大態製藥 윤영환의 生涯와 經營理念에 관한 研究(安春植)
- ⑧ 大態製藥의 成長과 發展(李建熹)

12. 第11輯 第1號(通卷 12號) (1996年 3月 30日 發刊)

〈論 文〉

特輯：大山 慎鏞虎 研究

- ① 大山 慎鏞虎의 生涯와 經營理念(黃明水)
- ② 教保生命保險의 成長과 發展(金聖壽)
- ③ 教保生命保險 創立初期의 企業活動과 經營戰略(李建熹)
- ④ 大山 慎鏞虎의 社會的 責任과 公益財團 設立運營(金光洙)
- ⑤ 教育生命保險과 韓國保險事業(朴光緒)
- ⑥ 教保生命保險의 經營陣(高承禧)

13. 第11輯 第2號(通卷 13號) (1996年 12月 30日 發刊)

〈學術發表論文〉

特輯：創立 10周年 記念特輯

- ① An Entrepreneur Spirit in Yong-Ho Shin of Top Management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金聖壽)
- ② 희망의 都市國家(金光洙)
- ③ 產業標準化의 歷史的 考察(金相圭)
- ④ 資本主義 發展過程에서 資本蓄積과 資本類型에 관한 研究(金性基)
- ⑤ 古代貿易構造의 特性에 관한 研究(金新)
- ⑥ 古代 會計發展史 研究(李建熹)
- ⑦ 바빌로니아時代의 商業과 商人(李光周)
- ⑧ 勞使情報共有와 企業成果에 관한 研究(柳炳胄)
- ⑨ 品質管理의 歷史的 考察(韓漢洙)

〈一般研究論文〉

- ⑩ 業績評價를 위한 目標管理의 效率的 活用方案(金寅鎬)

-
- ⑪ 東洋拓殖會社의 土地 收奪經營(姜 泰 景)
 - ⑫ 日本的 勢使關係의 特質과 形成背景에 관한 研究(李 元 雨)

〈其 他〉

- ⑬ 中世 地中海沿岸 商業主導地 學術調查(朴 光 緒)
- ⑭ 古代商業 및 貿易都市 學術調查(崔 榮 順)
- ⑮ 韓國經營史學會의 10年史 管見(高 承 祺)

14. 第12輯 第1號(通卷 14號) (1997年 6月 31日 發刊)

〈論 文〉

特輯：亞南그룹 創業者 金向洙 研究

- ① 牛穀의 生涯와 營業理念의 研究(金 聖 壽)
- ② 亞南그룹의 成長과 發展(黃 明 水)
- ③ 牛穀 金向洙의 企業活動과 經營戰略(高 承 祺)
- ④ 亞南그룹의 사회적 責任과 公益事業(金 光 洊)
- ⑤ 아남그룹 經營陣의 寄與度 分析(李 建 憲)
- ⑥ 亞南그룹과 韓國의 電子產業(朴 光 緒)

15. 第12輯 第2號(通卷 15號) (1997年 11月 15日 發刊)

〈論 文〉

特輯：湖巖思想의 再照明 研究

- ① 湖巖의 삶의 哲學과 企業의 歷程(趙 磯 濬)
- ② 湖巖의 經營理念 再照明(黃 明 水)
- ③ 韓國經濟發展에 있어서 湖巖의 產業의 寄與에 관한 考察(金 聖 壽)
- ④ 湖巖의 經營觀을 통해 본 企業의 社會的 責任(金 光 洊)
- ⑤ 湖巖의 韓國經營史學에서의 位置(李 建 憲)
- ⑥ 湖巖의 文化精神(高 承 祺)

16. 第12輯 第3號(通卷 16號) (1997年 12月 30日 發刊)

〈學術發表 論文〉

- ① 韓國經營理念의 愛國的 傳統과 21世紀 企業家의 價值觀(金 柄 夏)

- ② 英國퓨리던(基督教)의 企業倫理와 韓國 基督教 企業人의 倫理(黃 明 水)
- ③ 바이킹과 북유럽상업권(金 光 洙)
- ④ 유럽聯合(EU)의 會計標準化 過程(高 承 禧)
- ⑤ 노벨 經濟學賞 受賞者の 財務理論研究(李 建 憲)
- ⑥ 海外進出路의 歷史的 特性에 관한 研究(金 新)
- ⑦ 스웨덴 경영참가제의 전환 과정(安 鍾 泰)
- ⑧ 현지인 노무관리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柳 炳 胜 · 방 진 방)

〈一般研究 論文〉

- ⑨ 韓國 財閥의 形成 · 發展過程과 企業家精神에 관한 研究(朴 有 榮)
- ⑩ 東隱 金容完의 財界活動과 經營哲學(朴 輽 錄)
- ⑪ 歸屬 編織工場의 設立과 變化類型에 관한 研究(徐 文 錫)
- ⑫ 近代經濟學의 스톡홀름學派에 관한 研究(李 光 鍾)
- ⑬ 華橋의 資本形成過程과 經營戰略(李 德 勳)
- ⑭ 일본 벤처기업의 생성배경과 경영과제(박 경 열)
- ⑮ 손해보험자와 운송인의 이해관계 변화에 관한 사적 연구(李 洪 武)
- ⑯ 임금협상시 회계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집단의 반응연구(홍 정 화 · 이 환 수 · 金 寅 鎬)
- ⑰ 原價會計의 史的 考察(金 相 圭)

〈其 他〉

- ⑯ 북구 바이킹의 후예를 찾아서(최 영 순)

17. 第13輯 第1號(通卷 17號) (1998年 6月 30日 發刊)

〈論文〉

- ① 日帝下 民族系 企業集團 形成과 性格에 관한 研究(金 聖 壽)
- ② 知識 社會的 觀點에서 再照明한 프레더릭 테일러의 生涯와 思想(李 在 奎)
- ③ 중국 국유기업의 발전사에 관한 연구(宋 在 薫)
- ④ 러 · 중 기업개혁제도의 경영사적 의미분석(曹 圭 珍)
- ⑤ 일본의 순수 지주회사 부활(신 장 철)
- ⑥ 複式簿記와 資本主義의 發達에 관한 文獻史的 研究(高 承 禧)
- ⑦ 地理上 發見이 유럽에 미친 影響에 관한 研究(金 新)
- ⑧ 한국 금융시장의 국제화과정에서 기관투자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황 남 일 · 김 유 상)

- ⑨ 일본의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의 역사적 고찰(李洪茂)
- ⑩ 日帝下 土着綿工業資本의 性格에 관한 研究(2)(李漢九)
- ⑪ 해방이후 귀속재산의 변동에 관한 연구(徐文錫)
- ⑫ 成功的인 年俸制 導入과 運營方案(金寅鑄)

18. 第13輯 第2號(通卷 18號) (1998年 12月 30日 發刊)

〈國際學術發表 論文〉

- ① 한국경영사학의 연구동향(黃明水)
- ② 韓國財閥의 經營史的研究(金聖壽)
- ③ 上州·民間機械製系の先驅者 星野長太郎の伊仏蚕糸業視察(1)(加藤隆)
- ④ 三井財閥の解体と企業集團への再編成(柳町功)
- ⑤ 中國國有企業改革의 歷史性考察(劉曙野·許柱娟)
- ⑥ 한국기업의 對中國시장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宋在薰)
- ⑦ 斗山그룹의 형성 과정, 1952~1996년(金東雲)
- ⑨ 러·중·북한의 대외교역에 대한 발전과정(曹圭珍)

〈一般研究論文〉

- ⑩ 日本獨占資本形成期의 勞動運動(康季三)
- ⑪ 戰後 日本의 經濟外交史(姜太勳)
- ⑫ 日本의 近代化 初期에 있어서 財務諸表制度의 展開(高承禧)
- ⑬ 東海表記의 歷史的小考(金新)
- ⑭ 마케팅조사의 윤리문제 연구(李光周)
- ⑮ 수출보험의 정책대응에 관한 역사적 전개(黃南逸)

19. 第14輯 第1號(通卷 19號) (1999年 5月 5日 發刊)

〈論 文〉

特輯 : 峨山 鄭周永 研究

- ① 峨山 鄭周永의 生涯와 經營理念(金聖壽)
- ② 現代그룹의 發展과 經營戰略(李建憲)
- ③ 峨山精神과 現代그룹의 企業文化(高承禧)
- ④ 峨山 鄭周永의 社會的 責任精神과 社會福祉事業(金新)
- ⑤ 現代그룹 金融企業의 成長과 發展(李洪茂)

- ⑥ 現代그룹이 韓國經濟發展에 미친 影響(李光鍾)

20. 第14輯 第2號(通卷 20號) (1999年 6月 30日 發刊)

〈論 文〉

- ① Rhee Syng Man Government and Korea's Economic Development
(Sul, Bong-Sik · Yoon, Jae-Hee)
- ② 孔孟思想과 儒教資本主義(梁創三)
- ③ 후례더릭 테일러와 피터 드러커의 經營思想에서의 生產性 研究(李在圭)
- ④ 日帝下 土着綿工業資本의 性格에 관한 研究(3)(李漢九)
- ⑤ 美國 地方政府의 會計制度에 關한 考察(金相圭 · 尹泰和)
- ⑥ 朝鮮後期 實學의 現代經營學의 再照明(朴晟洙)
- ⑦ 歸屬財產의 消滅에 關한 研究(徐文錫)
- ⑧ 美國 會計基準의 變遷過程(崔松吉)
- ⑨ 韓·美 生命保險 情報公示制度의 歷史的 考察(金億憲)
- ⑩ 組織社會化 效果性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과 企業 下部文化의 役割(김우택 · 김인호)
- ⑪ 品質要因과 品質프로그램의 效果에 關한 實證的 研究(安榮珍)

21. 第14輯 第3號(通卷 21號) (1999年 12月 30日 發刊)

〈論 文〉

- ①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 30년과 對中國 投資 10년의 特徵(金榮來)
- ② 分斷國家의 經濟力 比較와 經濟統合方案(金聖壽)
- ③ 韓·中 貿易史 研究(金新)
- ④ 中國의 會計制度 發展史(李建憲)
- ⑤ 中國에 在投資한 韓國企業의 立地決定要因에 關한 研究(宋在薰)
- ⑥ 韓國企業在華投資分析(許挂娟)
- ⑦ 東西方國家市場經濟模式比較研究(孫宇暉 · 周尚容)
- ⑧ 三井財閥における番頭經營について(柳町功)
- ⑨ 中國 國有企業 改革與發展的 曆程與前景(劉建民)
- ⑩ 中國의 外換制度 變遷史에 關한 分析(曹圭珍 · 崔容民)

22. 第15輯 第1號(通卷 22號) (2000年 5月 30日 發刊)

〈論 文〉

特輯 : 蓮庵 具仁會 · 上南 具滋暻 研究

- ① 蓮庵 具仁會와 上南 具滋暻의 生涯와 經營理念(金 聖壽)
- ② LG그룹의 成長과 經濟發展의 寄與度(薛 凤植)
- ③ LG그룹의 發展과 經營戰略(李 建憲)
- ④ 蓮庵 具仁會와 上南 具滋暻의 社會的 責任과 社會福祉事業(崔鍾泰)
- ⑤ LG그룹의 韓國經營史學에서의 位置(柳炳胄)
- ⑥ LG精神과 企業文化(高承禧)

23. 第15輯 第2號(通卷 23號) (2000年 6月 30日 發刊)

〈論 文〉

- ① LG의 東ユ럽 進出現況과 展望(金 新)
- ② 東ユ럽 諸國의 會計制度 發展史(李 建憲)
- ③ 유럽의 品質動向과 標準化事業에 관한 考察(韓漢洙)
- ④ 東ユ럽諸國과 經濟實相(金光洙)
- ⑤ 電子商去來 發展史에 관한 研究(金相圭)
- ⑥ 大山思想의 獨創性과 世界化의 追究(朴光緒)
- ⑦ 20世紀 韓國海運의 歷史的 展開에 관한 考察(吳世榮 · 李源哲)
- ⑧ 附加價值稅法令의 變遷史에 관한 研究(宋東燮)
- ⑨ 栗谷 李珥의 經營思想에 관한 研究(梁創三)
- ⑩ 先進國의 社史 發刊傾向(李漢九)

24. 第15輯 第3號(通卷 24號) (2000年 12月 31日 發刊)

〈論 文〉

- ① 中國 會計制度의 變遷史에 관한 研究(宋東燮)
- ② 日本 炭礦의 朝鮮人勞動者에 대한 勞務管理, 勞動統制 研究(1939~1945)(金旻榮)
- ③ 中國의 WTO加入과 韓·中 經濟協力方案에 관한 研究(宋在薰)
- ④ 中世 및 近代期의 商工業에 종사한 女性研究(崔榮順)
- ⑤ Bluecord Technology의 成長과 林采煥의 經營理念(柳炳胄)

- ⑥ 企業家型 經營者의 企業家 活動－事例 : FILA KOREA(株) 尹潤洙 社長－(金 荣來)
- ⑦ 韓國財閥における オーナー 経営体制－絶対的支配の変容可能性について－(柳町 功)
- ⑧ 中國私營企業의 變遷與發展(嚴 法 善)

〈其 他〉

- ⑨ 東ユ럽 學術調査 踏査記(朴 京 姬)
- ⑩ 專門經營者의 使命과 役割(林 采 煥)
- ⑪ 專門經營者의 特性과 類型(尹 潤 浚)

25. 第16輯 第1號(通卷 25號) (2001年 5月 31日 發刊)

〈論 文〉

特輯 : SK그룹 崔鍾賢 研究

- ① 崔鍾賢의 生涯와 經營理念(金 聖 壽)
- ② SK그룹의 成長과 發展(韓 漢 浚)
- ③ SK그룹의 發展과 經營戰略(李 建 憲)
- ④ 創業者 崔鍾賢의 社會的 責任과 社會福祉事業(趙 東 成)
- ⑤ SK그룹의 韓國經營史學에서의 位置(李 承 郁)
- ⑥ SK그룹의 企業文化(高 承 禧)

26. 第16輯 第2號(通卷 26號) (2001年 6月 30日 發刊)

〈論 文〉

- ① 美國에 있어서 經營史學의 生成과 發展(金 荣來)
- ② 美國 損害保險產業의 現況과 韓國 保險社의 進出戰略(金 億 憲)
- ③ 美國의 品質經營의 發展과 役割(韓 漢 浚)
- ④ 美合衆國의 管理會計 發展史와 國際比較(李 建 憲)
- ⑤ 캐나다의 IT產業에 關한 史的考察(林 外 錫)
- ⑥ SK의 北美進出 現況과 展望(金 新)
- ⑦ 우리 나라 稅效果會計制度의 展開過程(高 承 禧)
- ⑧ 韓國의 會社史 發刊傾向에 關한 研究(李 漢 九)
- ⑨ 日本 総合商社의 戰後 解體와 再編成에 關한 研究(申 章 澈)
- ⑩ 日本 中小企業의 海外投資戰略의 變遷(朴 京 烈)
- ⑪ 日本 企業의 戰略的 情報시스템에 대한 歷史的 考察(韓 光 熙)

27. 第16輯 第3號(通卷 27號) (2001年 12月 30日 發刊)

〈論 文〉

- ① 금호 박인천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김 정 식)
- ② 퇴계 이황의 경영사상에 관한 연구(양 창 삼)
- ③ 우리나라 會計制度의 變遷過程에 관한 研究(田雄秀 · 宋東燮 · 李信男)
- ④ 우리나라 會計原則 以前時代의 企業會計制度에 관한 研究(高 承 禧)
- ⑤ 무역정책수단으로서의 우리나라 수출보험 발전과정(박 현 희)
- ⑥ 東部 獨逸의 對外貿易構造와 內獨貿易의 發展(金 泰 憲)
- ⑦ 검은 아프리카에 대한 프랑스의 식민정책에 관한 연구(우 영 환)
- ⑧ 東海 표기의 역사적 과정(金 新)
- ⑨ 한국 공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기법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안영진 · 송명식)
- ⑩ 構造調整專門會社를 통한 企業構造調整 促進에 관한 研究(李贊民 · 李在述)

〈其 他〉

- ⑪ 제10회 해외학술팀사 및 국제심포지엄 참관기(김상규 · 임외석)

28. 第17輯 第1號(通卷 28號) (2002年 5月 30日 發刊)

〈論 文〉

特輯 : 梅軒 朴承稷 · 蓮崗 朴斗秉 研究

- ① 梅軒 朴承稷과 蓮崗 朴斗秉의 生涯와 經營理念(金 聖 壽)
- ② 斗山그룹의 成長과 發展(李 承 郁)
- ③ 斗山그룹의 企業活動과 經營戰略(李 建 憲)
- ④ 梅軒 朴承稷과 蓮崗 朴斗秉의 社會的 責任과 社會福祉事業(朴 光 緒)
- ⑤ 斗山그룹의 韓國經營史學에서의 位置(韓 漢 洙)
- ⑥ 斗山그룹의 企業文化(高 承 禧)

29. 第17輯 第2號(通卷 29號) (2002年 6月 30日 發刊)

〈論 文〉

- ① 韓國 財閥의 性格에 관한 연구(이 한 구)
- ② 개성상인정신 발달사 연구(金 聖 壽)

- ③ 한국 기업 생성기의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고찰(안 춘 식)
- ④ 금호 박인천의 경제철학에 관한 연구(김 정 식)
- ⑤ 관계마케팅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의 관계마케팅 연구(김 갑)
- ⑥ 국내 은행합병의 역사적 고찰 : 1910~2000년(박 노 경)
- ⑦ 과학적 관리운동의 국제적 확산과정 연구(이 재 규)
- ⑧ 기업의 공연예술지원의 역사적 고찰과 경제학적 접근(전 형)
- ⑨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생성 및 변천에 관한 연구(조 성 제)
- ⑩ 일본의 전후 재벌의 해체와 벤처창업붐(강 판 국)
- ⑪ 斗山그룹의 海外進出戰略(金 新)
- ⑫ 南美諸國의 會計發展史 研究(李 建 憲)

30. 第18輯 第1號(通卷 31號) (2003年 3月 31日 發刊)

〈論 文〉

- ① 한국 경영사학의 연구동향(황 명 수)
- ② 日本經營史學界の最近の潮流と研究成果(宮 本 又 郎)
- ③ 여성 CEO 金正子의 기업활동과 기업가정신(李 建 憲)
- ④ 솔방울 김치의 발전과 여성 CEO(김 성 수)
- ⑤ 美國財務會計理論의 形成에 관한 研究(高 承 禧)
- ⑥ 美國會計教育의 發展史에 관한 研究(李 賛 民)
- ⑦ 日帝下 大規模 縱紡織工場의 高級技術者 研究(徐 文 錫)
- ⑧ 韓國 燒酒產業發展에 관한 史的 考察(吳 成 東)
- ⑨ 중국의 근대화와 국가경영에 대한 역사적 고찰(양 창 삼)
- ⑩ 코맥스의 世界經營에 대한 歷史的 照明(이승영 · 최용록)
- ⑪ 中南美 經濟改革의 变천과정과 시사점(金 誠 恕)
- ⑫ 日帝下 東海와 地名改稱事例研究(김 신)
- ⑬ 中國 鄉鎮企業의 發展段階에 관한 연구(유병주 · 신광철)
- ⑭ 산업구조의 변화를 통해 본 지역경제의 고찰(金 泰 明)

31. 第18輯 第2號(通卷 31號) (2003年 6月 30日 發刊)

〈論 文〉

特輯 : 中甫 金昇浩 研究

- ① 中甫 金昇浩의 生涯와 經營理念(金 聖壽)
- ② 保寧그룹의 成長과 發展(李 承 郁)
- ③ 保寧그룹의 企業活動과 經營戰略(李 建 惠)
- ④ 中甫 金昇浩 會長의 社會的 責任과 社會福祉 事業(朴 光 緒)
- ⑤ 保寧製藥의 創業精神과 企業文化(高 承 禧)

● 英文學術誌

The Journal of Business History

1. Volume 1, No. 1 (October 31, 2000)

- ①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and the Introduction of Scientific Management in Poland between 1863 and 1939 (Jae-Kyoo Lee)
- ② A History of the Cotton Manufacturing Industry In Russia To 1917 (Dong-Woon Kim)
- ③ A Study on the Historical Geography of East Sea(Shin Kim)
- ④ Chinese Workers' Value of Korean Manufacturing Companies in China (Byung-Joo Ryu)
- ⑤ The Effect of the Number of Trades and Trade Size on the Price in a Security Market(Kyong-Shik Eom, Kwang-Ro Lee)
- ⑥ The German Manufacturing Industry—Old Achievements, New Challenges (Dr. Bernhard Seliger)
- ⑦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Developing Future of The Non-State Owned Economy in China(Wang Kai)

2. Volume 2, No. 1 (October 31, 2001)

- ① A Study on the Business History of California Steel Industries : Focusing on the Success Factor of Multinational Company(Sae-Young Kim)
- ② Causes of the Great Depression(1929~33) in the United States and Economic Policy(Hun-Dae Lee)
- ③ Applying the Practical Science(Silhak) to the Philosophy of Commerce(Bon-g-Sik Sul · Jae-Hee Yoon)
- ④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Scotland(Dong-Woon Kim)
- ⑤ Appendix : The Studies on the Jong-Hyon Chey, Founder of SK Group

社團 韓國經營史學會 會則

第1章 總 則

第1條(名稱) 本 學會는 韓國經營史學會(이하 本 學會)라 한다.

第2條(所在地) 本 學會의 事務所는 大韓民國에 둔다.

第3條(目的) 本 學會는 經營史에 관련된 學術研究와 會員 相互間의 친목도모를 目的으로 한다.

第4條(事業) 本 學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行한다.

- (1) 經營史와 이에 관련된 研究와 調查
- (2) 會誌 및 研究書籍의 刊行
- (3) 研究發表會 및 公開講座의 開催
- (4) 本 學會와 目的을 같이하는 國內外 關聯機關과 產業界와의 交流
- (5) 創業大賞 選定에 관한 事業
- (6) 其他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關聯事業

第5條(機構) 本 學會는 前條의 事業을 推進하기 위하여 다음의 委員會를 두며 各 委員會의 設置內規는 따로 定한다.

- (1) 編輯委員會
- (2) 創業大賞審查委員會
- (3) 專門經營者大賞 審查委員會
- (4) 經營史學 學術賞 審查委員會
- (5) 企業史研究委員會
- (6) 企業家思想研究委員會
- (7) 組織委員會
- (8) 弘報委員會

第2章 會 員

第6條(會員의 構成) 本 學會의 會員은 本 學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者로 하고, 이를 區分하여 (1) 正會員 (2) 準會員 (3) 特別會員 (4) 機關會員으로 한다.

第7條(會員의 資格) 正會員은 大學 또는 專門大學의 專任講師 이상의 者와 研究機關의 研究員으로 한다. 準會員은 經營史에 관심을 가진 大學院의 博士過程의 在學生 및 그에 준하는 者로 하고 그 加入은 理事會에서 결정한다. 特別會員은 本學會의 事業에 계속하여 贊助나 出損을 하는 者로 하고 그 加入은 理事會에서 결정한다. 機關會員은 本 學會에 계속하여 찬조나 출연을 하는 機關(團體포함)으로 하고 그 加入은 理事會에서 결정한다.

第8條(會員의 權利·義務) 本 學會의 會員은 소정의 會費를 納付하여야 하며 本 學會의 諸般事業에 자유롭게 參加할 수 있다.

第9條(會員의 資格喪失) ① 本 學會의 會員으로서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는 그 資格을 喪失한다.

- (1) 會員自身의 脫退意思를 表現했을 때
- (2) 本 學會의 名譽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
- ② 前項의 (2)에 해당하는 會員은 總會에서 이를 제명할 수 있다.

第3章 任 員

第10條(任員의 構成) ① 本 學會의 任員은 會長, 副會長, 常任理事, 理事 및 監事로 構成한다.

- ② 理事會는 會長 1人, 副會長 약간명, 常任理事 20명 內外, 理事 40명 內外로 구성한다.
- ③ 監事는 2人으로 한다.
- ④ 本 學會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는 社會各界의 人士 中에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顧問 및 諮問委員으로 추대할 수 있다.

第11條(會長의 選出) 會長은 理事會의 推薦을 받은 者 또는 正會員 3분의 1 이상의 推薦을 받은 者로서 總會의 議決을 거쳐 選出한다.

第12條(監事 및 理事의 選出) ① 監事는 總會에서 선출한다.
② 副會長, 常任理事 및 理事는 會長의 推薦에 의하며 總會에서 認准한다.

第13條(任員의 任期) ① 會長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②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第14條(任員의 權限) ① 會長은 本 學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한다.
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의 有故時에는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常任理事는 會長의 主宰下에 本 學會의 業務를 協議한다.
④ 監事는 會務를 監事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理事會의 召集을 요구할 수 있으며 理事會에서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⑤ 顧問 및 諮問委員은 本 學會의 發展을 위한 諮問을 할 수 있다.

第 15 條(事務局 設置) ① 本 學會에 事務局을 두며, 會長은 常任理事 中에서 事務局長을 任命한다.

② 會長은 필요할 경우, 사무국장 밑에 實務를 擔當할 幹事를 任命할 수 있다.

第 4 章 會 議

第 16 條(總會) 本 學會의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하고, 定期總會는 年1回 정 기적으로 會長이 소집하며, 臨時總會는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會員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第 17 條(議決事項) 總會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會則改正
- (2) 會長 및 監事의 選任
- (3) 會員의 權利와 義務에 관한 事項
- (4) 事業計劃
- (5) 豐算 및 決算
- (6) 기타 主要事項

第 18 條(理事會)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決議한다.

- (1) 業務執行에 관한 事項
- (2) 事業計劃 運營에 관한 事項
- (3) 豐算書 및 決算書 作成에 관한 事項
- (4)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 (5) 會則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 (6) 기타 主要事項

第 19 條(定足數) ① 모든 會議는 會員 多數의 參席으로 開催하고, 出席會員 過半數의 찬 성으로 決議한다.

② 不得已한 사유로 會議에 參席할 수 없는 會員은 議決權을 會長 및 出席委員에게 위임 할 수 있다.

第 20 條(會議錄) 會議事項에 관하여는 반드시 會議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第 5 章 財 政

第 21 條(財政) ① 本 學會의 財政은 會員이 納付하는 會費와 寄附金, 補助金, 出捐金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會費는 理事會에서 定한다.

附 錄

第22條(會計年度) 本 學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7月 1부터 다음해 6月 末日까지로 한다.

附 則

第1條 ① 本 會則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理事會의 議決에 따른다.

② 本 學會의 總會나 理事會에서 特別한 決議가 없는 한, 通常慣例에 따른다.

第2條(施行) 本 會則은 1986年 12月 9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 會則은 1991年 9月 1일부터 施行한다.

本 會則은 施行當時의 任員의 任期는 1993年 2月 28일까지로 한다.

附 則

本 會則은 1994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 會則은 1996年 6月 1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 會則은 1997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 會則은 1999年 11月 20일부터 施行한다.

社團
法人 韓國經營史學會「創業大賞」規程

第1條 (目的)

本 規程은 우리나라 產業發展과 社會的 奉仕에 기여한 우수하고 모범적인 創業者精神을
가진 者에게 創業大賞을 授與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賞勳의 原則)

本 創業大賞은 우리나라 產業發展에 功勞가 큰 創業者와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크게 寄
與한 經營者에게 授與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3條 (大賞 授與의 銓衡基準)

創業大賞의 銓衡基準은 다음과 같다.

1. 創業者精神과 理念

- (1) 創業者精神
- (2) 經營理念
- (3) 經營思想
- (4) 經營者의 資質
- (5) 企業家精神

2. 經營合理化의 業績

- (1) 經營 · 技術의 革新
- (2) 企業의 成長度
- (3) 生產性의 向上度
- (4) 企業의 國際化

3. 社會的 責任의 寄與度

- (1) 經濟發展의 寄與度
- (2) 後繼者의 育成
- (3) 社會奉仕 寄與度
- (4) 產業環境에의 貢獻度

第4條 (大賞 審查委員會)

1. 創業大賞의 授與對象者 選定을 위하여 大賞審查委員會를 둔다.
2. 上記 1項의 委員은 構成은 韓國經營史學會長이 本學會에서 學問과 人望이 두터운 委員을 委嘱하되 9名 以下로 한다.
3. 大賞 授與는 理事會의 認准을 받아야 한다.
4. 創業大賞 審查委員會는 創業大賞 호보자에 대한 推薦書와 후보자의 概要 및 其他 參考資料를 提出 받아 審查를 한다.

第5條 (大賞 및 副賞)

創業大賞者에게는 그의 功績을 기재한 賞牌와 副賞을 授與하고 「經營史學」學會誌에 전재하여 영원히 그 記錄을 남긴다.

第6條 (大賞 授與時期)

創業大賞은 每年 定期總會에서 授與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7條 (附則)

1. 本 規程에 定하지 아니한 모든 事項은 韓國經營史學會 常任理事會의 決議에 따라 施行한다.
2. 本 規程은 1994年 3月 1日부터 發效한다.

創 業 大 賞 推 薦 書

<양식 1>

對 象 會社名	(한글) (漢文)			
創業者	(한글) (영문) (漢文)			
代表者	(한글) (漢文)			
住 所				電 話
業 種				大企業
				中小企業
主製品				其 他()
推薦書	所 屬 機 關			
	姓 名	(인)	電 話	

創業大賞 概要

<양식 2>

會社名	(한글)	(漢文)				
代表者	(한글)	(漢文)		資本金	百萬원	
所在地	本社	(電話)				
	工場	(電話)				
		(電話)				
業種				區分	大企業	
主製品					中小企業	
					其他()	
從業員數	計	사무직	연구직	생산직		其他
	명	명	명	기술직	기능직	기타직
				명	명	명
賣出額	199년		199년		199년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輸出額	千달러		千달러		千달러	
作成者	部署名	姓名	(印)	전화		

(1) 會社沿革 :

(2) 創業精神과 經營哲學 :

- * 기타 전형기준자료는 創業大賞規程 第3條에 의한 所定의 評價資料를 임의로 작성하여 提出하도록 한다.

社團 法人 韓國經營史學會「專門經營者賞」規程

第1條(目的)

이規程은 우리나라 產業發展과 產業經營에 크게 寄與한 專門經營者에게 「專門經營者賞」을 受與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賞勳의 原則)

본 專門經營者賞은 우리나라 產業發展에 기여한 專門經營者와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貢獻한 자를 原則으로 한다.

第3條(賞 授與의 銓衡基準)

專門經營者賞의 銓衡基準은 다음과 같다.

1. 產業經營의 業績

- (1) 成長度(매출액, 단기순이익)
- (2) 經營戰略
- (3) 生產性 向上
- (4) 世界化 진척도
- (5) 經營革新(Inovation)

2. 社會的 責任의 寄與度

- (1) 經營理念
- (2) 社會奉仕
- (3) 利害調整度
- (4) 產業環境度
- (5) 勢使關係의 調整

3. 專門經營者 能力

- (1) 價值觀
- (2) 리더십
- (3) 人間關係
- (4) 正直性
- (5) 精進力, 健康, 推進力

第4條(賞 審查委員會)

1. 專門經營者賞의 수여대상자 選定을 위하여 賞 審查委員會를 둔다.
2. 上記 1項의 委員會 構成은 本 學會長이 學界, 產業界, 言論界의 人士 中에서 學問 과 人望이 훌륭한 분을 委嘱하되, 그 人員은 7명으로 한다.
3. 專門經營者賞 授與는 理事會의 認准을 받아야 한다.
4. 賞審查委員會는 專門經營者賞 對象者에 대한 推薦書와 對象者の 申請書 및 其他 參考資料를 提出 받아 審查를 한다.

第5條(賞)

專門經營者賞은 產業分野의 業績과 社會的 責任 및 寄與度, 專門經營者 能力 등의 功績을 記載한 賞牌를 수여한다.

第6條(賞 授與時期)

專門經營者賞은 每年 授與할 수도 있다.

第7條(其他準據)

本 規程에 定하지 아니한 모든 事項은 本 學會 常任委員會의 決議에 따라 施行한다.

(1) (制定日) 이 規程은 1996年 11月 16日에 制定한다.

專門經營者 大賞 概要

회 사 명																		
전문경영자																		
소 재 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15%;">본사</td> <td colspan="5"></td> </tr> <tr> <td>공장</td> <td colspan="5"></td> </tr> </table>						본사						공장					
본사																		
공장																		
업 종				구 분	대 기 업													
주 제 품					중소기업													
					기타()													
종업원수	계	사무직	생 산 직		기타직원													
	기술직		기능직															
매 출 액	199 년		199 년		199 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천달러		천달러		천달러													
작 성 자	부서명		성 명	(인)	전 화													
(1) 회사연혁 :																		
(2) 전문경영자의 경영철학 :																		
(3) 전문경영자의 경력(별지에 제출)																		

* 기타 참고자료는 전문경영자대상규정 제3조에 의한 소정의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전문경영자상 추천서

대 상	한 글			
회사명	한 문			
전 문	한 글		생년월일	
경영자	한 문			
주 소			전 화	
업 종			대 기 업	
주제품			중소기업	
특 기			기타()	
추천자	소속기관			
	성 명	(인)	전 화	사장실 자 택
추천내용 :				

經營史學 學術賞規程

第1條(目的) 이 規程은 韓國經營史學會 會員中 經營史學에 관련된 優秀한 研究論文 및 著書를 發表한 者에게 經營史學 學術賞(以下 學術賞이라 稱한다.) 授與에 關한 事項을 規程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賞勳의 原則) 본 學術賞은 經營史學 研究에 관련된 優秀論文 및 著書에 限하여 授與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3條(學術賞 審查委員會)

- (1) 學術賞 授與對象者 選定을 為한 論文 및 著書를 審查하기 為하여 學術賞 審查委員會를 둔다.
- (2) 上記 1項의 委員會 構成은 學會長이 委員을 委嘱하되 그 人員은 7名 以內로 한다.
- (3) 學術賞 授與는 理事會의 認准을 받아야 한다.

第4條(學術賞 및 副賞) 學術賞은 그 功績을 記載한 賞牌와 副賞(金 한돈상당의 금메달)으로 한다.

第5條(學術賞 授與時期) 學術賞은 每年 定期總會에서 授與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6條(其他準據) 本 規程에 定하지 아니한 其他事項은 常任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施行한다.

附　　則

이 規程은 1999年 7月 1日 制定 施行한다.

社團法人韓國經營史學會 論文集 編輯委員會 設置 内規

第1條(目的)

이 規程은 韓國經營史學會의 學術研究誌인 「經營史學」 등의 發刊을 위한 編輯委員會의 設置, 運營 및 그 編輯方針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編輯委員會)

本 學會의 論文集 發刊을 위하여 「經營史學」 발간 編輯委員會를 설치 운영한다.

第3條(編輯委員會의 構成)

- ① 編輯委員은 會長이 任命하고 編輯委員會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編輯委員長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報告한다.
- ③ 編輯委員의 任期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編輯委員會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決議한다.

第4條(編輯委員의 資格)

編輯委員은 다음 각 호의 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이어야 한다.

- ① 4年制 大學 正教授
- ② 研究業績이 總 20編 이상인 자
- ③ 最近 2年 以內에 國內 · 外 學術會議에서 論文 發表者(또는 座長, 討論者)로서의 經歷이 4회 이상인 자

第5條(業務)

編輯委員會는 다음의 事項을 執行한다.

- ① 論文集 發刊計劃의 樹立 및 施行
- ② 提出된 論文의 揭載與否 審議
- ③ 기타 論文集 發刊 編輯에 관한 事項

第6條(豫算)

編輯委員會의 運營에 필요한 經費는 本 學會의 豊算에서 執行한다.

第7條(投稿資格)

投稿者는 原則的으로 韓國經營史學會의 會員에 限한다. 다만, 會員과의 共同研究者 및 招請된 寄稿者は例外로 한다.

第8條(揭載論文의 責任)

揭載된 論文의 責任은 執筆者가 진다.

第9條(掲載論文)

掲載論文은 다른 刊行物에 發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第10條(掲載與否 通報)

提出된 論文은 編輯委員會에서 위촉하는 審查委員에 의한 審查가 이루어지고 審查結果에 따라 編輯委員會에서 그 掲載與否를 決定하고 이를 執筆者에게 通報한다.

第11條(修正 및 補完)

編輯委員會는 掲載된 論文 內容의 修正이나 補完을 執筆者에게 요구할 수 있다.

第12條(審查基準)

掲載된 論文의 審查基準은 다음과 같다.

- ① 研究主題의 重要性
- ② 研究方法의 妥當性
- ③ 內容의 創意性 및 檢證性
- ④ 理論的, 實務的 및 教育的 寄與度
- ⑤ 其他 編輯技術上의 要件에 適合與否 등

第13條(審查節次)

投稿된 論文의 審查는 다음의 節次를 거쳐서 「經營史學」에 掲載한다.

- ① 「經營史學」 투고요령에 따라 작성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편집 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따르지 않은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論文이 접수되면 編輯委員長은 즉시 분야별 편집위원에게 2인의 審查委員 선정을 의뢰한다.
- ③ 投稿된 論文은 2인의 審查委員에 의해 비밀심사(審查委員에게는 論文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를 받는다. 심사 결과가 掲載可와 掲載不可로 양분되는 경우 제3심사는 편집위원이 행한다. 단, 論文의 내용상 제3자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장이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④ 編輯委員長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는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編輯委員長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編輯委員長은 제3심사까지 포함한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編輯委員長으로부터 論文의 수정을 요청받은 집필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編輯委員長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집필자는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그 때까지 수정된

論文을 提出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 논문집필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論文은 1차심사자가 다시 심사하도록 한다.

⑧ 編輯委員會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만을 게재한다.

⑨ 특별기고로 초청받은 논문의 경우도 위와같은 심사과정을 경유하여 필요한 수정을 필한 후 掲載한다.

⑩ 편집위원회 결정에 따른 편집위원회 위촉논문인 경우에는 논문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第 14 條(論文集 內容 區分)

論文集 內容은 研究論文, 研究노트, 書評 및 通信欄으로 구분될 수 있다.

第 15 條(論文의 體制)

掲載되는 論文의 體制에 관한 事項은 編輯委員會에서 정한다.

第 16 條(掲載順序)

論文의 掲載순서는 編輯委員會가 논문을 접수한 날이 빠른 순서를 원칙으로 하고 編輯委員長이 논문의 중요성과 독창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第 17 條(論文 掲載豫定證明)

論文 掲載豫定證明은 게재가 확정된 후에야 발행할 수 있다.

第 18 條(版權)

「經營史學」掲載된 論文의 版權은 韓國經營史學會가 所有하는 것으로 한다.

第 19 條(返還)

投稿된 論文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第 20 條(發刊時期)

「經營史學」은 매년 2회(6월, 12월)발간한다. 단, 韓國經營史學會의 特別研究에 의한 特輯을 刊行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第 21 條(投稿要領)

「經營史學」에 掲載될 論文의 投稿要領은 따로 정한다.

第 22 條(其他)

本 內規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대로 한다.

附 則

本 會則은 1991년 9월1일부터 施行한다.

本 會則 施行當時의 任員의 任期는 199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本 會則은 1994년 7월 1일부터 施行한다.

本 會則은 1996년 6월 1일부터 施行한다.

本 會則은 1996년 6월 1일부터 施行한다.

本 會則은 1998년 7월 1일부터 施行한다.

本 會則은 2003년 2월 25일부터 施行한다.

社團
法人 韓國經營史學會
『經營史學』 편집위원회

논문심사의견서

논문제목			
심사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1. 심사위원 평가사항

평가항목		평가내용(해당점수에 √표시)
1	연구주제의 적합성	평가점수 :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2	주제의 참신성	평가점수 :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3	연구방법의 타당성	평가점수 : 10점() 8점() 6점() 4점() 2점()
4	연구결과의 기여도	평가점수 : 10점() 8점() 6점() 4점() 2점()
5	논문의 구성 및 논리전개	평가점수 :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6	문장표현 및 편집요건 충족여부	평가점수 : 10점() 8점() 6점() 4점() 2점()
7	참고문헌, 각주, 영문요약의 절절성	평가점수 : 10점() 8점() 6점() 4점() 2점()
종합점수		(/100)점

2. 심사위원 최종판정

판정내용	판정	비고
(1) 무조건 게재(90점 이상)	()	현재상태로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음.
(2) 수정/보완 후 게재가능(80점 이상)	()	지적사항이 수정된 후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음. (수정 및 보완 후 편집위원회가 평가)
(3) 수정/보완 후 재심(70점 이상)	()	지적사항을 수정하여 재투고(저자의 심사답변서 포함) 되었을 때 재심사를 함.
(4) 게재불가(70점 미만)	()	현재의 연구내용으로는 논문집에 게재할 수 없음. (※ 1번과 2번 항목의 합이 30점 이하인 경우도 해당)
※ 무조건 게재 또는 수정 및 보완 후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판정) 결과에 따른 수정 여부와 답변내용을 확인 후 바로 게재절차를 밟게 됩니다.		
※ 논문심사위원회에서 수정 또는 답변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의 √표기해 주십시오.		
확인희망()		

3. 심사위원 총평(수정사항)

「經營史學」投稿要領

1. 투고자는 원고 3부를 디스켓 1개와 함께 본 학회 편집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본 編輯委員會에 도착한 날로 한다.
3. 원고는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량은 작성요령에 따라 200자 원고지 100매(A4 용지 20매)내외로 한다.
4. 원고 제1면에는 원고제목, 투고자의 성명 및 소속기관, 연락주소 및 전화번호, E-mail 등을 명기하고 원고매수를 표시한다. 단, 원고제목 및 투고자의 성명은 영문을 병기한다.
5. 원고 제2면부터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목차를 표시하고 本文을 작성한다.
6. 본문 作成時의 順序表示는

I.

- 1.
- 1)
- (1)
- ①

의 數字를 차례로 사용하여 章, 節, 款, 項, 目의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문장을 작성할 때 내용을 強調할 경우는 「…」로 표시하고, 引用文의 경우는 『…』로 표시하여 각주로 인용한 문언을 나타내야 한다.

7.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한 국문으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영문으로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돋기 위해 영문을 괄호안에 넣어 덧붙일 수 있다.
8. 모든 표 및 그림은 선명하게 그리며 해당번호(예〈표 1〉, 〈그림 3〉)와 제목 또는 설명을 붙여야 한다.
9. 脚註(Footnote)는 최소화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10. 脚註(Footnote)는 어구의 오른편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그 내용은 각 면 아래부분에 작성한다.
11. 참고문헌은 본문의 마지막에 장을 달리하여 기재한다. 참고문헌의 기재순서는 국문문헌, 외국어문헌의 순서로 하며, 국문문헌의 경우 가나다 순으로 일본문헌은 일본가나 순으로, 영문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기재한다.
12. 본문 중 문헌인용의 경우 이름과 발표년도를 표기할 수 있다. 또한 특정부분을 인용한 경우에는 페이지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13. 국문 논문인 경우에는 영문 초록을, 영문인 경우에는 영문 초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14. 영문 제목과 영문 이름, 영문 소속을 반드시 기재한다
15. 참고문헌의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정기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年度, 논문제목, 간행물이름(국내문헌의 경우 고딕체로, 외국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 권(Vol), 호(No.), 페이지 순으로 한다. 정기간행물이 아닌 경우는 저자이름, 연도, 도서이름(국내문헌의 경우 고딕체로, 외국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또는 밑줄로 표시), 출판회수(2판 이상), 출판지, 출판사이름의 순으로 기재한다.
(보기) :
 - ① 金聖壽(1994),『新經營政策과 戰略』(서울, 法經社).
 - ② 高承嬉(1995),「東亞建設創業者의 生涯와 經營理念」(韓國經營史學회 刊,『經營史學』第11輯, pp. 79~121).
 - ③ 손태원(1992),「공정보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황일청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형평』, 서울 :나남, pp. 209~250).
 - ④ Reilly, A, Chatman, J., and Caldwell, D.F.(1991), "People and Organizational Culture : A Profile Comparison Approach to Assessing Person-Organization Fi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34, New York Press Co., pp. 487~516.
 - ⑤ 天野雅敏(1995),「近代的パラダイムの轉換と經營」(安岡重明・天野雅敏 共編,『近代的經營の展開』, 東京, 岩波書店, pp. 281~340).
16. 마지막 면에는 영문 요약(Abstract)과 key-word를 A4용지 1매 분량으로 작성한다.

附　則

본 투고요령은 1996년 3월 1일부터 발효한다.

본 투고요령은 1998년 3월 1일부터 발효한다.

基金運營委員會 規程

第1條(目的) 이 規程은 社團法人 韓國經營史學會에 출연한 基金運營에 필요한 事項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基金의 造成) 本 基金은 本 學會의 設立趣旨를 이해하고 支援하고자 하는 個人이나 機關이 韓國經營史學會에 출연하는 各種 출연기금으로 造成한다.

第3條(基金의 運營) 本 基金은 長期的인 價值安定對策의 一環으로 의거하여 金融機關의 證書로 運用한다.

第4條(基金의 使用) 本 基金은 學會의 事業目的 修行과 出捐者의 出捐目的에 따라 基金運營委員會의 결의에 의하여 사용한다.

第5條(基金運營委員會 構成) 基金의 運營을 計劃하고 審議하기 위하여 韓國經營史學會傘下에 基金運營委員會를 設置한다. 本 委員會는 韓國經營史學會 會長, 副會長 3인, 事務局長 2인, 常任理事 중 1人을 先任하여 7人 以內로 構成되며, 本 委員會의 會計監查를 위하여 監事 1人을 둔다.

第6條(基金運營委員會 運營)

1. 基金運營委員會는 本 委員會 決議에 따라 運營委員長 1人을 先任한다.
2. 本 委員會는 委員의 過半數 出席에 過半數 賛成으로 議決한다.

第7條(會計報告 및 監查) 韓國經營史學會長은 基金의 財產現況 및 輸入支出狀況을 每會計年度末에 書面으로 作成하여 基金運營委員會 檢討와 監事의 承認을 얻어야 하며, 이를 韓國經營史學會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附 則

本 基金運營規定은 2000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한국경영사학회 임원명단 (2001. 7. 1~2003. 12. 31)

구 분	성 명	소 속	전 화 번 호	
			직 장	자 택
회 장	이 승 육	단국대 상경학부 교수	(02)709-2515	(02)542-9594
부 회장	김 영 래	충북대 국제경영정보시스템학부교수	(043)261-2341	(043)265-7628
	박 광 서	순천향대 경제학과 교수	(041)530-1656	(031)445-6717
	신 만 수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02)3290-1932	(031)713-0798
	이 원 우	승실대 경영학부 교수	(02)820-0563	(031)717-9600
	이 한 구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	(031)220-2310	(02)991-7007
상임이사	국 승 규	원광대 경제학과 교수	(063)850-6415	(063)841-6490
	김 동 운	동의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051)890-1412	
	김 성 국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02)3277-2782	(031)911-7232
	김 억 헌	단국대 경상학부 교수	(041)550-3385	(043)232-8348
	김 태 명	세명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043)649-1255	(02)2202-7828
	남 명 수	인하대 경영학부 교수	(032)860-7739	(031)713-4373
	박 경 희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02)3277-2794	(02)324-8811
	박 동 규	한울경영연구소 소장	(02)6413-3166	(02)419-3166
	박 성 수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062)530-1400	(061)530-1434
	박 현 준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02)2123-2521	(02)511-2959
	서 인 덕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053)810-2736	(053)763-5377
	송 광 선	순천향대 경영학과 교수	(041)530-1163	(041)551-3577
	안 종 태	강원대 경영관광학부 교수	(033)250-6140	(02)533-4003
	오 성 동	조선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062)230-6833	(062)671-2996
	유 성 기	주미 교수	(02)7918-3236	(02)878-6603
	이 기 동	계명대 통상학부 교수	(053)580-5223	(053)635-7396
	이 남 구	건국대 무역학과 교수	(043)840-3481	(02)447-1838
	이 문 선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042)2290-1044	(02)402-0362
	이 성 준	우송대 아시아통상학전공 교수	(042)630-9771	(042)622-0538
	이 재 규	대구대 경상대학 교수	(053)850-6231	(053)655-0491
	이 종 원	수원대 무역학과 교수	(031)220-2283	(031)220-2283
	이 훈 섭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	(031)249-9426	(02)802-1231
	장 영 철	경희대 정경대학 교수	(02)961-9209	(02)2231-9640
	정 재 영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	(02)760-0478	(02)514-6677
	조 성 원	고려대 경상대학 교수	(041)860-1518	(02)744-6800
	차 동 육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	(02)760-0457	(02)396-9203
	최 송 길	한성대 경영학과 교수	(02)760-4042	(031)713-0441

구 분	성 명	소 속	전 화 번 호	
			직 장	자 택
감 사	김 상 규	경원전문대 e비즈니스과 교수	(031)750-8763	(031)263-7569
	김 정 식	조선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062)671-1302
사무국장	안 영 전	단국대 상경학부 교수	(02)709-2520	(02)420-0261
사무차장	박 현 희	단국대 강사	(02)709-2515	(02)599-5982
간 사	이 재 원	단국대 연구조교	(02)709-2515	(02)962-5514
이 사	김 남 인	내외경제신문 논설위원	(02)727-0023	(02)554-3757
	김 병 순	단국대 경상학부 교수	(041)550-3361	(02)644-0432
	김 선 봉	신흥대학 경상정보계열 교수	(031)870-3470	(042)482-1736
	김 성 순	단국대 경상학부 교수	(041)550-3381	(031)261-7579
	김 상 종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02)2260-3284	(031)263-6508
	김 성 기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043)261-2218	
	김 신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031)201-2321	(02)443-0390
	김 신 응	청주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043)229-8179	(02)954-4073
	김 응 식	제주산업정보대 관광경영전공교수	(064)754-0356	(064)752-9778
	김 인 호	경원대 경영학과 교수	(032)750-5007	(02)422-4858
	김 희 중	호남대 정경학부 교수	(062)940-5370	(062)262-8515
	박 영 배	세명대 경영학과 교수	(043)649-1240	(02)951-8927
	박 용 기	안양대 경영전공 교수	(031)467-0822	(031)469-8705
	서 종 규	동덕여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02)940-4441	(02)455-2457
	설 봉 식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02)670-3046	(02)593-5093
	송 동 섭	단국대 상경학부 교수	(02)709-2950	(02)451-1407
	송 재 훈	우석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063)290-1407	(02)591-8438
	신 두 휴	단국대 경상학부 교수	(041)550-3361	(02)503-9589
	신 승 국	용인대 경영학부 교수	(02)743-2110	(02)470-8860
	신 장 철	승실대 일본학과 교수	(02)820-0532	(031)471-1537
	신 황 호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032)860-7812	(02)466-8444
	심 상 천	경원전문대 e비즈니스과 교수	(031)750-8761	(02)2292-5581
	안 춘 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02)2290-1046	(031)781-8581
	양 진 환	강남대 경영학부 교수	(031)280-3737	(02)915-8788
	위 수 일	대구카톨릭대 경상대학 교수	(053)850-3451	(053)754-5529
	유 병 주	충남대 경영학과 교수	(042)821-5539	(042)482-2655
	유 세 준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032)765-0077	(02)372-3366
	유 임 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02)3277-2771	(02)3273-8663
	이 광 로	건국대학교	(043)840-3474	(043)845-4198
	이 광 종	신흥대학	(031)870-3490	(02)395-9880
	이 광 주	단국대학교	(02)709-2522	(02)555-5146
	이 승 영	동국대학교	(02)2260-3276	(02)991-6422

附 錄

구 분	성 명	소 속	전 화 번 호	
			직 장	자 택
이 사	이 은 재	동해대학교	(033)521-9900	(02)6242-5624
	이 정 도	경북대학교	(053)950-5420	(053)423-2527
	이 현 대	경기대학교	(02)390-5129	(02)3471-5028
	이 호 선	단국대학교	(02)709-2524	(02)565-3948
	임 외 석	경원전문대학	(031)750-8764	(031)745-9074
	장 동 운	전주대학교	(063)220-2269	
	전 형	단국대학교	(02)709-2505	(02)907-4419
	정 수 원	동서대학교	(051)320-1634	(051)502-2317
	정 영 관	공주대학교	(041)850-8253	
	정 행 득	광운대학교	(02)940-5550	(02)422-4858
	조 대 우	충남대학교	(042)821-5553	(042)867-7096
	조 수 종	충북대학교	(043)261-2214	(02)415-6658
	최 단 옥	인천대학교	(032)770-8352	(02)414-1025
	최 영 순	한양대학교	(02)2290-1020	(02)382-3589
	최 용 륙	인하대학교	(032)860-7760	(02)659-2448
	최 종 태	서울대학교	(02)880-6946	(02)584-4961
	한 한 수	경희대학교	(031)201-2314	(02)966-5274
	허 남 일	강남대학교	(031)280-3740	(031)235-4154
	황 신 모	청주대학교	(043)229-8183	(043)212-0684
	황 준 성	숭실대학교	(02)820-0558	(02)654-9972
고 문	이 현 재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	(02)594-0321	(02)334-1631
역 대 회 장	김 병 하(1,2대)	한동대 객원교수	(054)260-1111	(031)947-5781
	황 명 수(3 대)	단국대 명예교수	(02)709-2506	(02)2281-7561
	김 광 수(4 대)	숭실대 명예교수	(02)820-0551	(02)453-8459
	김 성 수(5 대)	경희대 교수	(031)201-2313	(02)568-0645
	고 승 희(6 대)	단국대 교수	(02)709-2530	(031)969-1113
	이 건 회(7 대)	이화여대 교수	(02)3277-3750	(031)398-2845
자 문 위 원	강 명 규	서울대 명예교수	-	(02)742-6210
	박 재 록	원광대 명예교수	-	(063)856-1188
창 업 자 관련 이사	김 석 준(1회)	쌍용(주) 회장		
	이 건 회(2회)	삼성(주) 회장		
	신 용 호(3회)	교보생명보험(주) 명예회장		
	김 향 수(4회)	아남산업(주)		
	이 종 호(5회)	중외제약(주) 회장		
	정 주 영(6회)	현대건설(주)		
	구 자 경(7회)	LG화학(주) 명예회장		
	손 길 승(8회)	SK그룹 회장		

〈編輯委員〉

委員長 金榮來(忠北大)
委員 高承禧(檀國大)
 金聖壽(慶熙大)
 朴光緒(順天鄉大)
 安榮鎮(檀國大)
 李漢九(水原大)
 曹晟源(高麗大)

經營史學 第18輯 第3號(通卷 32號)

2003年 12月 25日 印刷

2003年 12月 31日 發行

發行人 李承郁

發行處 社團法人韓國經營史學會

01400-[7114]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8번지

단국대학교 상경학부 상경학관 205호

Tel. : (02)709-2515

Fax : (02)798-6907

E-mail : sulee522@dankook.ac.kr

Home page : <http://www.kabh.or.kr>

印刷處 國立修書院

Tel. : (02)765-0924~5, (02)765-0927

E-mail : suseowon@hanmail.net

(非賣品)

